



3

199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1. 3호

(루게 521)



◆◆◆◆◆◆◆◆◆◆ 차 례 ◆◆◆◆◆◆◆◆◆◆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당면한 당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자 ...	4
축복받은 땅이여	7
조선은 사회주의의 굳건한 보위자	8
천리길에 눈내리네	8
김정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9
대성산의 만폭동	9
어제도 오늘도 먼 나라에 가서서도	10
용해공의 목소리	11
불멸의 절정 (외 2 편)	12
소백수와의 속삭임	12
꽃바다우에	13
여기에 내가 산다	13
주체적문예사상은 우리 문학예술의 뉘이며 생명선이다	14
겨울이 좋아	17
평양찬가	18
기 원	19
너는 알고있지	27
백발로인의 모습	28

우리가 서야 할 자리	30
내 자란 품 (외 1 편)	31
평 양	32
뿌리는 토양속에 있다	33
내 친구의 아들	41
90 년대 인간전형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하여	42
《풍년》 든 들판에서	45
나의 로동일아	46
대건설장의 병사들은 (외 1 편)	47
제방우에서	47
류다른 마차	48
다시 온 소조원	54
탄전의 아침 (외 1 편)	55
입껏전 한때	55
동심에 맞는 개성적인 동요, 동시	56
창작에 대한 몇 가지 고찰	56
통일의 념원 답아 (외 1 편)	61
목 마	61
흥미있게 읽은 소설	62
고전소설 《백학선전》의 사상예술성	63
누이를 생각한다	66
시인과 조국통일열망의 서정	72
혈맥이 이어질 강토	78
통일아 어서 오라	79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당면한 당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자

준엄하고도 영광에 넘친 우리 력사에서 영원히 잊을수 없는 위대한 년대가 흘러가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금 주체의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인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 높은 조직적 수완과 비상한 전개력을 지니고 90 년대의 력사적 진군을 이끌어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에서 우리 사회주의위업의 양양한 전도를 굳게 확신하고있다.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는 시대의 힘찬 발걸음에 발맞추어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는 우리의 기치이며 그 종국적승리는 확정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현시기 사회주의 건설을 잘하는것은 우리 인민이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니고있는 영예로운 임무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승리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릴 때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적소동은 맥을 추지 못하게 되고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날은 앞당겨지게 된다고 교시하시였다.

우리 작가들은 력사와 시대 앞에 지닌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위대한 당, 위대한 수령이 이끄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파시할수 있도록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작가들은 우리 식의 사회주의우월성이 전면적으로 꽃피는 현실에서 우리 당 정책이 빛나게 구현되고있는 생동한 사실들을 예술적으로 깊이 있게 보여주는데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무엇보다먼저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형상화하는 작품창작에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수행하여야 할 주되는 과업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성화하며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이는것, 이것이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주되는 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세우신 이 과업은 우리

인민경제발전의 현실태와 그 전망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제시된 가장 정당한 지침이며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나갈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준 혁명적인 방침이다.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진두에는 우리 혁명의 앞길을 개척하시고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서계시며 우리 당중앙이 혁명의 키를 억세게 틀어잡고있다.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켜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커다란 양양을 이룩할수 있고 제 3차 7 개년계획을 완수하는데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당과 수령의 의도대로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철도운수와 금속공업부문에서 일어나는 혁신적성과들을 작품들에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하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화원을 더 풍만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지금 대기념비적창조물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펼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있다.

우리는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과 10 월 9 일강철종합공장 건설, 발전소건설을 비롯한 수많은 중요대상건설들을 적극 추진하여 그 조업기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김으로써 우리 경제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로동당시대의 위용을 힘있게 떨쳐야 한다.

특히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할 과업이 우리앞에 나서고있다.

이 기업소가 완공되어 조업하게 되면 한해에 수십만톤의 카리비료와 알루미늄 그리고 세멘트가 생산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전반적인민경제를 더욱 빨리 발전시키는 데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게 되며 대외무역도 더 크게 확대발전시킬수 있다.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우리 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혁명적기질이다.

우리 작가들은 당의 요구대로 건설에서 새로운 《90 년대속도》를 창조하면서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을 앞당겨나가는 건설자들의 투쟁정신을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우리 당은 오늘 여기에 최대의 힘을 넣고있다. 지금 우리의 자립경제의 위력은 대단하며 우리는 있는 밑천을 가지고도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다.

농업부문과 경공업부문, 화학공업부문들에서는 당과 수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고 인민소비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며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농약, 화학섬유와 원료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위훈이 나래치는곳엔 반드시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충성의 열정을 불태우는 시대적전형의 생동한 개성이 있기마련이다.

우리 문학은 농업부문과 경공업부문, 화학공업부문들에서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새형의 인간들을 내세움으로써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 그 모범을 따르게 하여야 한다.

현시기 농업생산을 늘이는 중요한 방도는 흙갈이를 하여 땅의 지력을 높이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흙갈이전투를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릴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신것은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과 농업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며 인민생활을 한층 더 향상시킬수 있게 하는 현명하고 정당한 방침이다.

흙갈이를 하여 지력을 높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우리 나라 농업발전의 현실적요구이다.

우리 작가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어진 자각과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흙갈이전투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와 마지막흙갈이전투에서 로력적 위훈을 세우고있는 생동한 형상을 예술적으로 깊이 있게 창조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 특히 평양시 5만세대의 살림집건설을 끝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당과 수령이 주는 과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을 가장 큰 영예와 행복으로 여기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전형들이 일터마다에서 수없이 자라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살림집건설에서 위훈과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투쟁성과를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우리 식의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더 힘있게 파시하기 위하여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여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으신 때로부터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우리 나라에서 대안의 사업체계가 창조되어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이 끊임없이 개선강화되어온 지난 30년간의 실천적경험은 대안의 사업체계보다 더 우월하고 혁명적인 경제관리체계는 없으며 이 경제관리체계를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면 우리앞에 나선 그 어떤 방대한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당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도 확고히 앞세우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도 더욱 높일수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일군들이 대안의 사업체계만이 가장 우월하고 생활력있는 공업관리체계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그를 실속있게 구현해나가는것이다.

작가들은 오늘 사회주의적대규모경제를 옹기 관리운영해나가는 길은 오직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풀어나가는 일군들의 투쟁모습을 생동한 현실에 기초하여 폭넓고 설득력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작가들은 대안의 사업체계가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관리체계인만큼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발동시켜 생산을 발전시켜나가는 사실들을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실로 작가들은 대안의 사업체제와 같은 위대한 경제관리체제를 가지고있는것이 우리 인민의 커다란 자랑임을 소설과 시작품들에 심오히 형상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데서 지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일군들은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갈데 대한 당의 요구대로 언제나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하며 대중의 앞장에서 이신작직의 모범으로 그들을 새로운 위훈으로 불러 일으켜야 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로정에서 우리 인민이 언제나 높이 발양하여

온 전통적인 정신이며 주체조선의 영예를 힘있게 떨치게 한 영웅적인 혁명정신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야말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의 북소리가 더욱 높이 울리는 승리와 위훈으로 되게 하는 혁명적기치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해나갈 때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반사회주의적책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90년대의 혁명적진군을 과감히 벌리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가 힘있게 과시되게 될것이며 주체조선의 경제적위력이 백방으로 강화되게 된것이다.

자기 힘에 대한 굳은 확신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당의 정책적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사소한 주저와 동요도 있을수 없다.

우리 작가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혁명적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과감히 뚫고나가면서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자랑스런 투쟁모습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가장 중요한것은 자체의 힘을 굳게 믿고 거기에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 튼튼히 선 산 인간형상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내는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이 모든것이 파괴된 빈터우에서도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 천리마의 대고조를 일으켰던 그때의 그 정신, 그 기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심오히 형상하여야 한다. 또한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된 자랑스런 모습을 작품에 담아야 한다.

거창한 력사의 흐름속에서 대세를 결정하는 기본요인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이다.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어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룬 우리 인민의 투쟁모습을 작품들에 소리높이 구가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양양기에 창작생활을 한다는 영예와 긍지를 간직하고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혁명적인 문학을 창조하기 위하여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킬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이 주는 과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을 가장 큰 영예와 행복으로 여기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전형들이 사회주의건설이 진행되는 일터마다에서 수없이 자라고 있다.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진행되는 일터마다에서 발휘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이러한 시대정신, 시대의 지향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형상해내는 여기에 우리 작가들의 숭고한 사명이 있고 끝없는 영예가 있다.

오늘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당면한 당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전적으로 작가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당면한 당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열정이 타번지는 생활속에 뛰어들어 시대의 참신한 전형을 찾아내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당면한 당정책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시대앞에 지닌 영예로운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축복받은 땅이여

김윤철

봄
이 땅에 환희로운 새봄이 왔다
온 나라 포전에 흠뻑이로
또다시 땅의 새 역사를 펼치며
또다시 만풍년의 가을을 부르며
들끓는 이 강산에 봄이 왔다

아,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농민들에게 땅을 주신
마흔다섯해전 그 봄빛을 안고
온 나라가 충성의 씨앗을 심으며
벌에 펼쳐나선 경사로운 이 봄

땅이여 흠이여 말해보자
만세의 환호성 하늘땅에 넘치고
온 감산이 행복의 농악소리에 묻혀
숫구치는 감격의 눈물에 젖어
설레이며 잠 못 들던 못 잊을 그 봄날을

분여받은 땅의 표말에 기대앉아
제것으로 된 이랑들에 걸터앉아
터갈라진 손들이 움켜쥐고 못 놓으며
비벼보고 안아보던 그 흠

그것은 유격근거지의 밭이랑우에
토지개혁의 첫 강령을 적으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펼쳐주신
광복의 봄빛어린 이 나라의 대지였다

그것은 사랑하는 조국땅의 한줌 흠을
목숨처럼 가슴속에 품고
백두밀림 헤치던 투사들의 심장속에
굽이치며 따라서던 이랑들이었다

정녕 이 땅 이 포전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으로
한치한치 온 나라에 펼쳐지고
황금나락 설레이는 벌과 벌들에
선렬들의 숭고한 뜻 피로 아로새긴

천만이랑들이 뻗어내렸구나

오늘은 위대한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저 휘넓은 기계화의 포전들에서
기운차게 달리는 기계군단의 음향도
그 은혜에 목매여 노래불러라
풍년학이 날으는 지평선 아득히
관개수도 그 사랑에 넘치며 흘러라

해마다 만풍년의 금나락은
한없는 고마움에 알알이 영글고
이삭들은 뜨거운 감사의 인사로
무거이 무거이 고개숙여 설레이며
세세년년 만풍의 나라
조선의 영광을 온 세상에 펼쳐여라

우리의 가슴같은 이 땅 이 벌에
우리의 살과 같은 이 흠 이 포전에
우리의 피줄같은 이랑이랑들에
이제 더 큰 만풍년을 실어놓고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을 우러러
충성의 보고올릴 영광의 그날이여

사랑과 충성의 마흔다섯해
만풍년의 마흔다섯돌기우에
이제 다시 새겨질 빛나는 년륜우에
꽃피는 통일의 봄전야가 펼쳐지고
나날이 이 땅도 젊어지려나

마흔다섯해전 그 봄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땅만이 아닌 벌만이 아닌
영원한 만풍년의 가을이
끝없이 설레이며 마중오고있어라
흠뻑이로 들끓는 봄전야
새 희망에 젖어오른 대지
역사의 그 봄날을 만풍년의 가을속에
영원히 영원히 안고 펼쳐진
오, 축복받은 땅이여!

조선은 사회주의의 굳건한 보위자

프랑쑤아

위대하다 20세기여
인류의 새 생활 사회주의가 꽃피난 세기여
인류는 가장 귀중한 이 전취물을 굳건히 지
켜왔거니
어려운 시련을 넘고넘으며 사회주의는 전진
해왔다

급속히 내달려온 사회주의
끊임없이 늘어난 사회주의대오
사회주의력량은 세계발전의 추동력으로 되
였거니
인류는 사회주의에로의 길에서 나아갈 길
찾았어라

사회주의빛발 세계 5대륙에 비쳐갔거니
동방과 서방 북방과 남방에도
사회주의등대 높이 솟아
인류의 운명을 이끌어주었어라

허나 오늘 원쑤들 사회주의를 파괴하려고
발악한다
그 가지들을 잘라버리고 뿌리마저 파헤치려
날뛰다
사회주의를 목숨으로 지킬 때는 왔다
사회주의를 버리는 어리석은자들 파멸을
면치 못하리

허나 사회주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충
실한 사람들이 있다
20세기도 끝나가는 이 시각
사회주의를 위협에서 구원할 때는 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께서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가신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승승장구하거니
어떤 세력도 건드리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가장 위력한 무기 지녔거니
그것은 핵무기도 살륙무기도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무기
그것은 사상의 무기 주체사상의 무기
온 세계에 퍼져간 그 사상
길이길이 뿌리내린다

감사를 드리노라 영광드리노라
사회주의를 튼튼히 지켜가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그이께서 사회주의를 이끄시여
인류에게 착취도 압박도 없는 행복한 새 생
활 마련해주시거니
인류의 미래 사회주의미래는 확고하여라
경애하는 수령님 계시여

(필자는 마다가스카르 목사임)

가 사

천리길에 눈내리네

리광선

눈이 내리네 흰눈이
오가산령에 그날의 눈내리네
열두살 어리신 수령님
나라찾을 큰뜻 품고 이 길 가시였다고

눈이 내리네 흰눈이
천리길에 추억의 눈내리네

광복의 높은 뜻 이 길에서 다져지고
이 길에서 광복의 날 밝아왔다고

눈이 내리네 흰눈이
밝은 이 땅에 못잊을 눈내리네
다시는 이 길 짓밟히지 말자고
불타는 가슴들에 속삭이며 내리네

김정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라울 루나 발론

김정일 그이는

인민의 지도자

세계인민의 동지

그이의 리론과 업적은

주체사상과 더불어 빛나고 빛나

새날의 아름다운 노을마냥

모든 인민들을 감싸주어라

그이의 가르치심

공기와 같이 소중한

장미꽃의 이슬마냥 맑고 맑아라

그이의 원대한 구상은

영생하는 평양의 대지우를

아름다운 보석마냥 은백색빛 뿌리며

굽이쳐 흐르는

대동강과 더불어

길이 빛나리

주체는

땅도 바다도

한품에 안아주어다

주체는 모든 인민에게

찬란히 빛나는 별처럼

자유길 밝혀주어라

내 언제나 부르고 또 부르니

그이의 존귀하신 성함

그이의 주체사상은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

붉은 꽃망울되어

인민의 심장속에 피어나는

백두의 만병초라네

(필자는 페루 **김정일** 동지 문예사상연구소
위원장임)

대성산의 만폭동

고영수

맑고 푸른 대동강물 바다로만 흐르더니

장수봉에 높이 올라 폭포되어 쏟아지네

층층바위 흘러내려 수정같은 팔담이라

유서깊은 대성산에 만폭동이 생겼구나

인민 위해 베푸시는 수령님의 그 사랑이

옥구슬로 아롱지고 무지개로 비졌는가

산새물새 고운 목청 사시장철 노래하니

예가 바로 선경이라 선남선녀 우리로다

금수강산 내 나라엔 폭포들도 많지만

대성산의 만폭동은 평양의 자랑일세

세월따라 커만가는 수령님의 그 은덕을

폭포수야 노래 불러 온 세상에 전하여라

어제도 오늘도 먼 나라에 가서서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매한 품모에 대한 전설과 같은 일화들 가운데는 우리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새물이와 귀뚜라미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이른아침마다 처마밑에서 지저귀는 참새떼를 긴 장대로 날려보내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새벽잠을 지켜드린 새물이야기는 김정숙어머님께서 서거하신 직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학교에도 다니시기전인 매우 어리시었을 때에 있었던 일이다.

또 풀벌레소리 소란한 한여름밤, 늦도록 일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조용한 분위기를 마련해드리시려고 남몰래 정원을 거니시며 귀뚜라미의 울음을 멈추게 하셨다는 유명한 이야기는 그이께서 초급중 학교에 다니실 때에 있는 사실이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 이 강산은 천지개벽을 이룩하였지만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그러한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1978년 9월 9일, 공화국창건 30돛경축 대군중시위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온 수도시민들이 명절을 즐기고 있을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김일성**광장에 나가시어 오랜시간을 보내시었다.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게 될 주석단에 오르시어 수령님께서 사용하실 책상과 의자를 돌아보시고 미흡한 점을 바로잡아주시었으며 통로에 있는 계단의 높이를 가늠해보시고는 수령님께서 오르내리시기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을 낮출데 대한 대책도 세우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최대의 정성을 다하여 모실데 대한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고나서 주석단정면 란간쪽으로 걸어나가시었다.

수행하던 행사준비성원들은 그이께서 광장을 부감하시려는줄로만 알고 그자리에 서있었다.

그런데 주석단정면 한끝까지 다 나가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보호대로 만든 쇠란간을 두손으로 짚어보시더니 일군들을 손짓하여 부르시는 것이었다.

일군들이 급히 가까이 다가가자 그이께서는 래일 수령님께서 시위가 끝난 다음 군중의 환호에 답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란간을 잡으실 때 찬감이 나지 않고 포근한 감이 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 순간 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가시는 곳을 언제나 먼저 돌아보시며 백가지천가지 경우를 다 예견하시고 만전을 기하시는 그이를 한없는 경모의 눈길로 우러렸다. 그리고 자기들의 사업에 빈틈이 있음을 심각히 뉘우쳤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는 일군들로 하여금 자기 사업을 깊이 돌이켜보게 하는 이런 이야기는 멀리 이국땅에도 깃들여있다.

1965년 봄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대의 어느 한 섬나라를 국가방문하셨을 때의 일이다.

그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도 수행하셨는데 그이께서는 그 나라에 도착하시자 머나먼 려정을 오신 피곤도 잊으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실 곳부터 미리 돌아보셨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친히 숙소배치안도 검토하시고 여러가지 미흡한 점도 바로잡아주시면서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침실위치도 친히 정해주시었으며 방안은 어떻게 꾸리고 식사는 어떻게 올려야 한다는 것까지도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그러시고도 마음놓이지 않으시어 어버이수령님결을 잠시도 떠나지 않으셨으며 수령님께서 그 나라의 지방도시로 가실 때에는 랑풍장치도 없는 차를 타고가시면서 줄곧 수령님의 안녕을 보살펴드리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나라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오시던 도중 어느 한 나라의 초대소에서 하루밤을 묵으실 때였다.

그 나라에 주재하고있는 우리 나라 령사관의 한 일군은 그날 밤 늦도록 령사관에서 일을 보다가 새벽 3시가 가까와올무렵에 초대소로 나가보았다.

야자수 우거진 호수가에 자리잡고있는 초대소는 어둠속에 잠겨있고 여기저기에 걸린 외등만이 희미하게 정원을 밝히고있었다.

그런데 조용히 현관앞으로 다가가던 그 일군은 그만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누구인가 정원의 나무밑을 거닐고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어둠속에 눈여겨보던 그는 다음순간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주무시는 방의 창문을 천천히 거니시는 분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었다.

형언할 수 없는 충격으로 하여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그 일군은 그이께 다가서며 절절히 말씀드렸다.

일군들을 곁에 두고 이렇게 밤을 밝히시면 어찌 시느냐고, 이제 날이 밝으면 또 먼길을 가시겠는데 잠시라도 눈을 붙여야 하시지 않겠느냐고...

그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얼굴에 미소를 담으시고 이제는 습관이 되어 쉼치 않다고 하시며 수령님을 모시고 새날을 맞는 때처럼 새힘이 솟는 때가 없다고 오히려 그 일군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었다.

천만마디의 말보다도 더 깊은 뜻이 담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일군은 그이의 모습을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러보았다.

이렇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제든 오늘도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서도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친위전사로 생활하고계시며 그 빛나는 모범으로 우리 일군들을 가르쳐주고계신다.

용해공의 목소리

윤희혁

울렁이는 마음 다잡고

마이크앞에 섰건만

내 선뜻 말할수 없구나

목메여 목이 메여,

듣고싶다고

쇠물을 끓이는 용해공

우리 목소리를 듣고싶다고

록음해오라 하신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천리 복변땅

철의 기지 나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쇠물톤수를 늘여간

우리들의 소박한 이야기 즐겨들으시며

환한 미소 지으시더니

강철의 톤수를 두고 마음 끓이는

용해공 우리들의 목소리에서

온 나라에 폭풍쳐갈

대진군의 숨결을 가늠하시려는가

그 대오의 앞장에 선

우리 목소리에서

세인을 놀래울

조선의 의지를 안아보시려는가

알수 없었구나

청고운 가수의 목소리도 아닌

쇠내에 절고

열풍소리 숨배인 우리 목소리

그이의 기쁨이 될줄은

그이의 힘이 될줄은

아, 용해공의 목소리

언제나 당의 숨결로 울리는

우리의 목소리

그이의 담력의 나래되어

끝없이 끝없이 울려간다

사회주의대건설장

들끓는 일터와 일터마다에

비약의 나래를 펼치며

그이를 받드는 강철의 울림으로!

그이를 따르는 충성의 맹세로!

불멸의 절정 외2편

김석천

층층 쌓이고 쌓인것은
바위가 아닌
위업
아아한 석벽우에 새겨진것은
글자가 아닌
빛발

정기는 만리에 뻗치고
위용은 하늘에 맞닿았도다
거룩한 이마우에 구름발을 두르고
천하를 굽어보는
오, 정일봉!

태양의 빛발처럼
눈부신 그 존함
우리만이 안은 궁지

우리만이 지닌 영광
만방에 선언처럼 내걸자고
백두가 받들어올린 이 봉우리

대륙이 대양으로 변한다 한들
강철의 이 산악이 흔들릴거나
폭풍치는 혁명의 세월에
력사를 곧바른 궤도우에 올려세우고
시대를 향도하는 위대한 모습
령장의 기상이 여기 있도다

무엇으로 빛나는가 조선의 존엄
무엇으로 빛나는가 조선의 영예
높뛰여라 심장아
우리예겐 앞길을 밝히는 등대가 있다
인류예겐 갈림길이 있을수 없어라!

소백수와의 속삭임

새벽의 교요를 담담히 흔들며
기슭의 수풀들에 예쁜 이슬 없어주며
너 무슨 노래를 부르며 가니
물결아 방울방울 뜻이 깊은 소백수 물결아

날 자꾸 찾는듯 누굴 자꾸 부르는듯
정다운 음향처럼 울리는 물소리
백두밀영 답사길에 나를 따라서면서
이 가슴에 깊은 생각 쌓아준 소백수야

물안개자락을 가만히 들추면
내가 품은 소중한 사연들이 있겠지
2월의 설림에 고요히 깃들던
그날의 자장가를 너는 잊지 않았겠지

맑디맑은 네 물결에 뿌리를 잠그고
기슭을 덮은 푸르른 밀림
백두광명성 찬가를 나무마다 새기던
투사들의 눈빛처럼 반짝이는 네 물결...

세월이 갔다고 추억도 지워지랴
네 흐름에 간직된 잊지 못할 날들이
네 흐름에 비낀 잊지 못할 모습들이
향도성 받들어온 이 나라 력사로 길이 남아있으니

너는 가지 않았구나, 귀중한 밀영을 지켜
너는 가지 았는구나, 혁명의 프락으로 발걸음
어주며
찾아오는 가슴마다 뉘이 되어 흘러들어
아름다운 삶의 바다 펼치는 소백수야!

꽃바다위에

씨를 뿌린 이는 누구
가꾼이는 또 누구...
꽃이 많아라
백두의 산야엔 꽃이 많아라

차디찬 눈속에서 봄을 그리며
하나 둘...가만히 움을 틔우더니
끝끝내는 녹지 않은 백설우에다
망울을 터쳤구나 만병초 철쭉꽃...

진한 화장 없이도 고운 소녀처럼
밀림속에 스스러이 고개속인 모습들
이 땅에 필 자리는 어디나 많아도
자리를 골라 백두를 수놓은 고마운 꽃들

아름아름 가슴에 품어안으면
그날의 투사들 삶의 숨결 풍기는듯
조국의 광복위해 불타던 마음을
한송이 꽃에 쏟아붓던 그 열정...

이름만 불러도 절로 목메이는
렬사들의 모습이 송이마다 어렸구나
발밑의 돌 하나도 무심치 않은
항일의 전장에서 꽃을 보니 생각은 더 깊어

소중해라! 그네들의 피값으로 얻어진 자유
귀중해라! 시름없이 내 사는 이 땅 이 락원
미래에 바쳐진 그 삶을 못잊어
백두가 피워올린 아, 꽃바다!

여기에 내가 산다

리수원

인차의 창유리에 뺨을 대인채
눈길 못떼누나 우릴 찾아오는 배우들
층층 수십층 채굴계단 가리키며
거기 잇달려 달리는 대형차들 긴 행렬
놀라운듯 저마다 황홀히 바라보며,

들썩이누나, 견학오는 붉은 넥타이들
장쾌한 락광정의 쇠돌폭포소리
산허리를 휘휘 감은 콘베아의 흐름소리에
벽찬 가슴 누를길 없어서인가
시를 읊는듯 감탄하며 청동구누나

기묘한 바위며 수려한 폭포며
산천경개 아름다운 명승지라만
처음 본들 저러히 놀라워하라
감격하며 격동에 가슴을 들먹이라

이 산정에 오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만족하여 굽어보신
나라의 귀중한 보배산

오시여 안겨주신 뜨거운 믿음
가시여도 베푸시는 끝없는 은정에
항시 장엄한 숨결 울리는 칠산봉

그이의 뜻 받들어
조국의 번영을 받들어 빛내일
그 한뜻으로 들끓는 장쾌한 모습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감탄하여 들썩일 때면
더더욱 긍지로 부푸는 가슴이여

여기에 내가 산다
이 나라 명산들의 아름다움도
온 세상에 밀뿌리는 내 조국의 강대함도
그 뿌리를 둔 칠산봉!

산천경개 아름다운 명산이라
억만재부를 파내며 장엄히 끓는 모습
황홀하여 감탄하여 사람들마다 격동하는
명산중에도 귀중한 조국의 명산
아, 여기에 내가 산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우리 문학예술의 넓이며 생명선이다

-고전적로작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발표 10돐에 즈음하여-

최길상

위대한 현실은 위대한 사상과 정도의 산물이다.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탁월한 정도에 의하여 혁명적문학예술의 가장 높은 경지를 개척해나가고있다. 주체적문학예술의 면모를 확고히 갖추고 70년대에 일대전성기를 맞이한 우리 문학예술은 80년대에 이르러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하여 그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지난 80년대에 도달한 우리 문학예술의 빛나는 성과를 돌이켜보며 90년대의 새로운 높이를 전망하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문학창작사 전체 성원들에게 보내주신 회답서한에 접하여 끝없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있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발표 10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사상과 예술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이 신심도 드높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조선로동당 제 6차대회 결정관철에로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던 1981년 3월 31일 전국문화예술인열성자대회를 마련하여주시고 서한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를 보내주시였다.

고전적로작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당의 문예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문학예술분야에서 획기적전환이 일어나고 우리의 문학예술이 주체적문학예술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된 빛나는 성과를 총화하고 우리 문학예술의 강화발전을 위한 제반 리론실천적문제를 밝혀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에서 문학예술의 주체적면모를 더욱 강화하고 그 위력을 백방으로 높이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과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수행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실로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80년대 우리 문학예술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게 한 불멸의 기치이며 리표였으며 우리 문학예술이 영원히 힘있게 틀어쥐고 나아가야 할 강령적문헌이다.

고전적로작의 불패의 진리성과 위대한 생활력은 지난 10년간 우리 문학예술의 주체성이 전례없이 더욱 강화되고 그 위력이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우리 문학예술의 승승장구하는 앞날이 확고히 담보되고있는데서 힘있게 확증되고있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우리 문학예술의 넓이며 생명선이다. 우리 문학예술은 주체적문예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문학예술을 건설해나감으로써 주체혁명위업수행의 힘있는 무기로서 사람들에게 참된 삶의 가치와 보람에 대하여 가르쳐주며 주체의 인생관을 세워주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우리 문학예술에 넓을 주고 생명을 담보하는 영양소를 주며 활력을 주고있다. 주체적문예사상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총적방향과 문학예술창작의 근본원칙과 구체적인 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우리 문학예술이 나아갈 곧바른 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 당은 주체적문예사상에 기초하여 문학예술건설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에 맞게 독창적으로 풀어왔다. 우리 문학예술은 주체적문예사상을 모든 문학예술사업에서 확고한 지침으로 삼음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을 끊임없이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었으며 그 주체적면모를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을 넓으로 생명선으로 하여 우리 문학예술의 주체적면모가 더욱 강화되고 그 위력이 과시된것은 무엇보다도 지난 80년대에 혁명적문예전통을 더욱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인것이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혁명적문예전통은 우리 문학예술의 력사적뿌리이며 문학예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다.

우리 당의 혁명적문예전통을 계승하는 문제는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문학예술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문학예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적문예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혈분만국희》**, **《팔에게서 온 편지》**, **《3인 1당》**, **《경축대회》** 등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연극으로 훌륭히 각색되어 무대에 오른것을 비롯하여 고전적명작들에 대한 발굴고증하는 사업과 각색하는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었다.

우리 문학예술의 주체적면모는 당과 수령의 위대성형상이 새로운 경지에서 성과적으로 이룩된데서 더욱 눈부시게 빛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

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며 위대한 사상가, 정치가, 전략가로서의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를 감명깊게 형상할데 대한 미학실천적과제를 제시하시였다. 특히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덕성일면에만 치우치지 말고 당과 수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잘 그릴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주체적문예사상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우리 문학예술은 지난 10년간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실로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다. 오늘 우리 문학예술은 당과 수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면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형상적으로 높이 구가하며 그 위대성을 미학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이리하여 위대한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대서사시적화폭에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의 항일혁명투쟁시기권의 장편소설들을 성과적으로 창작완성한데 이어 해방후편인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과 《50년여름》을 훌륭히 창작하였으며 다부작 혁명영화 《조선의 별》과 《민족의 태양》,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 등 수많은 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여 사람들의 주체의 혁명관 확립에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면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폭넓게 형상한것은 지난 10년간 우리 문학예술이 이룩한 특기할 성과이다.

우리 문학예술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자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게 되었다.

장편소설 《아침해》와 《예지》, 장편서사시 《불타는 해》를 비롯하여 수많은 문학예술작품들이 성과적으로 창작되었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특히 시가문학에서 특출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시가문학은 지난 10년간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서의 자기의 혁명적 본분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장시 《인민은 말한다》와 《우리의 긍지》, 가요 《김정일화》, 《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야》, 《백두밀영의 고향집》, 《그 품 떠나 못살아》 등 수많은 시가작품들이 명작으로 창작되었다.

이리하여 우리 문학예술은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으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문학예술은 어디에 근본을 두고 자기의 창작활동을 벌려나가야 하는가를 산 모범으로 보여주었다. 참으로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새로운 사상예술적경지에서 더욱 전면적으로 폭넓게 형상한것은 우리 문학예술의 주체적면모를 더욱 빛내이며 그 위용을 떨칠수 있게 한 근본고리이다. 이것은 또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서 그 명맥을 꿰뚫어 이어주는 생명의 핵과 힘의 원천이 어디

에 있는가를 생동한 현실로 보여준것으로서 가장 특출한 성과이다.

우리 문학예술의 주체적인 면모는 현실주제의 작품을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을 사회주의 완전승리에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우리 문학예술은 언제나 현실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현실생활을 생동하게 반영하는것을 시종 일관 견지하여왔다.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현실을 어떠한 사상적관점에서 보며 어떤 인간을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우고 어떤 사회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주는가 하는것이다. 이 문제들에 대한 옳은 해명과 방법론이 없이는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할수 없다.

우리 당은 우선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문제를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해결하여야 할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시대와 생활의 기본지향을 옳게 반영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시대정신은 시대와 생활의 기본지향을 반영한다. 우리 인민은 80년대에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하였다. 특히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고스란히 바치며 말없이 충성다하는 숨은 영웅들의 위훈이 온 사회를 가득채운것은 지난 10년간 우리 현실의 가장 빛나는 모습이다.

우리 문학예술은 모든 작품에 시대정신을 옳게 구현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드높은 충성의 열정과 혁명적기상,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을 힘있게 반영함으로써 사람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적극 고무하고있다.

사회주의현실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그림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무엇보다도 주체형의 인간의 참된 본보기로 될 긍정적주인공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하였다. 문학예술의 매력은 인간형상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결국 매혹적인 긍정적주인공의 현상을 창조하는것은 문학예술의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고있다. 따라서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시대가 낳은 새 인간들과 영웅들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전형화하는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창작실천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것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생활이 비할바없이 복잡하고 그들의 내면세계 역시 끝없이 고상하고 풍부하기때문이다. 우리 시대 인간들을 형상하는이 어렵고 중요한 문제는 주체적문예사상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문학예술에서 내세워야 할 우리 시대의 인간전형은 주체형의 인간이라고 하시면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삼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그들의 성격적특징을 옳바로 형상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리고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속에 들어가 당과 혁명이 부르는곳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인간들, 남이 보건말건 누가 알아주건말건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며 싸우는 사람들을 그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예술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와 우리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새 인간들인 3대혁명의 전위들, 숨은 영웅들의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형상들이 빛나게 창조되었다.

우리 시대의 긍정적주인공의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지난 10년간 우리 문학예술은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문학예술은 주체형의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생명으로 되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의 문제로 제기하고 해명하였으며 충성과 효성의 발현으로 심화하여 형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신념과 의리로 받들어모시며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긍정적주인공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한것은 당의 령도따라 지난 10년간 우리 문학예술이 이룩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의 하나이다. 장편소설들인 《빈터우에서》의 주인공 주용녀, 《철의 신념》의 주인공 로장섭, 《뜨거운 심장》의 주인공 신철민, 예술영화들인 《열네번째 겨울》의 유설경, 《생의 흔적》의 서진주 등 수많은 문학예술작품의 주인공들은 주체적문학예술의 화원을 풍만히 꽃피우고있다.

오늘 우리 문학예술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혁명적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사회주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신심과 락관에 넘쳐 투쟁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인간전형을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더 높은 단계에 발전하고있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령도를 따라 시대정신을 옹계 구현하여 긍정적주인공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한것은 오늘 격변하는 세계의 현실과 복잡한 정체를 놓고볼 때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체적문예사상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우리 문학예술이 창조한 주인공들은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연히 서서 자기의 숭고함과 아름다움을 더욱 자랑하고있으며 사람들의 참다운 본보기로 되고있다. 인류문학예술이 우리가 창조한 주인공들을 왕좌에 앉히고 인간의 아름다움의 참된 상징으로 영원히 기록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우리의 문학예술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다채롭게 꽃피어나고있는것은 또한 주체적문학예술의 자랑스

러운 면모이다.

오늘 우리 문학예술은 모든 예술의 사상에술적기초인 문학을 비롯하여 영화, 연극, 음악, 미술, 무용, 교예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가 자기의 형태적특성에 맞게 혁신적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에서도 특히 문학의 발전은 류례없이 혁신적이며 놀라운것이다. 오늘 우리의 소설부문에서는 사람들의 주체의 혁명관확립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장편소설들을 수많은 창작하였으며 유구한 민족문화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장중편소설의 대풍작을 마련하였다. 당의 가수로서의 우리 시가문학은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비롯한 시대정신이 내려치는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여 우리 당을 강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최근년간 우리 문학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우리 작가들이 주체적으로 글을 잘 쓰고 있다고 치하하시었다. 이것은 주체적문예사상이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 힘있게 전진하여온 우리 문학이 누린 최대의 영광이며 특전이다. 이 영광과 특전을 지니고 지금 우리 문학은 더욱 승승장구하며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가 발표된 때로부터 10년, 이것은 정신문화의 창조력사를 놓고볼 때 긴 기간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문학예술이 이룩한 성과는 참으로 세기를 두고도 이룩할수 없었던 빛나는 결실을 가져왔다.

우리 문학예술이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발전할수 있는것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적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는 우리의 문학예술로 하여금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사회주의문학의 기치를 철저히 옹호고수할수 있게 하고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서의 우리 문학의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백방으로 높일수 있게 한 원동력이다. 당의 령도는 작가, 예술인들에게 창작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도록 하며 끝없는 창작적환상의 나래를 활짝 펼수 있게 한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에서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정치적신임은 주체적문학예술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근본요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90년 12월 27일 조선문학창작사 전체성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회답서한에서 우리 작가들에 대하여 당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라는 가장 높은 평가를 주시었다. 일

찌기 작가, 예술인들을 당사상전선의 초병으로 내세워주시고 이번에 또다시 최대의 신임을 안겨주신 것은 장구한 인류문학예술발전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오직 정도자와 작가가 혼연일체가 되어 혈연적뉴대로 이어져있는 로동당시대에서만 이루어질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답고 공고한 인간의리의 최고정화이다.

이 위대한 사랑과 믿음, 기대는 우리 작가들의 끝없는 충성과 효성을 낳게 하였고 주체적문학예술의 빛나는 현실과 찬란한 미래를 담보할수 있게 하였다.

당의 정도따라 모든 작가, 예술인들이 주체적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가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들끓는 현실속에서 로동자, 농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혁명적으로 생활하며 창작하는것이 오늘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참모습이며 우리 식의 창작원리이다.

당의 정도를 따라 나아갈 때 주체적문학예술의 찬란한 미래가 영원히 담보되며 창작가로서의 값높은 삶을 누릴수 있다는것은 우리 작가들이 간고한 혁명의 시련을 겪어오면서 생활로 체득한 확고한

신념이며 드팀없는 신조이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이 신념과 신조로 깊이 간직하고 당의 정도에 언제나 충실할것이며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서의 자기의 혁명적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다.

오늘 우리 문학예술앞에는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게 될 희망의 년대, 투쟁의 년대인 90년대의 시대정신을 투철히 반영한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복무하여야 할 숭고한 시대적과업이 나서고있다.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뼈와 살로 자기의 온 녀트로 만들고 주체적문예사상이 가리키는대로 생활하며 창작하여야 한다. 그 어디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주체적문예사상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문학의 기치를 철저히 옹호고수해나갈 때 우리 문학예술의 미래는 양양한것이다.

위대한 당의 정도밑에 주체적문예사상을 녀트로 생명선으로 하여 전진하는 우리 문학예술은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보람찬 길에서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할것이다.

겨울이 좋아

리영일

눈보라 눈보라
한갓 차창가에 휘파람을 더해주는
눈보라 눈보라
내 몰아가는 트랙포르 발동소리에
꽃잎처럼 흩날리는 눈보라

몰아치는 강추위
불타는 열정으로 이기는
이런 맛에 청춘이 피끓는것
이런 맛에 젊음의 힘이 솟는것

흙갈이로 들끓는 전야의 열풍으로
휘몰아오는 눈보라를 몰아내며
풍년가을을 마중가는 이해 겨울

겨울도 류다른 이해 겨울
땅도 미처 열새없이
눈도 미처 쌓일새없이
새옷으로 입히는 이해 겨울

나는 좋다네 이런 겨울이
나무리라 내 고향 드넓은 대지에
해마다 겨울은 오지만
흙갈이로 들끓는 이해 겨울은
매맞춤한 청춘의 열정 불려준다네

누가 말했느냐
겨울은 총화의 계절이라고
그래서 휴식의 계절이라고
아니라네 겨울은 시작의 계절
새로운 풍년을 앞당기는 계절

눈보라 몰아친다고
따뜻한 안식처에 청춘의 나래 접으라
풍년가을과 제일 가까운 계절
강추위를 몰아내며 청춘의 열정 새겨가는
이런 겨울이 나는 좋아

평양찬가

변홍영

유구한 역사가 굽이쳐간
을밀대의 이끼덮인 추녀밑에서
내 너의 모습을 바라본다 평양이여
사위를 둘러보면 멀리 가까이
내앞에 열리는 거대한 도시

내 날마다 저 거리들을 거닐며
건설의 불야성속에 땀도 뿌리며
전변의 나날을 함께 했던만
놀랍다, 한눈에 다 볼수 없는 그 웅자
내 뜨거운 시선이 가닿는 끝은 어디냐

창공을 꿰지른 대기념비들
하많은 거리 눈부신 억만 창문들...
그 웅장화려한 위용때문만이 아니다
내 이처럼 궁지높이 네 모습 더듬는것은

이 세상엔 너보다
더 오랜 역사의 년륜을 휘감은 도시도 있으리라
더 큰 집들이 이마를 맞비비는 거리도 있으리라
허나 평양이여 어찌하여
그 도시 그 거리에서 온 사절들도
네 모습앞에서 그토록 환희에 젖는것이나

아, 이 나라의 유구반만년에
만경대 추녀낮은 초가집에서
위대한 태양을 처음 받아들여올린 도시여
가장 간고한 역사의 시련을
수령님 따라 넘고헤치며
불타는 룡남산의 노을을 마중한 도시여

그 영광의 날들을
너의 가장 빛나는 년륜으로 지니고
세기우에 나래쳐올랐기에
저 성돌우에 서린
너의 천오백년 긴긴 세월이 보지 못한
오늘같은 찬란한 번영의 새 역사를 펼친것 아니
더냐

내 마음은 지금
터질듯한 자부에 넘쳐
너의 위대한 새 역사를 새겨안은
개선문의 화강석기둥을 어루만진다
너의 영광이 빛발치는 시대의 기념비들,
타오르는 주체사상탑의 횃불을 숭엄히 우러른다

그 어디로 눈길 돌려도
수령님의 불멸의 위엄이 찬란하고
우리 당의 거룩한 손길이 빛나는
평양
락원의 도시여

너는 누리에 가득한 그 빛발로
인민이 영원히 안겨살
새 세계의 표상을 선명히 드러냈노니
여기엔 한점 그늘도 없으라
여기에 넘치는 생활의 향기는 청신하여라
여기서 사람들은 활기롭고
자주시대의 음악이 장엄히 울리여라

하여 너의 끝없는 하늘은
인류의 머리우에 푸르르고
너의 대동강 맑은 물은
수억만 가슴속에 굽이치고
너의 자주와 친선의 길은
지구의 한끝까지 열렸나니

해빛과 삶과 웃음으로 차넘치는
너의 거리 그 어느 창문을 두고도
내 가장 아름다운 가락을 고르리라
을밀대 추녀밑에 피어난
향기질은 한떨기 꽃을 두고도
한생토록 새로운 의미를 노래에 담으리라
오, 평양, 번영하는 혁명의 수도여
너에게 바치는 우렁찬 찬가는
무한한 우주에 가득차리라!

기 원

구경서

내가 명동협동농장 관리위원회를 나선것은 정오 무렵이었다. 구름한점 없이 맑게 개인 푸른 하늘에서는 눈부신 태양이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하건만 솔솔 불어오는 바람결은 어느때없이 쌀쌀하였다.

오늘 아침 평양-온천행 열차를 타고 올 때만 하여도 명동협동농장이 온천역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있을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였다. 더구나 내가 취재하려는 사람이 바다가 한끝에 나가있을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옷깃을 여며올리고 바다가로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었다. 바다가마음이여선지 조금기배인 늑늑한 해풍에 느닷없이 량볼이 터갈라지듯 알알했다. 목깃안으로 숨새어드는 찬기운에 등골까지 오싹했다.

마침내 관리위원회의 현관문이 벌럭 열리며 회계원아바이가 곤색솜저고리에 검은 장화를 받쳐신고 황급히 계단을 내려서는것이 보였다. 자기도 간석지에 본 일이 있다면서 나를 따라서는것이였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나는 낫설은 주위산천을 둘러돌레 살펴보았다.

푸른 하늘과 검푸른 갈매빛땅이 일매지게 맞붙은 연빛도는 은은한 수평선이 펼쳐졌고 그우에서는 아지랑이가 아물아물 피어올랐다.

해빛 파사로운 양지쪽에는 군데군데 봄싹들이 파릇파릇 돌아나고 아직 갈아엎지 않은 논밭 두렁들과 음달진 최쪽밀에는 해별에 질려 몸을 웅크린 해묵은 눈더미들이 봄빛을 받아 유난히 반짝거렸다.

해토무렵이라 어디나 땅이 질척하였다. 그래서 얼마간 걷다보니 구두에 진흙이 한덩지 붙어 신은 마치 거루배처럼 큼직해졌다. 하는수 없이 걷다가는 한참씩 흙을 털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들이 제방쪽에 당도한것은 중낮이 좀 지나서였다.

벌써 이틀째 붙어온다는 남서풍에 꾸덕꾸덕 살얼음이 졌던 감탕밭이 풀리면서 간석지는 마치 홍수뒤끝처럼 물이 벌창하고 땅이 질편하였다. 그리고 조금기를 빼느라고 짜놓은 내부망으로는 눈석이의 세찬 물이 팔팔거리며 봄시위때처럼 무섭게 흘러내리고 개가에는 시퍼런 얼음덩이들이 둥둥 떠내

러가고있었다.

간석지 한끝에서는 굴착기들이 산처럼 쌓인 흙더미를 폭 퍼올려 췌기흙을 내던지듯 바다물속에 쏟곤하였다. 그때마다 은구슬같은 포말들이 튀어오르며 요란한 물기둥이 치솟아올랐다. 장식으로 제방쪽을 쌓는 공사판에서는 불도젤이 기관총내쏘듯 귀따가운 동음을 내며 흙을 밀어올리고있었다. 그결에서는 막돌을 가득 실은 자동차가 골바닥에 빠져 무진 용을 쓰며 꼼지럭거리고있었다.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달라붙었다. 나도 그들속에 끼여 자동차를 밀기 시작하였다. 자동차가 앵앵 단김을 뿜으며 헛바퀴를 돌 때마다 눈석이물이 왈칵 솟아오르곤하였다. 그바람에 내가 입은 다우다직옷은 툭툭히 물세레를 받고야말았다. 앞바퀴에 막돌을 던져넣는다, 통나무를 깔아놓는다 법석 뚫은 다음에 자동차는 겨우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다.

나는 숨을 돌릴셈으로 주위를 쭉 둘러보았다.

멀지 않은곳에 시꺼먼 연통들이 포신처럼 우뚝 뻗여져나온, 열차방통같은 양철지붕의 집들이 두세 채 언뜻 눈에 띄웠다. 주위에 나무울바자를 둘러쳤는데 군데군데에는 말뚝만 보이는데도 있었다. 나는 회계원아바이와 함께 그곳으로 스택스적 걸어갔다. 넘어진 울바자 한끝에 걸터앉았다. 평별이 내리쪼였다.

숨웃을 입고온것이 오히려 후회될정도였다. 바다바람도 이제는 그렇게 쌀쌀하지 않았다. 해감내가 비릿이 풍겨왔다.

나는 감탕내가 물씬거리는 바다쪽을 내다보았다. 보이는건 개펄과 하늘, 들리는건 바람소리와 파도소리...

꼭 불이라도 붙는듯 시뻘건 나무재기며 자오라기들이 듅성듅성 섬처럼 드러나있는 시누런 감탕판이 일매지게 끝없이 펼쳐진 간석지 한가운데서는 동전만한 검은 반점 하나가 우리를 향하여 부단히 움직여왔다.

나는 해빛에 번쩍거리는 바다물 반사광에 눈뿌리가 시려 량미간을 잔조롭히 찌프리며 간석지를 훑어지게 바라보았다. 분명 사람이였다. 처음에는 검은 반점이 검은 모자로 보이더니 그것이 다음에는

누런 솜옷으로 변했다.

마침내 집모퉁이로 해서 그사람이 걸어나오는것이 보였다. 흰칠한 키에 등이 구부정한데 무릎넘어 내려오는 누비솜옷을 입고있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회계원아바이는 엉겨주춤하고 수인사부터 하였다.

《그새 무고하셨수? 헌데 어데를 갔다오시우. 그걸 모르고 난 온 작업장을 찾아다녔수다.》

《찾다니?》 하고 누비솜옷을 입은 사람이 반문했다. 신문에 소개된 사진보다 좀 늙어보였다.

《작가선생이 오셨수다...》

나는 주의깊은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누비솜옷의 이마에는 노끈같은 굵은 주름살이 서너개 쪽 건너갔고 총이 센 범꼬리같은 눈섭은 류달리 시꺼멓고 꾸빗한데 갈빛눈동자의 동그란고리는 게풀린듯 희끄무레하였다.

이윽고 로인은 나에게 가볍게 머리를 숙여 알은체를 하고나자 넘어진 울바자널판우에 덜씩 주저앉았다.

《아버님, 일전에 신문을 보니 정말 나라를 위해 소문없이 많은 일을 하셨더군요.》

《별로 한일이 없수다.》

《제가 취재를 좀 하자고 왔습니다.》

《내게는 별로 들려줄 말이 없수다. 로동신문에 소개된게 전부웨다...》

로인은 피촉속을 무시력거리더니 큼직한 담배쌈지를 꺼냈다. 세모꼴모양의 색동비단천으로 지은것인데 실울이 보이지 않을만큼 보풀이 일었다.

《그래도 뭘 좀 들려줄게 있겠지요!?...》 하고 내가 말했다.

《허참... 야단이군. 무슨 말을 들려줄게 있다가 그러시우. ...으흠.》

나도 안주머니에서 가치담배를 하나 꺼내들었다.

그는 복두갈구리같은 갈퀴손으로 마라초를 한줌 쥐여 종이에 쏟아놓으며 누구에게라없이 말했다.

《뭉니뭉니해두 이게 제일이구만... 가치담배는 피워도 피운것 같지 않다니까 허허.》

《아무 말씀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거참, 뭘 이야기한다?! 그럼 차라리 내 한친구에 대한 이야기나 좀 들려드리리다. ...불이 잘 붙지 않수?! 이거나 피워보시우.》 하고 로인은 나에게 큼직한 담배말이를 말아주었다.

로인은 오랜 옛적일을 더듬어보듯 눈을 가슴츠레 뜨고 갈청색파도물이 넘실거리는 수평선을 바라보

면서 마라초연기를 가슴속깊이 빨아들였다.

《나는 원래 황해도 강령태생이웨다. 세상에 나서부터 아버지도 어머니도 못보고 자랐수다. 다만 손우누이가 하나 있었을뿐이지요. 그때 우리 강령땅에는 권세가 프르르한 전지주라고 있었는데 나는 그 집 머슴으로 있었다우... 그럭저럭 거기서 열여섯해를 살았는데 한번은 같이 머슴살이하던 김덕칠이라는 사람이 소를 몰고 바다가에 나갔었다우. 지금 여기처럼 간석지가 무연한데 거기에는 나무재기풀이 많았던말이웨다. 그래서 소들을 몰고 그곳에 갔었는데 헛참.》 하고 그는 어처구니가 없는지 술뚜껑같은 손바닥으로 흙이 발린 바지자락을 슬슬 문다졌다. 《오후쯤 잡히면서 잡자기 날씨가 흐려지더니 비꽃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소들은 벌써 바다가 멀리로 상당히 나가버렸을 때였수다. 시커먼 연기같은 구름들이 낮추 떠돌며 와지끈 번개가 일고 우뢰가 울더니 성난 바다가 길길이 날뛰면서 간석지로 막 쓸어들지 않겠수. 덕칠이는 아득한 생각이 들어 간석지로 정신없이 달려갔지요. 좌우간 어떻게 소들을 끌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글썽 송아지가 한마리 없어졌다질 않겠수. 코등에 동전만한 하얀 점이 있는 검정소였지요. 그래 소여물을 꿇이던 나는 덕칠이와 함께 온종일 소를 찾아다녔지만 종시 나타나야 어찌지요. 분명 파도에 휘말려간게 틀림없더란말이웨다. 겁이 더럭 나더구만요. 하는수 없이 우리는 그날 밤새껏 의논하다가 누이네 집을 찾아가기로 하고 달빛을 타서 지주집을 도망쳐나왔수다. 누이집을 찾아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온천땅 하동마을에 산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로 왔수다. 그래서 이곳에 눌러앉아 간석지개간이요, 신답풀이요 하고 그럭저럭 살아가게 되었다오.》

어느덧 사람들은 점심식사를 하러 들어갔는지 작업장이 조용하였다. 곁에서 조금전까지 수선을 떨던 회계장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따금 가락맞은 파도소리만 고요히 들려올뿐이었다.

《그시기 여기서는 일본놈들이 그 무슨 동양척식회사란걸 차려놓고 간석지를 개간한다, 신답풀이를 한다 하며 법석 들북아댔수다. 헌대 우리들 신세야 함바집신세를 면할수 없었지유. 그때의 함바집이란게 어떤덴지 아시우? 말도 마시우 꼭 시루속의 콩나물같았수다. 사람들이 한방에 우글우글했지요. 밤에는 발을 퍼지 못했수다. 하는수 없이 저녁에는 방 한복판에 새끼줄을 서너개 늘어놓지요. 그리구

잘 때에는 거기에다 발을 올려놓고 잔단말이웨다. 뽕안 담배내에 시큼등한 땀내, 킁킁한 발쿠린내를 맡고나면 머리가 다 어질어질해지지요. 그런데서 제기밥같은걸 하루 세끼 얻어먹고는 사시절을 한지에서 지냅니다. 어떤 때는 간석지 제방뚝을 막는가 하면 어떤 때는 내부망공사를 하고... 그런데 주로는 신답풀이공사가 많았습니다. 한장 젊은 나인지라 어찌나 배가 고프던지... 그것도 그럭저럭 견딜수는 있습니다. 제일 못견딜건 갈증입지요. 허허벌판에서야 물을 어디 가서 얻는단말이요. 돌아봐야 맨 짠물뿐인데 막 목에서 겨불내가 나고 해별까지 내려쬐일 때는 정말 죽겠습디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수다. 내가 내부망수로를 췌다가 너무 목말라하니까 덕칠이 그사람이 조금만 참으라고 하며 십장놈의 눈을 피해 갈대밭에 뛰어듬데다. 일본놈들은 간석지에 갈대를 심었는데 한해에 두번씩 베여 제 나라에 실어가군했지요. 뭐 그걸로 천을 짠다고들 합데다. 그런데 일이 안될라니까 글썽 덕칠이가 뛰여든 바로 그 밭에서 다른 일본십장놈이 뒤를 보고있지 않았겠수. 그래서 덕칠이가 놈의 채찍맛을 단단히 봤지요. 잔등우로 구렁이같은 시뻘건 자육이 무섭게 부풀어올랐다우.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우리는 엉엉 울면서도 덕칠이가 가져온 갈대를 씹었수다. 여름한철에는 푸른 갈대를 툭 꺾어 한참 질근질근 씹노라면 찹찹하면서 들끓는 물이 입안에 스며뻘다오. 그럼 좀 목을 추기는것 같지요. 우리는 돌이 꼭 불안고 한참 올라가 제방뚝에 나갔수다. 그때 덕칠이는 한동안 말없이 수평선을 지켜보다가 울먹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지는 지금도 고향에서 이 아들이 돈을 흠뻑 벌여오기를 기다리고계실테지. 제길헐, 저 넓은 간석지가 다 내 땅이라면 맘껏 논밭이나 풀어보련만...> 그리구는 가슴이 꺼질듯 깊은 한숨만 내쉽데다. 그 한숨소리가 어찌나 구슬프던지 나는 그후 자주 그 한숨소리에 대하여 생각해봤다우... 음, 그건 그렇구 여하튼 퇴약벌에 진땀을 흘리며 일하다가 실참이면 자주 바다가 제방뚝에 나간다오. 그러면 시원한 바다바람이 한결 피곤을 덜어줍디다. 특히 저녁이면 홀로 제방뚝에 앉아 시간가는줄 모르고 해지는 바다를 바라보지요. 참말 장관이라오. 그 시절엔 어찌서 그렇게 마음이 구슬프고 왜 자주 울고만 싶어지던지...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해방을 맞았지요. 장군님의 은덕으로 우리한테도 땅이 차례졌다오. 그해 여름 덕칠이 그사람은 장가도 들었지요.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과년한 부엌데기 처녀한테 장가들었다오. 언제봐야 온순해서 말한마디 제대로 번질줄 모르는 암전한 처녀였수다. 나는 그때 누이와 함께 살았는데 우리 산림도 그럭저럭 늘어나 정말 사람값에 들만큼 생활이 넉넉해집데다. 어느해인지 그해에는 국가에 애국미를 바치고 쌀이 남아그걸 장마당에 팔았지요. 그래서 가을에는 검정소 한마리를 집에 매게 되었수다.》

로인은 가는 주름살들이 부채살처럼 퍼져간 눈귀를 간잔조름히 찌프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는 한창 젊은나이여선지 아니면 땅을 받고 제 집을 쓰고살게 되어서인지 어쨌든 암만 일해도 힘든줄을 모르고 자꾸 일만 하고싶었수다. 어느해 여름 나는 일찌감치 집에 들어와 뽕프물에 세수를 하고 구광돌에 앉았수다. 마침 시뻘건 둥근달이 검푸른 수림너머 두둥실 떠오르데다. 나는 대수 저녁을 먹고나서 집기둥에 꽃아놓았던 낫가락을 뽑아들었수다.

집안에서 무슨 색동저고리를 깎는것 같던 누이가 장지문으로 가웃이 머리를 내밀며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겠소. 그래서 나는 소꼴을 베여올터이라고 대답했수다. 삼작문을 나서니 웬일인지 다리가 자꾸 제 논머리로 가는게 아니겠소. 나는 내친 걸음이라 우리 집 논부터 보러 갔수다. 논머리에 앉으니 벌써 이슬이 내리는지 엉덩짝이 축축히 젖어웁디다. 먼 수림우에서는 둥실한 달이 은은한 빛을 뿌리며 떠오르는데 시퍼런 갈대같은 벼이삭들은 여름해풍에 와스스 설레이지... 풀숲에서는 쓰르라미들이 울지... 백양나무들이 늘어선 해안방풍림쪽에서는 밤피꼬리들이 청을 돋귀 간지럽게 노래를 부르지.

나는 꼭 꿈만같은 생각에 취한채 옹낭에서 썰레기담배봉지를 꺼내놓고 마라초를 한대 기분 좋게 피워물었수다. 훈훈한 바람이 두볼을 스치는데 휘영청 밝은 달은 온 세상에 은가루를 뿌려놓는듯 막눈이 부시고 령롱합디다. 나는 괜히 기분이 들며 코노래를 흥얼거리고있었수다. 현대 내 등뒤에서 때아니게 인기척소리가 나지 않겠수. 나는 고개를 돌렸수다. 아니 글썽 덕칠이가 논두렁길로 성큼성큼 걸어오지 않겠수. 그는 논머리에 이르자 혀아래소리로 혼자 중얼거립데다. <자네가 여기 나와있는걸 모르고...> 그리고는 곁에 와 앉는게 아니겠수. 덕칠이는 내가 논머리에 꺼내놓은 썰레기담배봉지를 힐끔 결눈질해보더니 피춤에서 무슨 비단천같은것을 꺼냅니다. <여보게, 이걸 받으라구. 해방이

되었는데 이젠 담배쌈지도 좋은걸 써야지 남들이 그 담배봉지를 보면 웃는다네…」 하고 나무리며 색동천으로 지은 담배쌈지를 내옆에 슬그머니 놓는게 아니겠수.

덕칠이는 검푸른 벼곡식들이 설레는 드넓은 논벌이며 가다가락 흘러내리는 달빛, 해안가에 무성히 자라나는 백양나무들을 어루쓸듯 바라보았수다.

내가 어떻게 나왔느냐고 물으니 고향벌이 그리워 나왔노라고 하면서 사람은 흙에서 생겨나 흙으로 돌아간다는데 자기는 죽어도 고향땅의 흙을 걸굴수 있다면 한이 없을것 같다고 하지 않겠수. 허허…」

로인은 뭉툭한 마라초를 뽕뽕 빨고나서 진한 연기를 굴뚝처럼 내뿜었다.

《…우리는 이렇게 재미나게 살았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수다. 하루는 면당위원장으로 부터 면사무실로 급히 나오라는 전갈이 오지 않았겠수. 나는 전선원호물자를 실으려고 달구지를 준비하다가 면당에 찾아갔지요 면당위원장실에 들어가니 벌써 여러 사람들이 와 있습데다. 농맹위원장을 하던 덕칠이, 너맹위원장 영실아주머니, 민청위원장 성철이… 한 열서너명이 모였는데 면당위원장은 긴장한 얼굴로 무겁게 말을 뱉데다. 뭐 인민군대가 전략적으로 일시적후퇴를 시작했다고 하더구만… 우리는 토의 끝에 덕칠이의 제의대로 마을의 식량창고 쌀가마니들을 안전한 범바위골쪽으로 옮기기로 했수다. 저녁 어슬녁 땅거미가 지자 우리는 다시 범바위골로 갔지요. 범바위골이란데는 여기서 한 20 리 상거해 있는곳인데 그때는 거기에 작은 나무터가 하나 있었다오. 그리고 술섬을 오가던 쪽배도 있었던데지요.

우리들은 초저녁부터 쌀가마니를 너벅배에 실어 술섬 동굴속에 날라다 쌓았수다. 배로 수십번 날랐을가… 다 나르고보니 삿갓봉의 동녘하늘이 푸름푸름 밝아오며 연분홍노을이 곱게 피어나지 않겠수.

나는 바다물에 대충 세수를 하고 집으로 허청허청 돌아왔수다. 현대 삼작문을 열기 바쁘게 〈꼼작말았!〉 하고 누군가 소리치며 내앞으로 성큼 나서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수. 아무리 여겨보아도 통 모를 젊은놈들이더군. 벼락같이 달려들어 나의 손목에 포승줄을 묶으며 이렇게 묻더라 말이웨다. 〈야 네가 리영규 옳지?〉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지요. 그랬더니 장승처럼 키가 꺾두룩한 녀석이 주먹으로 내 아래배를 어찌나 힘껏 내치르던지 숨이 딱 막히어 마당에 쓰러지고말았수다.

정신을 차리고보니 내가 끌려간곳은 인민학교였지요.

…밤중에 《치안대》놈들의 돼지 먹따는 소리같은 된육설들이 울리고 복도로 군화발자국소리들이 어지럽게 들려오더니 창고문이 벌컥 열리면서 웬 사람 하나가 떠밀려들어오는게 아니겠수. 다 찢진 람루한 옷에 온통 피칠갑을 하고있어 누가 누군지 영 알아볼수 없더구만요. 그는 문앞에 쓰러져 운신조차 못하더구만. 나는 무릎걸음으로 그 사람한테 가만히 다가갔지요. 곁에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글썽 떠꺼머리 덕칠이가 아니겠수.

어느덧 닭이 세번째 해치는 소리가 마을 멀리에서 들려옴니다. 그때까지 나와 덕칠이는 눈한번 보이지 않고 밤새 공론했수다. 속은 새까만데 방도가 있어야지… 현대 이때 누군가 부시력거리며 우리곁에 와 앉는게 아니겠수. 격자무늬양복을 입은 한 서른댓살쯤 나보이는놈인데 우리곁에 주질러앉더니 세모눈을 깜빡거리며 해식이 선웃음을 짓지 않겠수. 우리는 하던 말을 그만두었수다. 현대 그녀석은 간사한 웃음을 지으며 자기는 하동마을 어느 기관회계원인데 읍으로 가던 길에 우리들이 계선장에서 량곡을 나르는것을 봤다는거지요. 그러니 일찌감치 미국어른들한테 자수하는게 좋겠다고 수작질하지 않겠수… 그래서 나는 그한테 물어봤지요. 당신은 어떻게 되어 여기에 붙잡혀왔느냐고, 그랬더니 그놈은 얼굴이 시뻘개서 게거품을 물며 횡설수설하지 않겠수. 뭐 작년에 온천군에서 어떤자의 돈을 떼먹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치안대장〉 이였다는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붙잡혀왔다는겁니다. 우리는 그날 그놈을 처치해버렸수다. 하여튼 놈들은 어떻게 냄새맡았는지 다음날 아침 나와 덕칠이를 불러내더군요.

나는 어느 한 방에 끌려가서 별의별 고문을 다 당했수다. 물고문, 불고문, 곤장이 부러지도록 실컷 매도 맞았구요…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수다. 아침이 희붐이 밝아오기만 하면 창고문이 열리고 우리는 교실에 끌려가 똑같은 고문을 받았지요. 아마 그런 고문을 한 열흘은 실히 받았을거웨다.

하루저녁은 덕칠이가 나를 보고 자기곁에 와 누라고 손짓을 하지 않겠수. 나는 저녁해빛이 비치는 창고 띄창문을 멍청히 바라보다 말고 그의 곁에 가서 벌렁 누웠지요. 그랬더니 덕칠이가 내귀에 대고 이렇게 말하는게 아니겠수.

〈이보게 영규, 자네는 래일이면 저 사람들과 같

이 여기서 석방될걸세... 오늘 나는 고문을 받을 때 내가 쌀 감춰둔 장소를 안다고 했네. 허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석방시키기전에는 절대 그곳을 대주지 않겠다고 했네. 그랬더니 미국장교놈이 죄없는 사람들을 모두 석방시키라고 명령했다네. 그러니 마음을 든든히 먹고 이제부터 내 말을 명심해 듣게. 자네는 석방되거들랑 머뭇거리지 말고 먹을것이나 좀 가지고 인차 사탕봉으로 들어가야 하네.

거기서 유격대를 찾아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인민군대가 다시 나올 때까지 꼭 살아야 하네.》

그의 눈시울자락에는 눈물이 그렇그렇했지요.

나는 너무도 억이 막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저 정신나간놈처럼 멍히 떠창망 등나무의 참새들만 한동안 바라보았수다...》

로인의 눈에도 글리세린같은 눈물막이 그들먹이 피어올랐다.

《그후 사탕봉에 들어가 유격대에서 싸우다가 인민군대 재진격시기부터는 351 고지에서 마사원으로 일했지요. 주로 식량, 탄약들을 수송하고 환자들을 야전병원에 후송하는 일을 했수다. 그러다가 한번은 적 〈썩새기〉의 공습을 받아 부상을 입고 후방병원에 실려가게 됐지요.》

로인은 잔주름이 부채살처럼 퍼져간 눈을 찡뜨리고 갈매기 날아에는 외진 섬을 바라보았다. 애꿎은 담배를 빠느라고 울대뼈가 꿈틀거렸다.

《...53 년 초봄에는 감정제대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수다. 마을에 오니 집들은 온데간데 없고 논밭에는 군데군데 폭탄구덩이들만 보이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 리인민위원회를 찾아가니 전략적후퇴때 유격대에 들어갔던 리위원장은 아직 전선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디다. 하느수 없이 마을사람들로부터 그 시간의 일들을 대충 이야기들었지요.

놈들은 내가 도망친것을 알자 영철이와 누이를 집에 가둬놓고 휘발유를 뿌린다음 불을 질렀다질 않겠소. 집이 다 타고 불붙는 시빨건 서까래가 무너졌을 때까지 집안에서는 외삼촌을 찾는 영철이놈의 애절한 목소리와 〈영규야. 영규!〉 하고 구원을 청하는 누이의 울음소리가 그칠새없이 들려왔다고 하더구만요. 나는 피눈물을 흘렸수다. 이윽고 마음을 진정한 다음 덕칠이네 식구가 어데로 피신했는지 모르느냐고 물었지요. 생명의 은인의 가족들을 찾아 돌봐주는거야 응당한 도리이고 나의 본분이 아니겠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풍문에는 선천의 친정집에 갔다고 하지 않겠수... 나는 그어

떤 의무감보다 의리심이 시키는대로 선천행기차에 올랐지요. 가슴이 막 갈기갈기 찢기는것 같아 어떻게 주질러앉을수 있더라구요.

그때는 봄철이었는데 비가 오지 않아 먼지가 어찌나 풀썩거리던지... 선천으로 가는 신작로 양옆에는 이깔나무, 분비나무들이 빼곡이 들어찼는데 멀리에는 드문히 오막살이들이 한두채씩 보일뿐이었수다. 먼지가 뽀얀 행길로 탄약차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길가옆 나무들은 분가루를 뒤집어쓴듯 온통 뽀얗더라니까요. 여기저기서 둔중한 폭발소리가 들리고 하늘을 찌는것 같은 적비행기의 동음소리도 아츠럽게 들리군했지요. 그런데도 깊은 산속에서는 빼꾸기들이 천연스레 〈빠꼭...〉 〈빠꼭...〉 하고 한가히 노래를 부르지 않겠수.

전선에서 총포탄 터지는 소리만 듣다가 처량한 빼꾸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별나더구만요. 가슴이 쯤한게 눈곱이 저절로 뜨거워집데다. (이게 바로 평화라는게로구나!) 하고 생각했수다.

마침내 나는 선천에 들려 주소안내소를 찾아다니면서 기어이 덕칠이 식구가 사는곳을 알아냈다요.

그런데 이런 청천벽력이 또 어디 있겠수.

덕칠의 안해는 없었수다. 녀인이 보탑을 잡구 발을 갈다가 미국놈비행기를 미처 피하지 못해 폭사했다질 않겠수.

두 아이만 살아남았는데 마을사람들이 그 애들을 보살펴주고있었수다. 난 그달음으로 친구의 아이들이 있는곳으로 달려갔지우. 인민위원회에서는 그들을 학원에 보내려고 수속을 하는참이었수다.

그때부터 나는 덕칠이네 아이들을 거느리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수다. 몇달 살아보니 안되겠더구만요. 국가에서 식량을 대여해준덕에 농민들이 밀가루에 길경이나 돌피가루를 버무려 죽도 쑤고 송기떡도 해먹었는데 그래도 피어나지 못하는 애들을 보노라니 막 가슴이 찢기는것 같애 어디 견딜수 있더라구요. 게다가 밤마다 꿈에 덕칠이가 나타나 나를 질책하더라 말이웨다. 나라의 식량을 얻어먹다니 그게 될말인가구. ...그래서 나는 생각다못해 그 애들의 고향인 온천땅에 돌아가 농사도 짓고 바다가 해초같은것도 건져먹고 사노라면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한들 지금처럼 나라에 부담을 끼치랴싶더구만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온천땅에 돌아왔지요. 그후 전쟁도 끝났수다.》

《그때 덕칠아바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나는 궁금해서 물었다.

이윽고 로인은 지금 엑스카와풀이 흙을 부지런히 퍼나르는 석회암절벽우로 나를 이끌고 올라갔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다. 깎아지른듯한 깎아지른바탕우에 올라서니 끝간데 없이 망망한 서해바다가 한눈에 굽어보이고 녹녹한 바다바람이 파도에 패이고 깎아지른 골짜기를 따라서 동굴과 같은 랭기를 훑훑 세차게 뿜어올려 어찌도 시원하고 정신이 번쩍 드는지 저도 모르게 흑-흑- 하고 막 흐느끼기까지 하였다.

수평선 한끝에서는 늦대야같은 시뻘건 해가 바다속으로 느물느물 잦아들고 황동색 저녁해빛을 받은 석회암절벽들은 파도물에 씻기워선지 마치 번쩍이는 멋진 갑옷들을 펼쳐입은듯 눈이 부시게 거연히 솟아있고 그 계곡들을 따라서는 수천마리 이름모를 바다새들이 유유히 날아며 끼룩-끼룩 -한가히 울어댔다.

헌데 로인은 바랑끝에 풀썩 주저앉아 손가락같은 마라초만 뻗뻗 피워냈다. 그래서 나도 그옆에 앉아 담배를 피워물었다. 그런데도 로인은 정신나간 사람처럼 저기 바라보이는 저 술섬쪽만 멍히 바라보고있을뿐이었다. 나는 너무 답답하여 먼저 말쑥지를 떼었다.

《그래, 그후 덕칠아바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제서야 로인은 마치 뼈마디에서 갈려나오는것같은 메마른 목소리로 떠엄떠엄 말하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나고 리위원장도 돌아와 우리는 바로 이자리에 앉아 덕칠이 이야기를 했수다. 리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내가 몸을 피해 샷갓봉으로 들고편 후 덕칠이는 <국군> 놈들을 이끌고 저 술섬으로 떠났다고. 그때도 지금처럼 저녁무렵이었다고. 그러니까 밀물이 나갈 때여서 바다물속에서 간석지가 한창 드러나는 시기였지요. 간석지가 드러나게 되면 저기 보이는 저 술섬까지 다 룽지가 돼버리고만 다오. 덕칠이는 이 시각을 노렸던게지요. 이 지방의 지리풍토를 잘 알수 없는 놈들은 얼씨구나 좋다고 덕칠이를 앞세우고 저 술섬으로 떠나갔다고. 어떤 놈들은 걸어가고 어떤 놈들은 자동차를 타고... 여기서 한 이십리쯤 되는 저기 술섬에 당도하니 어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거든요.

작가선생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바다가저녁이란 참말 장관이라오. 해가 바다속으로 빠져드는 순간까지도 붉은 해빛에 삼라만상은 정말 황홀할 지경으로 아름답거든요. 검푸른 바다물은 설설 끓는 용광로의 쇠물처럼 황황 타오르며 넘실거리지요. 저

녁노을에 물든 절벽이며 바위, 모래불, 갈매기들은 갖가지 아름다운 색으로 채색되어 마치 오색무지개가 비친듯이 찬란하고 현란하단말이웨다.

하지만 일단 해가 어지간히 기울어지기만 하면 어느새 사위는 푸르죽죽해지면서 삽시에 어둑컴컴해지지요. 그러면 저렇게 눈부시고 새하얗던 절벽들도 일순간에 회색으로 물들고 하늘과 땅은 검푸른 색을 띠게 된다고.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지면서 파란 하늘의 별들이 희미한 빛으로 보석처럼 깜빡거리기 시작하면 저도 몰래 닭살이 오르고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치지요. 게다가 습기찬 덤불속에서 서늘한 랭기까지 뿜어나오면 당장 귀신의 손아귀에 목덜미를 잡히울것같은 아득한 생각이 든다오.

<국군> 놈들의 심정이 바로 그러하였을거우다. 벌써 사방이 어둑어둑해졌거든요. 원썬놈들은 덕칠이가 자기네들을 속였다고 으르렁거리면서 그의 주변을 뱅 돌려쫓았지요. 바로 이때였수다. 누군가가 스산한 목소리로 <밀물이다!> 하고 비명을 지르지 않았겠수. 그러자 당황해난 원썬놈들은 벼랑가리에 모여들었던 들쥐새끼들처럼 산지사방 흩어져 달아났다오.

이 찰나에 덕칠이는 옆에 섰던 미국장교놈의 허리를 철통같은 억센 두팔로 막 그러안았수다. 미국놈은 얼굴이 새하얗다못해 시꺼매져서 본능적인 비명소리를 연발하였지요.

덕칠이는 그놈을 꼭 붙안고 <이놈?! 어딜!... 못간다!!> 하며 시꺼먼 수염밑으로 퇴성같은 무서운 소리를 베풀치듯 내지르고는 바다와 하늘이 찢렁찌렁 울리게 호탕한 웃음을 터쳤다고. 그리고는 미국놈을 이끌고 밀려드는 밀물을 맞받아 앞으로앞으로 나아갔수다.

저녁해 장미빛 노을의 잔광이 비친 바다물이 처음에는 덕칠이의 허리를, 다음은 그의 가슴과 목을, 그다음은 머리카락 몇숨을 남겼다가 마감에는 그것마저 꼴깍 삼켜버리고말았다고...》

로인은 한숨을 쉬고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는 커다란 담배말이를 뻑뻑 빨며 입과 코로 짙은 연기구름을 물씬물씬 내뿜었다. 그는 푸른 술섬쪽에 시선을 붙인채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도 오랜 세월 눈비에 절고 번개불에 그슬린 거목과도 같았다.

그는 근엄한 표정으로 술섬쪽을 바라보며 반입속말로 중얼거렸다.

《전후에야 무슨 일인들 안해보았겠수. 불타버린 집들을 다시 세운다, 도로를 수리한다, 논밭을 정리한다… 별의별 일을 다 했지우. 협동조합이 조직될 때는 하동마을의 첫 관리위원장이 되었수다. 그때는 정말 사는맛이 있더구만요. 선전실을 짓는다, 전기줄을 끌어들인다. 북청회의 이후에는 술한 과수원들을 조성했지요. 현대 그때까지만 해도 논정리 사업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수다. 폭탄구덩이들이 그대로 있었다요. 나는 그것들을 메워버리기로 결심했수다. 그래서 낮에는 협동조합에 나가 일하고 밤에는 폭탄구덩이들을 메꾸었수다. 그때는 벌써 덕칠이의 딸아들 광석이도 다 커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지리학을 배우고있었지요. 그애도 방학기간에는 고향에 돌아와 농사일을 도왔수다.

나는 폭탄구덩이를 메운 자리에 벼를 심었소. 그리구 가을에는 그곳에서 난 곡식을 따로 포장하여 국가에 바치곤했다요. 거기서 내가 거둔 쌀만해도 해마다 약 300 가마니는 되었을거우다. 현대 포탄구덩이를 메우는 일도 결코 험한 일은 아니었다요. 바다가논은 거의가 수령논이여서 그저 흙만으로는 메꾸지 못한다요. 흙을 처넣으면 물에 풀려 친구덩이가 되고말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지간히 돌을 채워야 하지요. 한톤짜리 폭탄구덩이를 메우자면 돌과 흙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우. 정말 약차한 량이라오. 더구나 이곳은 바다가 벌이여서 돌을 얻는다는건 하늘의 별따기였수다. 번번한 벌판에서 무슨 돌을 구하겠수. 그래서 저녁마다 달구지를 끌고 한 이십리 떨어진 샫장봉에 가서 돌을 실어다가 구덩이를 메웠지요. 이력저력 일을 하니 생활도 다달이 피어나기 시작합디다.

정말 사는맛이 있더라니까요.

마을사람들도 생활이 눈이 띄게 달라지니 모두 좋아하더구만요. 바로 이런 때 당에서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은 기와집에 비단옷을 입고 쌀밥에 고기국을 먹고 사는것이라고 하면서 알곡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호소하였지요.

우리는 궁리끝에 수령님의 교시대로 간석지를 개간하기로 했수다. (덕칠이두 욕심내던 간석지가 아닌가!)…

감탕뚝과 돌뚝을 쌓는 방법으로 간석지를 조금씩 일구어나갔지요.

현대 어느해 여름방학에 광석이 녀석이 집에 찾아왔다가 간석지를 일구는것을 보고 아주 좋은 생각이라면서 고향에 온 첫날부터 떠나는 마지막날까

지 줄곧 나하고 새땅을 일구지 않았겠수.

그녀석은 신통히도 제애비 덕칠이를 빼먹은것처럼 닮았지요. …이따금 덕칠이를 보는것 같아서 환각에 사로잡혔던적도 한두번 아니었다요. 어엿한 그녀석을 대할 때는 마음이 절로 흐뭇해지더구만요.

그 애는 대학을 졸업하고 과학원연구소에 배치받았다요. 어느해 여름인지 집을 찾아오지 않았겠소. 자기네 동무 서넛을 데리고 왔더군. 그의 말인즉 아버지들의 꿈이 스며벤 저 간석지를 개간하기 위하여 자기는 이제부터 바다물의 조수도 연구하고 간석지도 공업적으로 막을수 있는 새 방법을 찾아보겠다는거지요. …그는 다음날부터 작업복차림으로 측량기를 메고 바다로 나가곤했수다. 거기서 측량도 하고 바다물의 세기도 알아보고 간석지막이법도 연구했지요.

어느날밤 나는 가슴이 너무 답답하여 저기 저 석회암절벽밑 모래불가에 나갔수다. 넓고넓은 바다는 한껏 조용했지요. 울멍줄멍한 이끼낀 바위들의 흠채기째으로 검푸른 파도들이 너겅과 해초의 덤불들을 머리에 이고 우르르 달려왔다가는 처절씩파도를 일쿠면서 새하얀 거품들을 한소래 뽐아놓고는 쉼하고 밀려나가곤했지요. 기슭을 치는 단조로운 바다물소리, 청록색하늘에서 반짝거리는 밝은 별무리, 달빛이 비껴 금무늬가 아롱아롱한 기름기도는 맑은 물우에 뜬 누른빛의 린광들.

나는 점도룩 바위우에 걸터앉아 덕칠이가 떠나간 술شم을 지켜봤수다.

현대 갑자기 검푸른 바다우에 커다란 구름덩이같은것이 흰히 밝아오는게 아니겠수. 너무도 신기하여 두눈을 비비고 또 비비며 먼바다를 자꾸 바라보았지요.

드디어 그 집채같은 솜구름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은은한 달빛의 채운이 어린 하늘에서는 짙고 검은 더벅머리에 불수염이 시커먼 덕칠이가 희뵈히 밝아오는 먼바다쪽으로 훨훨 걸어가는게 아니겠소. 그는 바다바람에 한치가 넘는 시커먼 수염발을 날리면서 호탕한 소리로 꺽꺽 웃고있더구만요.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크고 우렁차던지 꼭 하늘에서 우뢰가 우는것 같더라니까요.

그리고 내 발밑에서는 바다물이 모래불로 기여나와 간단없이 철썩거리며 장엄한 곡조로 힘차게 읊조립데다.

〈영웅은 영원히 죽지 않나니…〉 뭐 그러루한 노래였지요.

나는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깜빡 환각속에 사로 잡혔더랬다는것을 느꼈다오.

그때부터 우리는 간식지를 본격적으로 개간했지 우다. 처음에는 감탕죽을 쑤고 다음은 돌죽을 쑤는 식으로 땅을 넓혀나갔지요. 온 협동조합이 이일에 달라붙었다오.

그때 마침 당에서는 풀과 고기를 바꾸라는 구호를 내놓았수다.

나는 개간된 땅에 나무재기며 유채를 심었지요. 그리구 집에서는 돼지를 길렀구요.

한 삼년쯤 묵은 땅에는 벼를 심기 시작했지요. 짠 물을 빼느라고 정말 땀동이나 흘렸지요. 그것을 다 말하자면 끝이 없수다. 그후에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간식지공사가 대대적으로 벌여졌다오.

둘째녀석 영석이놈도 중학교를 졸업하자 농장에 펴구어두었소구려. 처음에 영석이놈은 농장일에 마음이 불지 않아 하더구만요. 그런걸 내가 우격다짐으로 끌고다니며 일을 배워주었지요. 그후 농업대학에 보냈수다. 지금은 알아야 일하는 시대니까.

하루는 내가 해방후 덕칠이와 같이 앉았던 바로 그 논머리로 그를 데리고 갔수다. 우리는 거기 앉아 이야기했지요. 영석이의 아버지 덕칠이에 대하여 죄다 말해주었수다.

그가 한치의 땅이 없어 별판을 떠돌던 일이며 간식지신답풀이를 할 때 너무도 목이 말라 갈대숲에 들어갔다가 왜놈십장한테 얻어맞던 일... 전쟁때 목숨을 바치며 어떻게 나라의 양곡을 끝까지 지켜냈는가도 다 이야기해주었지요.

나는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소. 말주변이 별로 없는 나도 이때는 정말 시인이라도 된것 같더라니까요. 마치 이야기를 하는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것 같았다고 후에 그 애가 이야기합디다. 그것도 아름다운 노래, 훌륭한 노래를 말이웨다.

나는 이 훌륭한 노래를 낭게 한, 향토에 대한 덕칠이의 크나큰 사랑을 영석이에게 깡그리 심어주었고 그를 위해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던거라오.

한참 이야기하다가 돌아보니 글썄 영석이놈이 갑자기 흐흑- 하고 어깨를 떨지 않겠수. 그 이야기에 어찌나 뼈아픈 슬픔과 가슴뛰는 기쁨, 숨이 막힐듯한 행복이 가득차있었던지 그 애는 뜨거운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면서 한줌의 흙을 와락 끌어안습데다.

그때 비로소 그 애는 그 어떤 새로운것을 가슴속에 받아안았던거라우. 이 땅을 아름답게 꽃피워보려는 새로운 요구, 이 땅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싶은 욕망이 불타던거라오. 그후 영석이는 영 판사람이 되었수다. 물론 제애비를 따르자면 아직 멀었지만.》

《정말 아버님은 큰일을 하셨군요.》 하고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겨 감동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아니요. 나는 늘 빛진 마음으로 살고있수다. 덕칠이네들의 기대에 제대로 보답도 못하고 사는것만 같아 송구스럽기 그지없수다. ...그네들이 살아있었으면 나보다 몇배는 더 일했을게 아니우. 그게 늘 마음에 걸려 일손을 놓지 못하게 된다오. 이따금 피곤에 지쳐 좀 쉬려고 하다가도 인차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일터로 나가지요. 하긴 한줌의 흙이 되어서라도 이 땅을 받들어가고싶어하는 덕칠이의 뜨거운 애국심에 비한다면 내가 한 일이 뭐겠수...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무것도...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때가 많수다. 그래서 나는 늘 마음속으로 덕칠이와 이야기를 나눈다오. 그러면 그는 다 이야기해주지요. 이견 이렇게 하고 저견 저렇게 하라... 이견 먼저 하고 저견 농한기에 하라... 어떤 사람들은 땅과 이야기한다지만 나는 덕칠이와 이야기하우. 좋은 벼를 가까이 두고 밋하러 땅과 이야기하겠소?!

여하튼 나는 덕칠이의 푸른 꿈을 실현해보자고 무등 애를 썼다오. 그 과정에는 보람도 있고 기쁨도 많았지요. 허지만 슬픔도 없는건 아니었수다. ...헌데 아직도 우리 농민들이 제 본분을 다하지 못한것 같아 밤이면 잠을 이룰수가 없소.

세월이란 참말로 무정하여 나는 이렇게 늙은 몸이 되었구려. 이젠 힘이 없어 생각처럼 오록을 제대로 놀릴수 없게 되었수다. 덕칠이들의 꿈을 아직 제대로 실현해놓지 못한게 제일 가슴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건 일부 젊은이들이 우리 늙은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거우다. 전쟁도 못겪어봐, 복구건설도 못해봐... 그저 편안히 지내다보니 쌀이 저절로 나오느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마치 눈에 버모를 콧으면 웅당 풍년작황이 이루어져야 하는것처럼 여긴단말이웨다. 자꾸 추궁하면 잔소리만 한다고 싫어한다이. 쫓쫓...》 하고 로인은 이마살을 찌프렸다.

《나는 그런 녀석을 만나면 혼쌀을 내준다오. 종개 한마리가 큰강을 흐린다구 그런것을 묵과하면 덕칠이네들이 지냈던 아름다운 꿈이 활짝 꽃피나지 못할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 가슴에서 막 불이 이는것 같수다.》

로인은 범포리같은 시꺼먼 장미를 쫓국하고 곤두세웠다. 그리고 눈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이글이글 타오르는것 같았다.

《그건 그렇구…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간석지를 개간한다오. 이제는 땅이 퍼그나 넓어졌어. 한끝이 안보일 지경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동협동농장도 새로 생겨났다오. 당에서는 우리 협동농장에 프락포르, 엑스까와포르, 볼도젤, 자동차를 비롯하여 술한 설비들을 보내주었다.

작가선생, 이 간석지들을 다 개간할 그날을 생각해보우. 그때면 먹고 쓰는데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테지. 나는 그날을 눈앞에 그리면서 일을 한다오. 그럴 날은 꼭 올게요. 아무렴 오구말구…》 하고 로인은 피뿔물었던 담배꽂초를 진흙탕속에 힘껏 쥐어던지고 로동화발로 꺾꺾 짓밟았다. 그리고는 폐의 그 담배쌈지를 소중히 안주머니에 건사했다.

마침 잔교쪽에서 다우다직을 입은 젊은이의 웨침 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돌부림배가 왔어요. 떠날 시간이예요.》

《오냐, 내 인차 가마.》 하고 로인은 엉겨주춤 일어섰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작가선생, 다시 만납시다. 지금은 더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와서…》 하고 로인은 털모자를 벗고 가볍게 인사를 하였다. 그는 허리를 구뭇이 숙이고 질박한 진창길로 저벅저벅 걸어갔다.

습기를 머금은 남서풍의 바다바람이 나의 두볼을 간지럽히며 살살 불어들었다.

순간 내게는 이 간석지가 불현듯 그림고 정다운 고향의 산천처럼 사랑스럽게 안겨왔다. 이 땅에는

새삼스레 가슴을 높뛰게 하는 뜨거운 숨결이 맥박치는것 같았다.

여기에 첫발을 들여났을 때는 그저 황막하고 거친 들판만 있었고 한갓 거무스레한 땅만 보였던 것이 지금 이 벌판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들이 비껴있고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또한 깃들어있는것인가!

나는 눈굽이 뜨거워오름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약손가락을 볼우로 가져갔다.

로인은 점점 멀어져갔다. 그도 이제는 아주 아장걸음을 치는 작은애 같았다. 하지만 어째선지 내게는 그의 영상이 자꾸 더 크고 더 거룩하게만 돋보여왔다.

그는 제방쪽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누비숨옷이 모자로, 다음에는 그것이 제방쪽밑으로 감감히 사라져갔다.

나는 그가 사라진쪽을 오래도록 바라보고있었다. 아니, 나는 분명 두사람이 걸어가는것을 보았었다. 누비숨옷을 입은 로인곁에 검은 더벅머리덕칠이가 의젓이 걸어가고있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로인의 심장속에는 언제나 그가 살아 숨쉬고있는데야…

(저 로인은 어찌하여 지금껏 일손을 놓지 못하는 걸가. 그의 가슴속에 용솟음치는 기원은 과연 무엇 일가?)

순간 까닭없이 가슴이 뭉클하며 그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 애뜻한 정이 불뭉치처럼 가슴노리로 무섭게 파고드는것을 느꼈다.

나는 이처럼 고결하고 아름다운 인간, 숭고하고 소박한 인간의 가슴속에 높뛰고있는 그 절절한 기원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너는 알고있지

문기창

백두산아 한나산아 너는 알고있지
우리가 얼마나 통일을 원하는가
헤어져 갈라져 산천은 변하여도
오가는 우리 마음 막을수 없네

분계선아 판문점아 너는 알고있지
우리가 얼마나 통일을 원하는가
헤어져 갈라져 세대는 바뀌어도

민족의 피줄은 끊을수 없네

세월아 세월아 너는 알고있지
우리가 통일을 얼마나 원하는가
헤어져 갈라져 더는 못살아
가슴엔 하나의 조국이 있네

아 해와 별 빛나는
가슴엔 하나의 조국이 있네

백발로인의 모습

리계두

옛성구에 《인생칠십 고래희》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며 인생의 칠십고개를 넘기는 일은 아주 드물다는것 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 사람들은 60 청춘, 90 환갑을 노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있다.

얼마전 일흔을 넘긴 부모님의 건강이 넘려되어 출장길에 고향집에 잠깐 들렀던 나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설수 있었다. 예상외로 부모님들이 건강하시여 아직도 손에서 일손을 놓지 않고있었기때문이다. 아버지는 새해농사차비로 들끓는 농장을 돕는 다면서 삼태기며 다래끼따위를 거르고계셨고 어머니는 흙갈이하는 사람들에게 더운 콩국이나마 대접한다고 그 차비를 서두르고있었다. 나는 이젠 년세도 있는데 집에 가만 앉아계시라고 권고했으나 이 불같은 세월에 팔짱만 끼고있는게 옳으냐고 오히려 나를 책망하신다.

나는 흥그러운 기분을 안고 다시 열차에 올랐다.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푸른 하늘가엔 흰구름이 몽실몽실 피어오르고 그 하늘밑으로 펼쳐진 들판에서는 흙갈이전투로 들끓고있었다.

남쪽을 향해 쾌속으로 달리는 열차의 차창곁에 앉은 나는 80 대의 늙은이와 무릎을 마주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앉은키가 작고 체소한 몸집인데다 먼도질까지 말끔히 해서 주름살이 뚜렷하게 드러난듯싶었으나 나이보다는 젊어보였다.

세월이 좋아서 오래 산다느니 금년도는 정월부터 모두 펼쳐나서서 흙갈이를 해대니 풍년은 문제없다느니 하며 말을 주고받던 로인이 갑자기 눈이 휘둥그래지더니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나도 웬일인가 해서 뒤를 돌아보니 뜻밖에 나와 마주앉았던 로인보다 더 늙어보이는 백발로인이 가까이 다가서고있었다.

아직 허리도 굽지 않고 턱수염을 길게 자래운 은발의 풍신쫄은 늙은이었다.

《아니, 이게 광서형님이 아니시우?》

《아이구, 이게 뉘긴가? 청수골 같이 살던 떡다리 최서방같은데...》

《옳게 봤수다, 형님, 아직 눈도 어둡지 않았구만요. 자, 어서... 여기 좀...》

마주앉았던 로인이 자리를 양보하려고 하자 열차 손님들이 저마다 백발로인에게 자리를 권했다.

그랬건만 백발로인은 반가운 친구와 마주앉고싶은지 내가 권하는 자리에 앉았다. 이때에야 백발로인의 뒤에 따라섰던 열차원치녀가 배가 불쑥한 배낭을 선반우에 올려놓고나서 로인에게 목적지까지

잘 다녀가시라는 인사를 남기고 가버렸다. 백발로인이 채수염을 쓰다듬어내리며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최서방은 지금 어디가는 길인가?》

《안주 둘째사위가 좀 왔다가라고 해서요. 그런데 형님은 어디를 떠나셨수?》

《막내아들이 사는 평양으로 가는길이야. 겸사겸사 좀 볼일도 있고 해서...》

《가만, 그 애가 청수골에 같이 살 땐 댋살쫄 되었으니... 이젠 아마...》

《지난 가을에 60돛 생일을 지냈네. 세월이 빨라...》

《아니, 뭐라고요? 정말 세월이 빠르구만.》

이때 열차손님들중에 누군가 겸손한 어조로 물었다.

《할아버지는 지금 년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여섯해만 더 살면 백살이우다.》

《아니뭐? 백살...?》

《그러니 지금 아흔넷이로구만.》

《현대 아직도 러행을 다니신단말이지.》

열차손님들이 깜짝 놀라며 저마다 한마디씩 외우는 말이였다. 이번엔 내가 한마디 물었다.

《할아버진 젊으셨을 때 무슨 보약을 썼습니까? 혹 산삼이라두...》

《산삼이 다 뭐가? 50 대에 위탈이 도져서 수술까지 받았네. 옛날같으면 60 고개도 못넘기는 인생이었지...》

열차손님들모두가 그 말이 옳다는듯 긍정하는 눈길로 백발로인을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그에게 러과 담배를 권했다. 그러자 백발로인은 채수염을 가로흔들며 그런건 습습해서 피우지 않는다면서 자기의 담배쌈지를 창탁우에 꺼내놓았다.

《이걸 한대씩 맛보라구. 대초맛이 별맛이야.》

백발로인의 옆에 앉았던 30 대의 거쿨진 청년이 제일 먼저 손을 내밀어 담배를 맡았다.

백발로인은 처녀들의 손같이 보동보동하고 곱게 생긴 청년의 손을 잠시 바라보더니 무슨 일을 하는가고 물었다. 어느 기업소 사무원이라고 하자 백발로인은 몹시 서운해하는 눈길로 청년을 바라보았다.

《헐기가 아까우이, 젊었을 때 나라를 위해 더 어렵구 힘든 일을 많이 해두라구. 내 지금 서른세해나 국가식량을 공짜로 축내고있질 않나. 나라의 고마움에 목이 메여 밥술이 잘 넘어가질 않아.》

《형님말이 옳수다. 나두 지금 가만히 놀고있자니 송구스럽기 그지없수다.》

그말에 생각들이 깊어지는듯 열차손님들의 얼굴

엔 진중한 빛이 어리었고 80 대의 체소한 로인도 자책이 어린 표정이였다. 나 역시 일흔을 넘긴 부모님생각이 불쑥 떠오르며 생각이 깊어지는것을 어찌는수 없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예순은 물론, 일흔을 넘기는것도 지극히 레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그러니 여생에 나라의 혜택을 받으며 자책을 느끼는 사람이 어찌 여기 앓은 두 늙은이뿐이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다 로동을 사랑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남자는 60 살, 녀자는 55 살이 되면 사회보장을 받게 되어있기때문에 그 나이에 이르면 로동을 하지 않고도 살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을 받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들은 다 각성되었기때문에 사회보장을 받는 사람들도 그저 놀자고 하는것이 아니라 하루에 두시간도 좋고 세시간도 좋고 맛있는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일할 나이가 될 때까지 누구나 먹여주고 입혀주고 배워주는 우리 사회제도! 예순만 지나면 또 늙었다고 여생을 마칠 때까지 가만히 앓혀놓고 따듯이 보살펴주는 당의 품!

그러니 백발로인의 말처럼 직업을 가지고있는 한 창나이에마져 조국을 받드는 일에 어깨를 들이밀 그 뼈심을 들이지 않는다면 당앞에, 조국앞에 무슨 면목으로 60 청춘, 90 환갑을 노래하며 여생을 살아가단말인가!

나도 이제 일할나이가 많지 못한 사람이다. 십년 안팎이니까. 그러니 나역시 여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자면 10 년을 20 년이나 30 년 맞잡이로 아껴가며 성실한 로동으로, 힘과 지혜로, 피와 땀으로 나날이 젊어지는 조국을 받들어야 할것이다...

《가만, 여기가 어딘가?》

역구내에 천천히 들어서서는 렬차의 차창밖을 바라보며 백발로인이 급히 묻는 말에 나는 생각에서 깨여났다.

《이자 겨우 두 역을 왔수다. 평양까지 가신다면서...》

《아니야, 여기서 내려야 해. 여기 사는 딸이 평양가는 집을 보태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네.》

백발로인이 서두르며 일어서자 통로에 막아섰던 손님들이 길을 비켜주었다.

《여보게 최서방, 난 여기서 내리겠네. 자, 그럼 후에 또 만나자구.》

《아니 뭐 후에 또 만나자구요? 아, 아무렴, 후에 또 만나야지요. 그러자면 형님이 아무쪼록 백을 넘

겨야겠수다. 하하.》

렬차손님들도 90 고령의 늙은이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를 친구와 헤어지면서 후에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하는것이 기막히는 일 이어서 즐거운 웃음을 터뜨렸다. 이럴 때 나는 선반에서 백발로인의 집을 내리우며 무엇인가 석연치 못한 느낌이 들어 로인에게 한마디 물었다.

《할아버지, 이렇게 짐이 많은걸 보니 혹시 대사라도 있는 모양이지요?》

《허허, 그건 통일거리건설 지원물자야. 우리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을 놓고 얼마나 심려하시나. 그래서 내가 떠난다는걸 알고 우리 딸도 적으나마 자기의 성의를 보태자는거지.》

《아니, 뭐라구요?》

나와 함께 렬차손님들이 깜짝 놀라며 뜨거운 눈길로 백발로인을 바라보았다.

했건만 더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 로인이 빨리 차에서 내려야 했던것이다.

나는 로인과 함께 렬차에서 내려 그를 바래주었다. 이때 렬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나는 렬차의 승강대에 올라서서 멀어지는 로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백발로인의 모습은 잠간사이에 하나의 점으로 작아지더니 아득한 공간속에 녹아버리고 말았다...

나는 가끔 백발로인의 모습을 그려본다. 그리고서 나의 사업과 생활에서 빈구석이 생길 때면 그 로인이 나를 질책하는것만 같아 소스라쳐 놀라군한다.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통일거리 건설자들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들고 려행길에 오른 백발로인의 모습!

나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군한다.

그때 백발로인은 배낭속의 지원물자보다 몇배나 더 귀중한것을 통일거리 건설자들에게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모르긴해도 통일거리 건설자들은 90 고령에도 정정하기 이룰데 없는 백발로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구나 무병장수하는 한없이 고마운 조국을 더 잘 받들어야 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졌을것이며 그리하여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 위훈의 나날을 더욱 빛내이고있을것 이라고...

결국 백발로인은 90 고령에도 자기 힘에 맞춘한 일감을 찾아 주체의 조국에서 사는 긍지와 보람을 꽃피우고있는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도 인생의 마지막날까지 조국에 복무할 줄 아는 백발로인의 모습을 그려볼 때마다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보며 때없이 생각이 깊어지군한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최정용

착암기를 틀어잡고
암벽을 마주할 때면
나는 듣는다 량심의 목소리
-너는 지금 어디에 섰는가?

어디에 섰는가, 검덕광부 나는
마음의 눈으로 본다
친애하는 그이 찾아오신 막장
가셨어도 마음은 두고가신곳

그러면 불을 던고선듯
온몸은 달아오르고
가슴은 뜨겁게 끓어번진다
아, 어느 하루 어느 한시도
잊고 살수 없는 내 삶의 위치여

부여안은 어머니 손길처럼
금골에 와당은 두줄기 궤도
그우로 오늘도 실려오고 실려오는
그이의 한없는 사랑
체온처럼 숨결처럼 느껴사는 우리

진정 맏아들을 내세우는
그 어머니의 그마음인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위하시며
은정어린 배려를 돌려주시는 그이

그렇더라 검덕은
그이의 남다른 사랑 간직한곳
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앞에
남다른 맹세로 불타는 땅

믿음으로 내세워주고
사랑으로 받들어주는

검덕광부의 이자리
오늘은 온 조국이 지켜보는
나라의 맏아들 자리

자책하노라 가슴을 두드리며
사랑의 앞자리에 내세워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받들지 못한것만 같은 죄스러움에

보화로 지심깊이 뿌리박은
저 검덕의 높낮은 산발들을
통채로 떠올리면 보답이 될가
아, 간절한 마음

의리로 불타노라 이 심장
버럭같은 안일과 동요
결코 끼우지 못할 이자리
바치는 진정없이 설수 없고
따르는 마음없이 빛낼수 없는 이자리

지켜 우리 몇몇이 못산다면
있어 무엇하리
금골의 수만 십장이,
장엄한 진군길에 오른
조국의 돌파구 우리 열리라
시대의 부름에 우리 대답해가리라

하여
믿음의 그 높이에서
사랑의 그 높이에서
우리는 찾으리라
검덕광부 우리가 서야 할 자리
땃땃한 보답의 그 앞자리를

내 자란 품 외1편

최치영

남아준 부모들
이 세상 떠난지도 수십년
이제는 나도
세아이의 아버지

즐거운 하루일 끝내고
불밝은 수도의 대동강기슭
나의 집 들어설 때면
어린것들 그저 좋아서 부른다
아버지 아버지...

아 이런 때면 가슴뭉클
심장을 치며 젖어드는 생각
내 친어머니 지어준 옷을 입고
내 친아버지 사다준 교복을 입고
통남산언덕 대학까지 졸업했던가
눈시울 절로 뜨거워진다

어머니란 말
너무도 일찍 모르고
고향의 불탄거리 홀로 헤매며
어린 종주먹 움켜쥐고 통곡할 때

그 누가 나를 안아
코눈물에 얼룩진 얼굴도 씻어주고
하얀쌀밥도 투정질하던
철부지 나를 복구건설의 노래로
나의 꿈 나의 희망

마음껏 꽃피워주었던가
넓어진 어깨우에
서리발 총창도 메워주고
대학의 높은 교정에도
남먼저 앉혀주며
당의 문필전사로 키워주었던가

말하라 자식들 잘되기를 바리는
이 땅 천만 어머니들도 따를수 없는
크나큰 사랑과 은덕으로
나를 안아 키워준 품이어
살아온 경력과 운명과 뗄수 없는
나의 어머니 영광스러운 당이여

오직 하나
그 자애로운 품에서만
나의 운명
나의 미래
나의 참된 삶도 있었거니

눈물도 슬픔도
설음도 모르는
나의 청춘
나의 행복
마음껏 꽃피워준 품이어

아 그 품은
세월이 흘러 먼 미래도
자식된 도리를 다 하여
내 한생 받들어모실
위대한 어머니
나의 영원한 보호자 조선로동당

언제면 그 언제면

-엄마 엄마...
어머니 없다고
달래도 안아줘도 울던 아기
어머니품에 안기자

온 세상인듯 밝게 웃네

그리고는 잼잼잼...
조그마한 주먹을 흔들며 채롱부리며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
 방실방실 웃는 저 아기
 아 마흔다섯해
 어머니 당의 젖줄기 물고
 오늘은 다 자란 내 마음
 아직도 어머니 품에 응석을 부리는
 저 행복한 아기의 마음

언제면 그 언제면
 전쟁속에 폐허속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천만시름 헤아려

어머니 품이 귀한줄 알거나 할가
 나를 키운 당의 그 사랑
 얼마나 큰줄 내 다 알가

아 그 사랑 내 다 알아
 내리는 사랑에 고이는 충성으로
 그대만을 받들어모실 내 마음
 응석을 부려도 한평생 그대의 아들
 백발이 되어도 영원한 그대의 아들

평양

김광춘

여기는 백두의 언땅에 묻혔던 사람들도
 훌훌 흠을 털고 달려온 땅이구나
 저기 렬사릉을 바라보면

한가슴에 수십발의 총탄을 맞고도
 지켜낸 기발을 추켜들고
 전사들이 척 척 들어선 땅이구나
 저기 전승기념관의 문을 열면

살아서 안기면 그 삶이 빛나고
 죽어서도 돌아오면 영생이 이어져
 사람마다 위훈안고 들어서는 땅

죄스럽구나! 평양이여
 그대 품을 찾는 오늘에도
 광부, 내 나라의 만아들로
 빛나는 위훈없이 이렇게 왔으니

어버이수령님 계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이 땅 이 거리를 위해
 값있게 바치는
 나의 삶
 나의 한생
 쇠돌산으로 솟아 빛나야 하리니

소원이여라
 소원이여라
 저기 주작봉에 다시 올라

렬사들의 영생하는 모습앞에서
 첫걸음 떼고싶다

그리고 저기
 전승기념관의 긴 복도를 다시 걸으며
 전사들이 안아온 그 기발 받아들고
 내 앞길 열고싶다

그러면
 땅속 암벽을 뚫고 가는
 내 가슴에도 백두의 숨결 높뛰리
 막장길 열어가야 나의 발걸음에도
 평양길이 열리리

오오 평양
 성스러운 그대 품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모시고 사는 영원한 우리
 세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받들어가는 영원한 우리
 미래

그 세계를 안고
 그 미래를 바라보는 내 눈동자
 언제나 밝게 열려있으리
 내 심장 언제나 높이 고동치리

평양! 평양!
 우리 삶의 영원한 품이여

뿌리는 토양속에 있다

리 극

박임수교수는 논문의 마지막장을 덮었다. 그러나 얼굴은 인차 들지 않았다.

(?)

거의 두려움에 가까운 기대를 담고 굳어진 나의 망막에 논문표지를 꼭 누른채 움직이지 않는 교수의 손이 비쳐들었다. 곳곳한 그의 성격처럼 뾰족하고 긴 손가락이 나의 가슴을 쿡 찌르는듯했다.

품들여 준비한 논문이지만 정작 담당교수앞이고 보니 확신이 강하게 서지 않았다. 이제 송곳같이 날카로운 저 손가락이 쌀함박에서 뉘를 골라내듯 논문의 결점을 하나하나 끄집어낼지 어찌 알라.

박교수는 제자들에 대한 평가에서 좋게 말하면 실제적인 재능만을, 나쁘게 말하면 평가린색으로 소문난 과학자였다.

《대담하오! 대담해.》

문득 둘사이에 가로질러있던 침묵의 굵은띠를 베가르며 교수의 옆에 띤 목소리가 울렸다.

《정말 대담한 착상이요. 극초소형이란말이지. 극초소형...》

교수는 두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바람에 《각국 문자변환장치에 의한 극초소형 전자계산기 조선어처리체계》라는 제목이 박힌 나의 논문이 박수라도 치듯 표지를 털럭거렸다. 나는 저도 모르게 머리를 쳐들었다.

(!!)

두 시선이 허공중에서 부딪쳤다. 항상 과학적자료와 론증만을 중시하던 엄하고 뿔뿔한 교수의 눈빛에 교향악의 절정부분을 휘꺾어올리는 지휘자의 그것과 흡사한 열광적인것이 어려있었다.

《이거야말로 당에 바치는 한 과학자의 충성심이 낳은 열매요.》

박교수는 흥뜬 걸음으로 긴 량수책상을 에돌아나오더니 그에 나를 막 부둥켜안고말았다.

혼장을 가득 달고 전선에서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듯 이윽토록 대견한 눈길로 나를 애무하던 교수의 표정이 차츰 산중의 호수처럼 그윽해졌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부지중 튀어나온 나의 이 말에 교수는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고마운건 내가 아니라 바로 동무요. 동무

의 이 문자처리체계에는 비상한 창조적환상에 든든한 과학적기초가 충분히 안되어있소.

훌륭한 발명이요. 이제 세계학계가 눈이 둥그래질거요!》

나의 어깨를 그러안고 벽쪽에 놓인 안락의자에 가 앉으며 교수는 흥분을 애써 누르고 나직한 음성으로 말했다.

《참, 어찌면 그렇게 심장이 크오?》

(예? 제가 심장이 크단 말입니까?)

숨가쁜 환희가 온몸을 휩쌌다. 교수의 방문을 두드리던 조금전까지만 해도 기연가미연가 불안하던 나의 마음이 아니였는가.

《선생님!》

바로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쪼릿해났다.

입으로는 분명 《과분한 말씀입니다.》 하고 사례하려 눈앞의 박교수를 불렀건만 마음속으로는 멀리에서 나를 지켜보고있는 다른 사람을 부른듯한 착각이 든것이다. 아니 착각이 아니였다. 틀림없이 나는 다른 사람을 불렀다. 분에 넘친 교수의 평가가 자기도 모르게 나를 옛스승에게로 데려가고있었던 것이다.

...턱에 닿은 가쁜 숨소리, 번뜩이는 안경알.

《연약한 나무는 기동감이 못돼요.》

그렇다. 강수선생님의 목소리다. 중학교졸업시기에 1년동안 말았던 담임선생님, 둥그란 얼굴에 안경을 낀 모습이 점점 확대되어 다가온다.

《재능도 조국애와 결부되어야 빛난답니다.》

칼로 새기듯 또박또박 찍어말하던 선생님의 음성이 방금처럼 쟁쟁히 들린다.

《선생님!》

나는 어망결에 재차 소리쳐불렀다.

박교수는 별안간 크게 울리는 목소리에 흠칫 놀리며 의아한 시선을 나에게 던졌다.

(무슨 일이요?)

묻는듯한 그의 눈길앞에 약간 허둥거려지는 몸자세를 바로잡으며 나는 어딘가 가슴속깊은곳에서 지그시 울러미는 추억의 목소리를 누르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음을 깨달았다.

《선생님, 제 얘기를 하나 해도 괜찮겠습니까?》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나는 밀물처럼 밀려드는 추억의 물결이 흥벽을 세차게 두드리는것을 느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 원래 소심하고 의지약한 소년이였습니다. 제 생각도 제대로 발표하지 못했었으니까요.》

나의 눈앞에 천성적으로 수줍고 늘 움츠리고 사는데 습관된 한 소년의 모습이 떠올랐다.

《애들아, 내가 잘못했다. 응? 내가 그만...》

집마당에서는 아이들에게 비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렸다.

《내가 그저 외아들이라구 어루만지기만 했더니 그렇게 됐구나. 응? 그 애대신 내 귀뺨을 때려다구.》

나는 울상이 되어 방안 옷장보뒤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겁도 나고 창피하기도 했다.

《어머니, 우린 때리려 오지 않았어요. 빨리 학선 일 내보내줘요.》

통명스런 목소리, 저건 손탁센 학급장이다.

그의 목소리에 부르춰어진 주먹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았다.

《글쎄 뭐 때리러야 왔겠니. 나도 그렇겐 생각 안한다. 그래두 용서해다구, 응?》

어머니는 이 아이, 저 아이의 손을 번갈아 잡아가며 애원하듯 그저 용서해달라고만 한다.

나는 머리를 싸쥐고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 난 왜 이리 속대가 약할까.)

오늘 학교에서는 문답식경연이 있었다.

보름전부터 학급별대항으로 붙어보다가 마침내 결승에 이르렀던것이다.

결승쌍방은 5학년 1반과 2반.(당시 우리 학교는 한학년에 남녀 각각 한학급씩이었으며 채점법은 10점제였다.)

경연은 처음부터 아짜아짜했다.

1반 10점, 2반 9점, 승벽내기로 올라가는 점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심판원선생들과 두 학급학생들의 손에 땀이 즐벅하게 만들었다. 전교학생이 다 모인 강당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했고 두 학급학생들이 앉은 앞좌석주위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5학년 1반 8번동무.》

대답을 마친 녀학생이 마지막으로 내 번호를 짚자 철렁-가슴속에 돌이 떨어져내렸다. 광산후방부 양봉을 하는 우리 집이 학교에서 10리나 떨어져있 다보니 과외생활에서는 늘 레외로 되기 일쑤였던것이다. 옆에 앉았던 학급장이 내 손을 짹 쥐었다놓았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달래며 조심스레 앞으로 나가 표를 뽑았다.

《시 〈나의 조국〉을 감정을 담아 살려옴고 시에 담긴 사상을 말해보시오.》

후- 숨이 나갔다. 다행히도 다 암송한 시였다.

그러나 머리를 드는 순간,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을 시작하였다.

나를 올려다보는 수백쌍의 까만눈, 《학선이, 너야 최우등생이 아니냐. 우린 널 굳게 믿어.》 하는 듯한 학급동무들의 신심넘친 눈길과 《흥, 아무리 물리를 잘한다 해도 시랑송까지 잘할까. 어렵잖어.》 하며 제발 내가 대답을 잘못했으면 하고 바라는듯한 녀학생들의 눈길, 그 서슬에 나는 단박 온몸이 얼어들었다.

알지 못해라 언제부터

나의 가슴에 깃들었는지

아마도 그것은 나의 첫 삶과 함께

이미... 조용히 자리...잡은것이리

처음은 그래도 마음을 다잡아 운을 뗐으나 차츰 눈앞이 흐리마리해지며 정신이 삼거우처럼 뒤엉켜 버렸다.

조국이여

어찌하여 때로 이국의 거리를

와하 웃음이 물방으로 터졌다. 당황한 나머지 3련과 4련을 삭갈렸던것이다.

나의 온 얼굴은 당장에 화로불을 뒤집어쓴것처럼 화끈거렸다.

(이게 무슨 꼴이람. 머리가 좋다고 은근히 자부하던 내가...)

결국 우리 학급은 녀자학급에 우승을 양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경연이 끝나자 나는 비발치듯할 동무들의 비난과 원성이 두려워 꿈무늬를 뺐다.

그랬더니 이렇게 데리리 온것이다. 아니 《데리러》가 아니라 《죽치러》 왔을것이다. 끝지 않은 숨소리와 통명스런 목소리가 모든걸 말해주지 않는가. 그때였다.

자박자박 켜 발걸음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호 오 숨차라...》

(아니, 선생님이?!)

나는 엉거주춤 무릎을 세웠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선생님!)

나는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자를 만난것만 같아

무릎걸음으로 영금영금 문가에 다가갔다. 안경을 낀 수은선생이 가쁜숨을 뿜으며 대문가에 서있었다.

《동무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술이 퍼래서 학급의 명예를 판 나에게 본때를 보이려던 열성자들이 갑자기 나타난 선생님앞에 머리를 수그렸다.

《아이구 기차라. 선생님이 그 먼길을 어떻게 오셨음등?》

어머니는 캄캄칠야를 헤메던 사람이 등불진 손님을 만났을 때처럼 와락 선생님의 두손을 거머쥐었다.

《내 진작 선생님을 찾아뵙지도 못하구... 그저 다크도록 굶다구만 했더니 저게 아예 부실해지구 말았쑤꾸마. 녀자학급에 졌다니 이걸 어찌문 좋습?》

어머니는 장바 한기장만한 촌아낙네의 푸념을 한바탕 늘어놓을 잡도리였다.

《원 별말씀을 다하세요. 학선이가 실수한거지요.》

숨을 돌린 선생님은 땀기에 처져내리는 안경을 밀어올리며 어머니의 손목을 다정히 잡았다.

《학급동무들도 무척 안타까워한답니다. 그래서 모두 이렇게 온거지요. 어머니, 학선이가 안에 있습니까?》

나는 더이상 숨어있을수 없어 문을 열고 토방아래 내려섰다. 안경뒤에서 조용히 웃는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과 원망이 가득찬 동무들의 쌀쌀한 눈빛이 어우러져 나를 감싸주기도 하고 밀쳐버리기도 했다.

《학선이, 그렇게 말도 없이 가면 돼요? 동무들이 얼마나 찾았대구요. 경연이야 이길수도 있고 질수도 있는거지 앞으로 잘하면 되는건데...》

사내대장부가 그만한 일에 주눅이 들어서야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글썸말이꾸마. 키는 깡충한게 속덴 어찌라구 그리 약한지. 원... 난 <참새심장> 이라는 저애 별명이 딱 싫어 죽겠쑤꾸마.》

어머니가 또 끼여들며 수다를 떨었다. 참, 촌아낙네들이란. 나는 어머니에게 눈을 흘겼다.

《배심이 있어야 재능도 빛나지 않겠나요?》

학선이, 여기 열성자동무들도 다 왔는데 이제부터 서로 믿고 도와서 담력도 키우고 공부도 잘해보자요. 연약한 나무는 기둥감이 못된답니다.》

선생님과 동무들이 돌아간 뒤에도 나의 눈앞에서는 조국의 억센 기둥이 되라고 따뜻이 타일러주던

선생님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다.

탐사대 젊은 중대장과 가정을 이루고 우리 학교에 부임되어온지 한달밖에 되지 않는 선생님, 배워주는 수학과목처럼 딱딱하고 룡담도 할줄 모른다고 판단했던 선생님, 외형상으로는 별로 특이한데가 없는 녀선생이었다.

남다른 점이 있다면 안경을 낀것이랄가. 그래서 나부죽하고 동그란 얼굴에 류달리 더 지성이 깃들여보이기도 했다.

그후 생활은 딱딱하고 특이한데가 없다고 생각했던 담임선생의 마음속에 뜨거운 웅심이 있다는것을 체험으로 인식시켜주었다. 나는 강수은이라는 이름처럼(모든 금속이 다 고체이지만 수은만은 액체가 아닌가.)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해 남다르게 지극하다는것을 여러번 느끼게 되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시절에 나는 혼자서 땀질도 하고 고성기도 만들고 하는 장난질을 과연 좋아했었다. 내 견해에 의하면 그것은 장난질이 아니라 신성한 《과학연구사업》이었다. 과자통만한 나무함의 랑옆에 양철판을 대고 신 밀가루를 채워넣은다음 전력을 투입하면 단 몇분동안에 카스테라가 훌륭히 구워지는데 그래 이것이 장래 빵공장의 원형이 아니란말인가.

그런데 어른들은 이걸 리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 원인이 그들이 학교시절에 물리과목을 소홀히하여 락제국을 먹은데 있다고 생각했다.

나의 《연구사업》을 가장 방해한 사람은 며칠에 한번씩 전기검열을 오군하던 군송배전부 전력감독원이었다. 눈섭이 10시 10분을 가리키는 시계바늘처럼 찢겨올라간 그 사람은 엄연하게 연구계열에 속하는 나의 《사업》을 목격하자 기특하다고 어깨를 두드려줄 대신 전력을 잡아먹는 장본인을 적발했다고 와작 떠들었다. 그리고는 전기인두와 청강수, 땀납 등을 모조리 회수하더니 접속구에 봉인까지 철썩 해버렸다.

배짱이 약한 나는 며칠째 밥도 잘 먹지 않고 고민하였다. 그러자 외아들일이라면 사지에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있는 어머니가 한주일동안이나 광산 자동화직장에 드나들며 필요한 도구들을 구해들었다.

다시 《연구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펍 조심스럽게 하였다. 이번에까지 단속되면 그때는 《중형》이 아니라 《극형》을 당하게 된다. 까다롭게 생긴 그 감독원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줄을 아예 툇 잘라버릴지도 모르는것이다. 모든 일이

세번째만에는 실행되는 법이니까.

접속두가 봉인된 조건에서 나는 뽀족한 바늘 두 개로 만든 꽃개를 전기출파복안에 찔러넣고 작업을 진행했다. 어찌다 바람이 조금만 창문을 흔들어도 속이 철렁하여 재빨리 그것을 뽑곤하였다.

그러나 몰래 하는것은 들기고야마는법인지 자작 만든 로케트가 방안을 두바퀴 왕- 돌게 할 계획을 가지고 밤낮을 이어가던 어느날, 전기로 물을 끓여 증기를 내뿜게 할 작정으로 작은 물통(이것은 로케트의 연소기관과 같은것이였다.) 만들기에 여념이 없던 나는 내 눈앞에 커다란 어른의 발이 비쳐들었을 때에야 놀라서 얼굴을 쳐들었다.

(아빨싸.)

매서운 표정을 지은 전력감독원이 두다리를 여덟 팔자로 툭 버티고 서있었다.

《끝내 말을 안듣는구나. 좋다. 내 너의 학교에 당장 통보하고말겠다.》

그가 가방을 열고 귀중한 내 《무기》들을 와락 와락 집어넣는것을 보노라니 살점이 툭툭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날저녁엔 비가 내렸다. 마가을 찬비였다. 나는 추절추절 내리는 비를 맞으며 전력감독원이 묵고있는 리합숙으로 갔다. 도구를 찾아야 했다.

그러나 합숙 문고리를 잡으려던 나는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이건 범죄란 말이요 범죄, 동무 동생이 소비한 전력이 얼마지 아오? 게다가 자칫 잘못하면 화재사고까지 날뻔했소. 자, 벌금통지서요.》

그 사람의 노한 목소리가 비발을 후려칠듯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나는 발뻘발뻘 창문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니?)

그 사람의 앞에는 선생님이 앉아있었다. 《잘못했습니다. 벌금은 제가 물겠습니다. 누나로서 앞으로 꼭 교양하겠으니 도구는 돌려주십시오.》

어째선지 선생님은 자기를 누나라고 소개하였다.

《안되요.》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걸 주지 않으면 한 아이의 귀중한 재능과 양기가 영영 피어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래 제 동생의 재능과 양기는 중요하구 나라의 전기는 아깝지 않다는거요? 흥, 누나라고 두둔하누만. 그런속에서 아이들의 버릇이 나빠지오.》

《그건 버릇이 아니라 소질이지요. 그 소질이 자라서 지혜가 되고 슬기가 됩니다. 나라의 재산을 귀

중히 여기는 습성은 제가 꼭 키워주겠습니다.》

다음말은 나직나직하여 잘 들리지 않았다. 몸매를 흐트리지 않고 곧바로 앉아 진지하게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선생님의 폭 젖은 옷이 나의 눈썹리를 아프게 찔렀다.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나는 머리를 푹 떨구고말았다.

이때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얼굴을 드니 선생님의 남편인 탐사대 중대장형님이 내 머리에 우산을 씌워주며 빙그레 웃음을 짓고있었다. 선생님이 밤늦도록 들어오지 않으니 찾으러 나온 모양이었다.

《학선아, 무슨 일이 있었나?》

나는 떠듬거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형님은 찬비를 맞은데다 죄책의 회오리까지 겹쳐 우들우들 떠는 나의 몸을 지그시 그리안으며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선생님은 자정이 가까와서야 돌아왔다.

나는 도구를 내어미는 선생님에게 무이라 말했으면 좋을지 몰라 몸을 한껏 웅충그렸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장난을 안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때문에...》

내 목소리는 텅겨놓은 기타의 금선처럼 가늘게 떨렸다.

《뭐라고요?》

갑자기 선생님의 목소리가 저력있게 울리었다.

순간에 안경이 번뜩인것처럼도 느껴졌다.

《안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학생은 이때까지 심심풀이로 로케트를 만들었어요?》

선생님의 눈길에 실망과 노여움에 가까운 서운한 빛이 어려있었다.

《우리 조국은 지금 훌륭한 과학자를 기다려요.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과학의 봉우리에 올라서야 해요. 이 나라의 아들이라면 누구나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구 또 높은 산에 올라가려는 사람일수록 각오가 든든해야 하구 식을줄 모르는 의지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선인 벌써 주저앉을 생각을 하나요? 선생님이 신소받는데 격정스러워서요?...》

감독원아저씨가 그러는것도 사고를 막자는거지 나라의 전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예요. 우리 나라는 새세대들을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선생님의 호흡이 가빠지며 한마디한마디가 몹시 힘겹게 이어졌다. 검버섯이 푸릿하게 돋은 인중에 좁쌀알같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는데 선생님은

방금이라도 옆으로 쓰러질것만 같았다.

(찬비에... 혹시 감기가?...)

나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싶었다. 그러나 그때 선생님의 몸이 불편한것이 감기때문이 아니었다는것을 알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어렸다.

나는 말을 멈추고 교수를 바라보았다. 박업수교수는 안락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고 눈을 반쯤 감고 있었다.

《지루하지 않습니까?》

내 말에 교수는 손을 내흔들었다.

《아니 계속하오.》

교수는 내 얼굴에서 주저주저하는 빛을 읽었는지 별로 사근사근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란 말이요. 훌륭한 논문을 보았지, 성실한 교육자의 이야기를 듣지 난 동무의 이야기에서 많은것을 배우고있소... 어서 계속하오.》

나는 다시 추억의 대문을 열었다.

《우리 선생님은 말보다 행동으로 교양할줄 아는 분이였습니다.》

다음날부터 수은선생은 나에게 하루에 수학 20문제씩 풀것을 요구했다.

《모든 과학의 기초는 수학이예요. 그렇기때문에 물리학을 10년 배우는 사람도 7년간은 수학공부를 한답니다. 오늘부터 문제를 다 푼다음 검열받고 돌아가도록 하세요.》

처음 며칠은 학교뒤산으로 해가 넘어가기전에 문제풀이를 끝냈으나 삼각함수의 그래프단계를 지나 다면체와 회전체 부분에 들어가서는 점점 거부기속도가 되어갔다. 산은 오를수록 험한 법이여선지 열흘후에는 땅거미가 어슬어슬해질 때에야, 또 일주일 이 지나서부터는 시계가 아홉점을 친 다음에야 분과실문을 두드리곤하였다.

하는수없이 어느날은(그날은 겨울철토끼사료준비때문에 온 학교가 짜리베리 가는 날이었다.) 선생님께서 응석섞인 제기를 하고말았다.

《오늘 작업에서 저를 빼주십시오.》

《왜 어디 아파요?》

《아닙니다. 공불 하려구...》

《하루과제를 하기가 힘듭니까?》

《...예》

나는 기여들어가는듯한 그러면서도 웅당하다는 내심의 목소리가 강하게 느껴지는 어조로 대답하였다.

《힘든걸 이겨내야 큰일을 해요. 집단로동에 한번

빠지면 두번 빠지고싶고 두번 빠지면 영영 하기 싫어진답니다. 그러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지요. ...작업에 참가하세요.》

가슴속에서 고까운 감정이 송곳처럼 치밀었다.

좋다, 오늘부터 검열맞히려 안갈테다!

그날저녁 나는 붙잡는듯한 분과실불빛을 뒤에 남기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러나 매일밤 분과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이 왜 꺼지지 않는가를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고까움은 점차 자책감으로 바뀌었다. 5학년이면 가정부인이 저녁밥을 지어야 한다는것쯤은 알고있는것이다.

그 불빛은 나의 의지를 시험하기라도 하는것처럼 계속 꺼질줄 몰랐다. 그것은 몹시도 나를 괴롭혔다. 더는 참을수 없었다.

(선생님, 이제 제발 들어가십시오.)

엿새째 되는 일요일 밀렸던 문제풀이를 다해가지고 학교로 간 나는 쉬는날에조차 불이 환히 켜져있는 분과실창문을 바라보며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뚫어엮드려 죄를 빌고싶은 마음을 안고 분과실문을 열었다.

그날의 일기장에는 지금도 수은선생의 다음과 같은 타이름이 또박또박 적혀있다.

《나라를 위한 좋은일하기에 빠지는것은 나라를 배반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남보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특별히 생각해줄걸 바라는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조국을 찾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면 서도 투사들은 누구하나 그 값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키워준 어머니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은 지식의 웅당한 도리이고 의무가 아닐가요? 그걸 모르면 불효자식이 되고맙니다. 재능도 애국심과 결부될 때에만 비로소 자기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랍니다. 왜냐면 과학에는 조국이 없어도 과학자에겐 조국이 있기때문이지요.

과학자는 나라의 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예로부터 산은 나무로 하여 아름답고 나라는 학자로 해서 빛난다고 했어요. 그러나 종이꽃은 비물에 견디지 못합니다. 조국애가 없는 과학자는 종이꽃과 같습니다.

우리도 따듯이 안아 키워주는 어머니조국을 위해 공부하겠다는 결심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조선의 과학자가 될수 있습니다.》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출강을 앞둔 로의 쇠물마냥 이글거렸다.

《참된 스승이요.

제자들에게 심어줄 녀이 있는 교육자만이 그렇게 할수 있소... 아마 그 불빛이 아니었다면 동무는 이 론문을 쓰지 못했을지도 모르오. 아니, 쓰지 못했을거요. 기껏해야 제 면목을 세우기 위한 잔재간이나 배웠겠지...》

잠시후 박교수의 입에서는 천길나락으로 떨어진 폭포수가 깊은 소에서 맴돌아치고 여울목에서 소용돌이치다가 넓은 호수에 이르러 몸부림을 멈추고 폭 가라앉았을 때처럼 깊고 축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죽게 마련이지...》

어느새 어둠이 자기의 검은 옷자락을 창가에 드리우기 시작하였다. 교수는 불을 켰다.

《계속하오. 더 듣고싶구만.》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선생님이 들으면 웃으시겠지만... 저는 한때 마라손선수로 출전한적도 있습니다.》

《동무가? 하하하...》

아닌게아니라 교수는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동문 키가 썩잖을뿐이지 전혀 스포츠티가 나지 않는데... 참 걸작이요. 하하... 전자계산기학자가 마라손이라, 하긴 재간있는 물리학자중에 유명한 피아니스트도 더러 있소. 아인슈타인도 여가시간에는 바이올린타기를 무척 즐겼지... 그런데 마라손선수로는 아마 동무가 처음일거요. 하하.》

교수는 흰이를 드러내며 유쾌하게 웃었다.

《글쎄말입니다. 저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라손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잊지 못할 그 일요일밤으로부터 달포쯤 지나서 있는 일이었다.

《학선이, 달리기를 잘한다지요?》

선생님에게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어안이 병병해졌다.

(...?...)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뒤더시기만 곁었다.

인민학교때부터 십리길을 걸어다닌때문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치는 양봉꿀 덕분인지 나는 다른 체육은 몰라도 달리기만은 자신이 있었다. 한데 선생님이 왜 갑자기 그 이야길 꺼낼까.

《동무들에게 들으니 학선이가 달리기에 솜씨가 있다더군요. 한달후 사로청창립기념일에 군적으로 마라손경기가 있는데 체육선생님과 토론했으니 오

늘부터 훈련에 참가하세요.》

나는 눈이 둥그래졌다.

《학교대표로 말입니까?》

《집이 나요?》

《그러다 지기라도 하면...》

《왜 질것부터 생각해요. 이길걸 생각해야지.》

수은선생은 책상빼람을 열고 책 한권을 꺼냈다.

언제부터 내가 구하려던 《물리학의 세계》였다.

《공부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지덕체가 아니예요. 체육을 해선 담을 키우구 공부를 해선 지식을 쌓고, 그렇게 하면 학선인 앞으로 나라를 위해 꼭 큰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나는 달리기선수가 되었다. 학교에 오가는 십리길은 좋은 훈련구간이었다.

나는 새벽에 집을 떠났다가 별쁜 다음에야 집에 들어서곤하였으나 피곤한줄 몰랐다.

한달이라는 기간은 빨리도 흘러 마침내 군경기날이 다가왔다.

쿵챙쿵챙 풍작작 풍작작

경기가 진행되는 읍 남자중학교운동장은 아침부터 떠들썩한 응원소리로 떠날갈듯하였다. 남중,녀중, 인민학교, 읍내 만여명학생들과 학부형들이 다 모여 사람담벽을 이룬 관람대에는 발 하나 들여놓을 틈도 없었다.

《오늘의 승리는 우리의것이다. 우리 선수 이겨라.》

손에손마다 나무판을 쥐고 짹짹 박자를 맞추어 쳐대는 여러 학교의 응원소리는 1월의 령한에 얼어든 건너편 산밭까지도 음썹음썹 일궈세우는듯싶었다. 후두둑- 속이 떨렸다. 학교가 읍에서 멀리 떨어져있는게 원망스러웠다.

우리 학교도 가까이 있었으면 틀림없이 저렇게 응원했겠는데...

《학선이 이겨라. 풍산선수 이겨라.》

대형가마 꿏듯하는 저 응원속에 이 한마디만 들렸으면 나도 고개를 움츠리지 않았으리라.

《다음은 마라손경기입니다. 선수들은 출발선으로 나오시오.》

튜바나팔주둥이같은 확성기에서 경기에고를 알리는 목소리가 울려퍼지자 다른 학교선수들이 하나둘 출발선으로 뛰어나갔다.

나의 두어깨에 수백명학생들과 선생님들, 학교의 귀중한 영예를 떠메는 시각이 다가온것이다.

나는 체육선생님앞에 섰다.

《학선이, 1등해야 돼.》

오스러지게 손을 잡아주는 체육선생의 온기가 내 살결에 닿는 순간, 문득 근심어린 수은선생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만약 떨어진다면?... 아니 꼭 이겨야 한다.)

나는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을 심산으로 아래임을 지그시 깨물며 출발선으로 뛰어갔다.

출발선주위에는 응원하러 온 다른 학교 교원들과 학부형들이 자기 선수들을 둘러싸고 무엇이랴 열성적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등을 툭툭 두드려도 주고 머리를 쓸어주기도 했다.

그것이 부러웠다.

결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체 제자리뒹기를 하며 여유있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한가닥 우수가 비껴들었다.

(우리 회교도 가까이 있었으면... 그럼 몇명이라도 왔을텐데.)

아니야, 나는 약한 생각을 털어버리려고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심장은 발방아질을 멈추지 않았다.

드디어 심판원이 신호총을 쏜 오른손을 높이 쳐들었다.

《준비-잇!》

바야흐로 땅! 소리가 울리려는 그 찰나, 충충담을 쌓은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운동장 왼쪽으로 쏠렸다. 그쪽에서 뻑뻑이 장사진을 친 군중속을 헤집고 여라문명의 아이들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출발선을 향해 뛰어오는것이였다.

(아니?!)

우리 학급 동무들이였다. 맨앞에 온통 땀과 먼지가 범벅이 되어 남방토인처럼 보이는 학급장이 종주먹을 쥐고 달려오고있었다.

《학선아-!》

돌부리에 걸채였는지, 아니면 30리길을 달려오느라 힘이 진했는지 그는 그만 한자리에 푹 어푸러졌다.

《꼭... 이-겨라-아-》

그는 어푸러져 더 일어날념을 못하고 팔을 막 내젓더니 흠범벅이 된 얼굴을 쳐들고 안타깝게 나를 바라보며 무어라 계속 웨쳐댔다.

아, 동무들!

코마루가 시큰해지며 눈곱이 썩해왔다.

《학선아- 1등하라-아-》

그 떠들썩한 쿵쟁소리 가운데서도 나는 분명 울음 섞인듯한 목소리들을 가려들었다.

흐흑- 동무들!

다음 순간 나는 흐려지는 눈을 두손으로 비비고 다시 크게 떴다.

그들 뒤로 몰려선 사람들을 겨우 뚫고나온 한 녀인이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 절뚝거리며 달려오고있지 않는가. 번뜩이는 안경, 아 선생님이었다!

《선생님!》

동무들의 팔에 의지하여 가까스로 몸을 지탱하는 선생님의 한쪽발은 신발이 벗겨져 흙에 범벅이 된 양말바람이였고 쓰러질듯, 엎어질듯 비척거리며 한발자국 한발자국을 힘겨웁게 옮겨짚는 선생님의 하얀 목과 이마에, 뺨에, 입술에 땀줄기가 고랑을 지어 흘러내리고있었다.

(30리길을... 나때문에... 나때문에...)

풀어헤쳐진 하얀 마후라가 응원대의 기발처럼 썰렁거리며 빨리 뛰라고 독촉하는것 같았다.

《선생-니-임!》

나는 와락 울음을 터뜨릴뻔하였다.

선생님은 출발선에 서있는 나를 보자 땀과 먼지로 얼룩진 얼굴에 밝은 웃음을 띠었다. 그리고는 두손을 막 내저었다.

《학선아-! 빨리-이-》

목메여 부르는 갈린 목소리가 귀전이 아니라 나의 가슴을 잡아흔들었다.

웅위하듯 선생님을 부축하며 달려오던 동무들이 와- 소리치며 운동장 한복판을 속도내며 뛰어왔다. 털모자를 벗어 휘두르는 아이, 절뚝거리며 겨우 뛰어오는 아이, 땅에 어푸러지면서도 얼굴만은 나에게 돌리고 무어라 소리치는 아이, 먼길을 달려오느라 땀으로 미역을 감은 그들의 량볼과 턱으로 쿵알같은 땀방울이 푹푹 떨어져내렸다.

《학선아- 이-겨-라!》

《풍산 이겨라. 이겨-라-아!》

그들은 두팔을 기발대처럼 마구 휘저으며 목이 터져라 웨쳐댔다.

그리고 기세를 올리던 다른 학교들의 응원소리가 푹 멎고 주위에 정적이 깃든것처럼 느껴졌다.

오직 선생님과 동무들의 뜨거운 부름소리만이 천지를 진동하는 우뢰소리처럼 귀가에 울릴뿐이였다.

《땅!》

신호총소리가 울리자 나는 땅을 치고 뛰쳐나가 무서운 힘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선생님! 동무들!... 내 꼭...)

나는 눈귀로 흘러내리는 이슬을 닦을념도 않고 뛰고 또 뛰었다....

《훌륭한 교원이요.》

교수는 별안간 큰 목소리로 웨쳤다.

《그런 교원이야말로 제자들의 추억속에 남을만한 자격이 있소.》

《그렇습니다. 지내보니 진짜배기 스승은 배워주는 당시보다 먼 후날의 추억속에서 더 많은걸 배워주더군요. 또 진실로 훌륭한분에 대한 존경은 세월의 흐름에 정비례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으로 떠날 때 사로청지도원선생한테 들은 이야기는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삼십리길을 어떻게 가겠는가고 주저하자 선생님은 1등이나 2등이 문제가 아니라 제발로 대지를 짚고 생의 먼길을 곳곳이 걸어갈 심장과 의지를 키워주는가 못키워주는가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앞장서 달렸다더군요. 동무들이 몸불편한 선생님을 넘려해서 뺄스를 타고오라고 몇번이나 간청했지만 선생님도 대학시절에는 룡상선수였다고 하면서 기어이 같이 떠났답니다.

그날 제가 타온 1등상품을 놓고 우리 집안이 떠들썩할 때 선생님은 온밤 열에 떠 앓으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밥도 끝내 중대장형님이 짓게 되구...

저의 대학추천문제를 토의할 때 주위에서 체육을 시키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학선이는 체육보다 과학연구가 더 적임자라고, 꼭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강경히 제기하시더랍니다.》

교수는 팔을 엇갈아끼고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가로등이 환한 거리에는 승용차며 뺄스들이 줄지어 달리고 어깨다툼이라도 하듯 뺄죽뺄죽 솟은 고층건물의 창문마다에서는 밝은 불빛이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웁소. 진정한 교육자는 앞에서보다 뒤에서 더 품을 들이는 법이요...

저길 좀 보오. 불빛들이 얼마나 밝은가!

저 불빛도 결국은 발전소 로동계급이 주는게 아니겠소. 그런데 참 이상하거든. 생활에선 흔히 그런 사람들을 다 잊고 지낸단말이요. 쌀을 보내주는 농장원의 수고라든가, 제가 입은 고급양복천을 짜주는 방직공의 수고같은걸 전혀 생각지 않거든.

하기야 산같은 나라의 은혜마저도 까맣게 잊고 사는 우리들이지. 그러고보면 복속에서 복을 모른다는 말이 맞는것 같소. 그러나 학선이, 우리 이제부터라도 잊지 맙시다.

우리를 인민의 과학자로 키우는데 수고로운 품을 들인 조국과 스승과 동지들을 잊지 말고 꼭 보답을 합시다.

그래 그후에 수은선생을 한번 찾아가봤소?》

《아직...》

《왜? 시간이 없어서?》

《...》

《알만하오. 동문 그사이 연구때문에 한번도 방학에 쉬지 못했지... 이제 논문도 완성했으니 한번 가보시오. 꼭 가보시오. 가서 수은선생에게 나의 인사도 함께 전해주오.》

두달후 내가 만든 《극초소형 전자계산기 조선어 처리 체계》는 유엔 발명 및 저작권기구로부터 금메달을 수여받았다. 세계과학계는 조선의 평범한 청년대학생이 이런 독특하고 대담한 발명을 한데 대하여 입을 딱 벌렸다. 외국의 권위있는 과학자들은 《비약적인 발전의 나라를 얻은것과도 같은 발명중의 발명》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소식이 로동신문 1면에 대서특필로 되던 날, 나를 축하하러 기숙사에 찾아왔던 박엄수교수는 헤어지면서 절절한 어조로 당부했다.

《학부에서 토론이 있었으니 며칠동안 집에 다녀오오. 부모님들이랑 얼마나 기다리겠소? 그러구 강선생에게도 꼭 찾아가보오. 금메달을 잊지 말고 가져가시오.》

교수는 계단을 내려가다 말고 돌아서서 한마디 더 보태었다.

《상점에 들려 어린애옷이라도 한벌 사가지고 가도록 하지. 요새 젊은이들은 그런걸 잘 모르는것같애.》

갱긋한 교수의 얼굴에 뭉기어린 웃음이 너부죽이 떠올랐다. 역시 늙은이다운 조언이였다.

(그렇지. 이제 선생님의 아이도 세살쯤...)

다음날 황혼무렵에 나는 그리운 고향집에 들어섰다. 3년만이였다. 여라문집밖에 안되는 차그마한 마을이였지만 세계를 놀래운 학자가 왔다고 사람들이 떠들썩 모여들었다.

이윽하여 동네어른들이 돌아가자 나는 트렁크에서 어린애옷을 꺼내들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어때요?》

《급구나. 한데 그건 왜 사왔니?》

《선생님에게 갔다오겠어요. 이제 아이도 펍 컸겠는데...》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줄지에 먹장구름을 안은 하늘처럼 컴컴해졌다. 어머니는 의아한 빛을 머금고 우뚝 서버린 나의 시선을 피하여 슬그머니 눈을 내리깔았다.

《학선아, 그 옷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머니는 움쭉 자리를 일며 웃고름을 눈곱으로 가져갔다.

《너때문에... 삼십리길을 땀 때 그만...》

어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부엌으로 내려가고 말았다.

틀렁- 내 손에서 어린애옷이 떨어져내렸다.

(나때문에?...)

망연자실하여 서있는 한순간이 흘렀다.

한참후에야 나는 비로소 비오는 날 선생님이 몹시 피로와한것은 감기때문이 아니었다는데 생각이 미쳤고 달리기경기 다음날 중대장아저씨가 아침밥을 지은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것을 어렵듯이 깨닫게 되었다.

아 정녕 조국을 빛내인 나의 재능은 얼마나 값비

싼 희생을 전제로 하여 자라났는가.

아름드리거목을 받들고 선 뿌리에 마르지 않는 자양을 대여준 기름진 토양, 천리수해와 억만재부를 한가슴에 안고 자래우면서도 말없이 사람들의 발밑에 누워있는 대지의 고마움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어머니대지에 뿌리를 묻은 락락장송들도 쓰러지면 반드시 한줌 거름으로 그 대지를 풍요케 할것이여늘 아, 우리 조국의 미래는 얼마나 무궁번영할것이나!

×

지금도 나는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때마다 선생님에게 드리지 못한 어린애옷을 종종 꺼내보군한다.

(1990년 6.4문학상 수상작품임)

내 친구의 아들

-공화국영웅 김광철을 노래함-

전찬기

네 돌잔치 차렸던
이 아래방에 둘러앉아
오늘은 돌아오지 못한 너를 생각하며
너의 금별메달을 본다

네 아버지는 내 친구, 너도 나를 잘 안다
우리는 자라는 너희들에게 꾸중도 많았다
갈굼질로 재구치면 그것을 두고
어질고 수집을 땀 또 그 성미를 탓하며

명절날 술자리 마주하고서도
캐여낸 석탄의 톤수를 꼽아보이며
5개년때는 2중천리마를 탔었다고
우리 세대의 우월감으로 혼시도 했었다
너희 집에 모였을 땐 광철이 너에게
우리 집에 모였을 땐 우리 영수에게

그러던 때가 어제같은데
세월이 흘러서나
너희가 빨리 자라서나
네 한몸 선듯 내대어 술한 전우들을 구원하고

고향집에 금별을 보내온 광철이
우리 너희들에 대해
가슴에 품었던 자그마한 걱정도
이 금별의 빛발이 다 지워내누나

내남없이 누구나 부모들은
자식들의 마음 자라길 조금씩 바라고
그 뉘집에서나 자식들의 마음은
부모들 모르는새 자리며 알속이 여물던가

너도 탄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땅속 깊은곳에 일터를 두었어도
믿음 하나를 생각해 땀흘리며 탄을 캐는
우리의 그 진정도 네 금별에 어린듯싶어라

오, 너희 집 이 아래방이 지금
어찌 너와 우리의 영결의 자리만이라
돌잔치날 연필을 쥐고 별을 그렸다고
네 빛나는 앞날을 축복했던 우리 가슴에
90년대 젊은 세대에 대한 믿음
뜨겁게 뜨겁게 차오르는구나!

90년대 인간전형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하여

김정웅

희망의 년대, 투쟁의 년대인 1990 년대에 우리 문학을 주체의 상상봉에 더욱 높이 올려세우며 새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사상에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내려는것은 우리 작가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념원이다.

1990 년대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주인공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하는것이다.

무릇 문학작품의 사상에술성과 사회적가치, 인식교양적힘은 주인공의 형상에 의하여 규정된다. 90 년대에 우리 문학의 사상에술적질을 높이며 주체문학을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키기 위한 관건적고리는 우리 시대의 참된 주인공, 90년대 인간전형을 훌륭히 창조해내는데 있다. 오늘 우리 문학은 90년대 인간을 기본주인공으로 내세워야 하며 90년대 인간전형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훌륭히 창조하는데 우리 작가들의 창작적열정이 기울어져야 할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최근 평론가들속에서 90년대 인간전형창조문제를 두고 활발한 논의가 벌어지고있는것은 응당하며 반가운 일이다.

90년대 인간성격창조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 대표적인 평론들로서는 《90년대 인간의 성격》(《조선문학》 1990년 7호), 《90년대 인간성격창조문제에 대한 소감》(《조선문학》 1991년 1호)을 들수 있다. 이 평론들에는 1990 년대에 문학창작에서 새로운 양양과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며 우리 인민들에게 새날과 투쟁의 거울로 될 새형의 주인공의 성격을 훌륭히 전형화할데 대한 열렬한 지향이 흘러넘치고있다.

리론적경지에서 볼 때 70년대나 80년대 인간들의 성격적특질이 따로 있고 90년대 인간들의 성격적특질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우리 시대 인민들은 자기가 고유한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정신적품모를 지니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생활의 신조로 삼고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핵으로 하는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모를 지니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철석같은 신

념과 조국통일에 대한 열렬한 지향, 높은 민족적자존심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 고유한 사상정신적품모이다. 1990 년대에 와서 우리 인민의 이 숭고한 사상정신적품모는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있으며 더욱 전면적으로 발양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90년대 인간전형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 고유한 숭고한 사상정신적품모를 깊이있게 그려내는데 창작적열정을 기울여야 하며 우리 평론가들은 이러한 사상정신적품모를 훌륭히 형상화하는데서 제기되는 미학적문제들을 적극 탐구해야 할것이다.

1990년대 우리 인민들의 성격적특질은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체현되어있다. 국제적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이 악랄해지고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사변들이 련이어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며 수령님과 지도자동지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에 끝까지 충실하려는것이 바로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의 숭고한 품모이며 이러한 사상정신적품모와 성격적특질을 체현한 인간들이 우리 문학이 내세워야 할 90년대의 참된 주인공이다.

우리 문학이 형상하여야 할 90년대 인간의 이전년대 인간들이 지니지 못한 그 어떤 특이한 성격적특질을 가진 인간인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에게 고유한 전통적인 성격적특질을 보다 숭고한 높이에 서 체현하고있는 인간들이다.

문학평론가들은 90년대 인간전형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미학실천적문제들을 해명하는데 열정과 힘을 기울여야 하며 그러한 문제들을 논의한 글들을 써내야 할것이다.

그러면 90년대 인간전형을 훌륭히 창조해내기 위하여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겠는가. 이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이 논의될수 있으리라곤 간주하면서 필자의 단편적인 견해를 피력하려고 한다.

90년대 인간전형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작가들이 가장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품모, 성격적특질들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미적으로 정확히 평가하고 깊이있게 형상화하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핵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품모, 90년대 인간의 성격

적특질들은 끝없이 아름답고 숭고하다.

인간의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를 미적으로 평가하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형상화하는것은 사실주의문학의 본성적요구이며 작가들의 창작적본분이다.

90 년대 인간들의 성격적특질이 한없이 숭고하고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작가에 의하여 미학적으로 넓게 평가되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려지지 못하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예술적전형이 창조될수 없다.

인간의 긍정적인 성격적특질을 미적으로 정확히 평가하고 형상화한다는것은 그것을 인간이 지녀야 할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풍모를 내세우고 그 미적 본질과 의의를 시대적견지에서 깊이있게 밝혀낸다것을 말한다.

우리 문학이 형상화하여야 할 90 년대 인간의 긍정적인 성격적특질들은 비할바없이 숭고하고 아름답지만 그것이 작가에 의하여 미적으로 재평가되고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그려질 때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으며 강렬한 미학적감화력을 나타내게 되는것이다. 최근에 창작된 사회주의현실을 주제로 한 일부 소설작품들의 주인공들의 성격형상이 우리 시대 인간들,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자들의 고유한 성격적특질들을 체현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감명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바로 작가들이 우리 시대 인간들의 성격에 체현되어있는 미적 속성과 특질, 그 의의를 예술적으로 파고들어 깊이있게 형상화하지 못한것과 관련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인간의 성격적특질을 미학적으로 정확히 평가하고 그것을 미의 법칙에 맞게 그려내는것은 형상의 법칙이며 문학작품창작에서 항구적으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이다.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90 년대 인간의 성격을 미적으로 정확히 평가하고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화하는데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작가들이 90 년대인간성격의 본질적내용과 특징을 정서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두드러지게 형상하는 문제이다.

자기가 형상화하려는 주인공의 사상정신세계에 깊이 파고들지 않으며 정서적으로 열렬히 공감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작가도 인물성격을 미적으로 파악할수도 없으며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전형화할수도 없다.

90 년대 인간들의 성격에서 핵을 이루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놓고 보더라도 거기에는 선행년대 인간들에게서 볼수 없는 아름다운 특징과 미적속성이 체현되어있다.

1990 년대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는 사람들이 바로 조선중앙통신사 5 국

2 세로 당원들이다. 이들이 지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성격적특질을 구현하고있으면서도 그것이 가장 열렬하고 숭고한 형태로 발현되고있다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있다.

조선중앙통신사 5 국 2 세로 당원들은 그 어떤 특출하고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며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소박하고 평범하며 가식이 없는 지식인당원들이다. 그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남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들이 현시기 격변하는 세계정세속에서 우리 당의 위대성, 우리 조국의 위대성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더욱 가슴깊이 느낀 그 점이다.

바로 이러한 그들이였기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살며 투쟁하는 궁지와 자부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으며 지도자동지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일편단심 충성을 다해나갈 철석같은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던것이다. 이들은 당과 수령에게 충성다하는것을 그 어떤 의무나 과업으로 여기는것이 아니라 혁명전사로서의 의리와 도리를 지키는것으로, 생활상요구로 간주하고있다. 여기에 바로 90 년대 인간들이 지닌 성격적특질의 미가 있고 매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은 90 년대 인간전형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성격에서 핵을 이루는 당과 수령에게 충성다하는것을 혁명적 신념으로, 의리로 여기는 한없이 아름답고 고결한 성격적미를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형상화하는데 창작적열정을 기울여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한 주인공의 고결한 풍모와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가지 아름답고 숭고한 성격적미를 폭넓고 깊이있게 개방하는것, 이것은 90 년대 인간의 전형창조의 원칙적요구이며 가장 중요한 미학적방도이다.

90 년대 인간전형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하여 우리 문학이 실천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인물성격을 전면적으로, 다면적으로 형상화하는것이다.

인물성격을 전면적으로, 다면적으로 그리는 문제는 사실주의문학에서 성격창조의 일반적인 요구이지만 현시기 우리 문학에서 특히 90 년대 인간성격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더욱 중요하고도 절실하게 제기되고있다.

우리 시대의 주인공, 90 년대 인간들의 성격은 끝없이 풍부하며 다양하다.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밑에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역사적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우리 시대 인간들, 90 년대 주인공들은 높은 사상정신적풍모와 함께 풍부한 문화적소양과 인간성을 지니고있다.

묘사의 다면성과 전면성을 보장하는것은 90 년

대인간들의 성격을 진실하게 형상화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성격형상의 철학적심오성, 예술적감화력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도 필수적요구로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학은 이 면에서 아직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있다. 일부 작가들은 성격의 규정성을 명백히 한다는 구실밑에 또는 성격을 력점 찍어 그린다고 하면서 주인공들의 성격을 다면적으로, 전면적으로 그려낼 대신 일면적으로 그리거나 왜소화하는 경향을 발로시키고있다.

문학작품에서 주인공의 성격에서 본질적인 측면을 두드리지게 그려내며 성격형상에서 초점을 명백히 살리는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중요하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물성격을 일면적으로 그려도 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산 인간을 현실에 있는 그대로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리는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적요구인것만큼 인물 성격에서 본질적인것, 전형적인것을 뚜렷이 내세우고 두드리지게 형상화하는것과 함께 생활과정에 형성되고 발현되는 때 인물들의 성격적특질을 여러모로 폭넓고 깊이있게 그려내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최근에 발표된 90년대 성격창조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한 평론들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풍부한 과학기술적소양, 락관주의정신을 깊이 있게 구현할데 대한 논의도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의의가 있는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시기 우리 문학에서 주인공이 풍부한 현대적과학기술을 소유한 인물로 그려지지 못하였거나 주인공의 성격에 락관주의, 혁명적랑만성이 결여되어있는것은 작가들이 우리 시대의 주인공의 성격을 다면적으로 전면적으로 그리는 창작태도를 확고히 견지하지 못한데로부터 오는 귀결이다. 확실히 우리 작가들에게는 주인공의 성격을 전형화한다고 하면서 그 어떤 본질적인 성격적특질만을 내세우고 그것만을 근기있게 파고드는 경향이 있는것 같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장편소설들에서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사회주의현실을 주제로 한 일부 장편소설들에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는 주인공의 투쟁과 이 투쟁과정에 발현되는 충실성이나 헌신성만을 그려내고 그밖의 다른 성격적미를 탐구하는 문제가 도의시되고있다.

이러한 경향이 성격형상의 진실성과 감동성을 보장할수 없게 하며 작품의 형상성, 사상에술적품위를 떨어뜨린다는것은 구구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 작가는 주인공 주용녀의 성격을 형상화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는것을 생활의 신조로, 철석같은 의지로 삼고있는 전형적성격과 함께 그가 지닌 풍부하고도 다감한 인간적품모를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진실하게 그려내었다. 주용녀의 이러한 성격적특질은 장편소설에서 홍만석과의 관계를 통하여 특색있게 형상화되였다. 곡절많은 운명을 지닌 홍만석기사와의 관계를 통하여 작가는 주용녀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는 한없이 고결한 인간적미덕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미덕과 결합되어있기에 주용녀의 충성심이 더욱더 아름다운 빛을 뿌린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증하였다.

성격묘사의 전면성과 다면성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자면 작가들이 우리 시대 인간들과 그들의 생활에 대한 풍부하고도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대의 참된 주인공, 사람들에게 생활의 본보기로 되는 인간전형을 훌륭히 창조하는 문제는 작가들이 높은 정치사상적안목과 풍부하고도 다양한 지식을 소유한 조건에서만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작가는 시대의 선각자로, 철학자, 력사학자, 심리학자로 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라는 높은 신임과 기대를 언제나 심장깊이 새기고 자신의 정치리론수준과 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전 년대들이 창조한 주인공들보다 더 높은 예술적경지에 이른 90년대 인간의 참된 전형을 훌륭히 창조해내야 할것이다.

《풍년》은 들판에서

리기창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농업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부침땅의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실현하며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자연의 봄은 사계절의 흐름속에서 찾아오는 법이다. 그러나 올해 농장의 봄은 계절에 앞서 찾아온 듯싶다. 나는 이것을 황주군의 한 농장을 찾은 취재길에서 톱톡히 느낄수 있었다.

아직은 2월이라 먼 산발마다 하얀 눈이 덮여있으나 농장벌에는 오색기밭이 곳곳에서 펴려있고 트랙토르들이 부지런히 오가는것이 한눈에도 그 농장이 부글부글 들끓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쪽에서는 흙갈이를 끝낸 밭에 두엄을 실어내고 또 한쪽에서는 마지막 밭들에 흙갈이를 끝내느라고 누구라 할것없이 뛰어다녔다. 드넓은 벌의 풍경에 취해 섰던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펼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이 벌에서도 실감하는듯싶어 가슴 후두위오름을 금치못하였다.

나는 관리일군들을 만나려고 관리위원회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때 김이 문문 나는 두엄을 가득 실은 트랙토르가 옆을 지나쳐 툭툭거리며 기세높게 달려갔다. 내가 허연 김이 몽게몽게 피어오르는 두엄더미에 눈을 준채 흐뭇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있는데 진회색작업복을 입고 나이론수건을 쓴 중년나이의 녀인이 두손에 무엇인가 움켜쥐고 운전사를 소리쳐부르며 허둥지둥 달려가는것이였다. 나는 의혹어린 눈길로 그를 지켜보았다. 이윽고 기세좋게 달리던 트랙토르운전사가 녀인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후사경으로 녀인의 모습을 보았는지 스스로 멈춰섰다. 그러자 녀인은 운전사에게 무엇이냐고 말하더니 손에 든것을 두엄실은 련결차우에 올리던지였다. 나는 그제야 그것이 두엄덩이라는것을 알아보았다. 모름지기 트랙토르가 달리는통에 길가에 흘린 두엄덩어리를 저 녀인이 주어들고 뒤쫓아온것이리라. 스칠만한 작은 소행이었지만 한덩이의 거름도 그처럼 귀히 여기는 녀인의 소행이 뜨겁게 안겨와 그 녀인을 꼭 만나보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런데 아쉽게도 녀인은 트랙토르운전칸에

흠쩍 올라타고 포전으로 달려가는것이였다. 나는 멀어져가는 트랙토르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비록 만나보진 못했어도 농장의 주인된 높은 자각을 안고 만풍년의 가을을 마련해가는 착실한 농장원이리라.

나는 서두르며 리당비서며 관리위원장을 찾아갔으나 방들은 비어있었다. 다시 밭길을 돌리던 나는 한 방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소리에 글러 문을 두드렸다. 새로 나온 노래가사를 속보용지에 쓰고있던 귀염성스럽게 생긴 처녀가 반겨맞으며 리당비서나 관리위원장을 여기서 찾으면 만나지 못한다고 웃으며 말하였다.

나는 처녀가 가리켜준대로 다시 포전으로 나갔다.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이 한데 어울려 트랙토르들이 포전마다 무저놓은 흙들을 퍼고있는데 나이 지숙한 한사람이 그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고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듣노라니 그는 흙갈이의 두께를 정확히 보장해야 정보당 8t 이상의 수확을 거둘수 있다고 차근차근 해설하는것이였다. 나는 그가 관리위원장이나 리당비서이리라 짐작하고 인사를 나누어보니 그는 뜻밖에도 군농촌경영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것이였다. 나는 수수한 작업복차림으로 농장원들과 어울려 일을 함께 하면서 농장실정을 구체적으로, 깊이 료해도 하고 주체농법을 해설해주며 농장원들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불러일으키고있는 한 일군을 포전에서 만난것이 무등 기뻐했다.

2월의 날씨는 쌀쌀해서 랭기를 느끼게 했으나 숨복까지 벗어던진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구슬땀이 흘러내린다. 나는 와와 함성이 터져오르는듯한 다락발등성으로 올라갔다.

산릉선꼭대기에서는 삭도가 쉬임없이 등등 떠오르고 삭도를 받으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온 골짜기를 짙게 채우는것 같았다. 알고보니 산넘어 골짜기의 흙을 삭도로 운반하는것이였다. 생각도 깊고 궁냥도 컸다. 나는 취재하러던 생각도 잊어버리고 저도 모르게 신바람이 난 그들속으로 뛰어들었다. 나역시 흠뻑 땀흘리며 일하고싶었던것이다. 나는 솜옷을 벗어놓고 가래삽을 든 녀인에게로 다가가며 《제가 좀 할가요?》 하고 말했다.

녀인은 땀흐르는 얼굴을 들며 나를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아! 순간 그를 알아보았다. 아까 포전길에서 두 엄덩어리 쥐고 뛰어오던 그 녀인이었던 것이다.

《저 몇 분조에서 일하십니까?》

녀인은 한순간 어리둥절하는가싶더니 나의 거동이 우스웠던지 웃음을 터뜨리며 물었다.

《호호, 손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느낀 나는 황급히 취재나 왔다고 자기 소개를 하고나서 포전길에서 보았다고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던 옆사람이 여기 관리위원장이라고 살그머니 귀띔해주는 것이었다.

《이거 미처 몰라보았군요. 첫눈에 벌써 관리위원장동무를 비롯한 관리일군들과 전체 농장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새해 신년사를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섰다는 것이 알리는군요.》

그러자 관리위원장은 이마에 구슬처럼 맺힌 땀방울을 씻으며 입을 열었다.

《문제 없습니다. 풍년의 가을은 이렇게 하루하루 오고있는걸요.》

그렇다. 풍년의 가을날은 소리없이 오고있다.

정말 관리위원장은 《풍년》 든 들판의 한가운데 서서 여기저기 사방을 둘러보며 만족한 웃음을 웃고있었다. 아니, 나 역시 강냉이바다에 몸을 싣고 둥둥 떠가는 듯한 환상에 사로잡혔다.

런이여 날아내리는 삭도바가지, 쏘아지는 웃음소리, 힘있게 울리는 삽질소리...

분명 그날은 오고있는 것이다.

우리 인민이 더 잘 먹고 더 잘 입도록 하시려고 마음 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깊이 새기고 떨쳐나선 충천한 저 기상, 저 의지, 풍년의 비결은 저들의 심장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어떤 바람도 그 어떤 한랭전선도 만풍년의 로적가리를 쌓아올릴 불타는 마음을 꺾지 못하리라.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취재하진 않았어도 말없는 가운데 농장원들의 뜨거운 진정, 뜨거운 일념을 심장으로 느끼었다.

나의 로동일아

허창일

해와 함께 왔다가
해와 함께 가느냐
교대를 바꾼
나의 로동일아

반나절에 하루 강관 다 밀어내고도
수령님 신년사를 되새겨보며
더 큰 목표 내걸고
초침처럼 바빠 산 너와 나

운전공을 부르는 그 시간도 아까와
-기중기! 한마디로 불렀지
작업복을 입을 때 귀에 낀 담배가치
점심때야 생각나서 한모금 맛봤지

래일도 로동일
모레도 로동일
그 나날에 쌓아지는 것 강재더미기에
초를 쪼개가며 강관을 뽑은 우리

아쉬워

철을 위해 함께 땀흘린 너를 보내기 아쉬워
출하장에 무겨놓은 강관통구리를 보니
거기 먹으로 쓴 오늘의 날자
나의 로동일이 웃고있구나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강관날가리 더 높이 쌓는 기쁨
땅을 누르는 무게로
하늘을 밀어올리는 부피로
자랑하고 자랑하며...

아, 로동일아
90 년대의 장엄한 진군길우에
또 하루 나의 자욱도 부끄럼없이 찍어놓고
저물어가는 나의 로동일아
교대를 바꾸어도 너는 결코
나와 헤어지는 것 아니구나

들보가 되고 기둥이 되어 대기념비들을 받드는
그 모든 강철구조물들에 너는 남아있어
수령님 신년사를 관철해가는
나의 량심을 계산하고있구나

대건설장의 병사들은 외 1편

현창성

대건설장의 밤
비는 억수로 퍼붓고
큰 길을 열어가는데 중대의 앞길에
암반이 막아섰다

래일로 미루라
비뺏기를 기다리라
당앞에 다진 결의날자는
잠시도 지체말라 재촉하는데

중대선동원은 수리개인양
암반우에 날아올랐다
번개불빛에 드러난 그의
비물흐르는 얼굴은 엄엄했다

섬섬히 번쩍이는 눈길로
온 작업장을 둘러보던 그는
손에 든 마이크를 입가에 가져갔다
《동무들! 여기는 포성없는 격전장

우리가 지체하면
조국의 발걸음이 지체된다

우리모두 불이 되고 화약이 되어
암반을 훑날려버리자!》

그렇구나 적의 화점이 불을 뿜으며
중대의 돌격로를 막을 때
《당과 조국을 위하여!》
가슴으로 화구를 막던 전사의 마음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이
습격전의 길을 막을 때
《나를 딛고 앞으로!》
한몸 던져 발판이 된 전사의 마음

그 마음 안고 밤도와 격전을 벌린
전사들의 불타는 심장이 밝혔는가
동트는 아침, 기어이 열린 큰길너머로
아름다운 노을이 타고있었다

아, 대건설장의 병사들은
싸움의 날에 이어 건설의 나날에도
작은 심장으로
조국의 크나큰 발걸음에 박동을 더해간다

제방우에서

검은 구름 납처럼 드리운 수평선에
언뜻 흰 거품 이는듯하더니
급기야 은 공간을 물보라로 채우며
다닥치는 폭풍, 뒤설레는 바다

길길이 솟구치며 포효하며
모든것 삼킬듯 달려드는데
제방을 다져가던 짧은 병사들
일손들을 멈추고 바다를 굽어본다

긴장속에 마음들을 조이며
광란하는 대자연과 맞선
그들의 구리빛 얼굴마다에
불꽃튀는 눈동자, 눈동자들

번쩍이는 섬광이 그대로 어렸는가
도고히 서있는 불굴의 모습들
한가슴에 바다를 안고
쏘아보는 눈빛 불타는 눈빛이어

산악같은 제방을 딛고선
그들의 눈빛들은
날바다의 덜미를 눌러딛고
폭풍속에 나래치는 돌격대의 기발아래
번쩍이며 번개치며 말하누나

-바다야, 다음번에 우리는
너를 더 멀리
밀어낼테다
흰 거품 일던 수평선너머로!

류다른 마차

리규춘

포연처럼 진한 밤안개가 내려덮이는 어둠속으로 크지 않은 대오가 흘러가고있다. 총창도 보이지 않고 지휘관의 구령도 없는 행렬이었다. 형형색색의 짐꾸레미들을 이고진 너인들과 남정들 그리고 크고 작은 아이들이 제멋대로 서서 지친듯 걸어가고있는 류다른 대오였다.

전선은 어지간히 뒤쫓아온듯 그들이 흘러온 뒤쪽 무척 가까운 어둠속에서 포성이 들려왔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마지막 대렬이었다. 어둠속에 잠긴 대오의 맨앞에는 길잡이인듯 마차 한대가 삐걱거리며 굴러갔다. 또각또각 가락맞게 먼지가 깔린 굳은 길바닥을 두드려대는 말발굽소리와 이따금 들려오는 말투레질소리는 사람들에게 야릇한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언제부터 이 대오에 끼여든 마차인지 마차에 어떤 사람이 타고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다만 사람들은 고맙게도 스스로 길잡이가 되어준 마차에 마음을 지령하고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발걸음을 다그쳤을뿐이었다.

영산리에 남아 후퇴의 뒤처리를 하던 나는 공교롭게도 놈들의 항공습격을 받아 부상당한 몸으로 이 마지막대오에 속하게 되었다.

부상이래야 오른쪽 넓적다리를 기총탄이 스쳐지나면서 뼈를 좀 꺾어놓은것으로서 그리 대단한것은 아니었으나 무슨 병이 겹쳐선지 몸이 떨리고 운신하기조차 어려웠다. 허나 이 대렬을 떨어지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를 쓰고 대렬을 따라갔다.

한 사십리가량 걷자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면서 정신이 혼미해져갔다. 나는 이대로는 이 대렬과 함께 더 가지 못하리라는것을 똑똑히 깨달았다. 나는 깜빡깜빡 흐려지는 정신을 가다듬노라고 무진애를 썼다.

내옆에서 걷고있던 검은 헬메트모를 쓴 다부지게 생긴 중년의 사나이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나를 그러안으며 길잡이마차를 다급하게 불러세웠다.

내가 의식을 회복한것은 다음날 아침 해돋무렵이었다.

《아, 정신이 드는 모양이군-》

웬 사나이의 살뜰한, 그러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먼저 귀가에 울려왔다. 안개가 낀듯 뿌옇한 눈앞

이 서서히 밝아지자 시야에 헬메트모자를 쓴 길숨하고 거무스레한 얼굴이 나타났다. 무던해보이는 얼굴이었다. 그옆에 몇몇 너인들이 가벼이 안도의 숨을 쉬며 웃음짓는 얼굴들도 보였다.

낮도 모르는 이들이 밤새껏 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치료해준 모양이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며 눈곱이 뜨겁게 젖어왔다.

《잘 안정시켜주시오. 미움을 좀 썩가지고 오겠소-》

헬메트모는 나를 너인들에게 맡기고 어디론가 달려갔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들은 강원도 창안탄광 노동자동무들이었다.

나는 비로소 내가 강기슭의 커다란 정자나무 그늘밑에 세워놓은 마차우에 누워있다는것을 깨달았다. 마차주인에게 인사를 하고싶었지만 아직 허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새벽빛이 비낀 강기슭의 여기저기에서 파르스름한 연기들이 차거운 대기우로 피어오르고있었다. 후퇴대오가 아침밥을 지어먹느라고 잠시 강기슭에 머무른 모양이었다.

내가 누워있는 마차주위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모여들어 붐비고있었다. 너무 사람들이 모여 흥성거리기에 나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 눈으로 보고싶은 동심비슷한 호기심이 동해났다.

안간힘을 써서 상반신을 조금 들어올린 나는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낱아빠진 초립모를 제껴쓰고 두툼한 돋보기를 낀 뻘뻘마른 50대의 체소한 로인이 반질반질 손때가 오른 저울에 물건을 달고있었다. 그는 마차의 주인이었다.

나는 그때에야 내곁에 방수포를 씌워 무두룩이 쌓아놓은 물건을 발견했다.

《아니 령감, 린색두 하시구려. 오르면 몇푼어치 더 오르겠대구 까짓거 절반쯤 폭 떼어놓구려. 내가 손해볼셈치구-》

령감이 돋보기밑으로 저울눈을 맞추느라고 추를 올려밀고 내려당기며 꾸물거리는데 답답해난 늙스그레한 아낙네가 웃으며 핀잔을 했다.

《쯔쯔... 물건을 그렇게 에누리하면 쓰나. 그래 저울이 있는건데...》

령감은 오히려 아낙네를 추궁하며 저울에 더 오

른 성냥갑만한 과자 한개를 기어이 떼어놓았다. 폐질을 쓰면서도 아낙네는 만족한듯 로인에게 깍듯이 인사까지 하고 떠나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차주위는 더욱 흥성거렸다. 부지런히 저울을 달아내는 로인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내배이고 돈보기는 만족하게 번뜩이었다.

《아이구 고맙기두 하지. 이런 란리통에도 장을 다 보게 뵈었으니-》

《글썸말이에요. 없는 물건두 없구 꼭 우리 고향 장거리갈수다.》

젊은 아낙네들이 희한해서 떠들어대고있는 틈에 봉산에서 온다는 작달막한 로친이 앞줄에 슬쩍 끼어들었다. 그리자 뒤줄에서 만만찮은 아낙네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고 결죽한 토배기상말을 섞어가며 법석 떠들어댔다.

나는 비로소 이것이 깍쟁이장돌뱅이마차인줄을 알았다.

미국놈과 생사판가리하는 이 엄혹한 시기에, 더우기 조국이 어려운 전략적인 후퇴의 길을 걷는 이 시각에 저 령감은 물건마차를 끌고 소개민들의 주머니에서 몇푼 되지도 않는 돈마저 털어내려고 전선길을 돌아치고있으니 이 얼마나 억이 찬 일인가.

갑자기 요란한 총성이 울렸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손에 기관단총을 든 인민군전사가 달려오며 어리둥절한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뭘하고있소. 대피하시오. 항공이요...》

마차주위에서 봄비던 사람들은 삼시에 뿔뿔이 헤어져 덩불숲과 바위뒤에 까투리처럼 몸을 틀어박더니 얼굴만 빠끔히 내밀고 어느쪽에서 비행기가 날아오는가 두리번거렸다. 마차는 무성한 정자나무 밑에 세워놓았기때문에 적기의 감시에 걸려들 녀려가 없었다.

《음, 여기에 인민군대도 있었군그래-》

왜서인지 장사치령감은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한개 대대가량의 군인들이 휴식하고있는 산기슭을 눈여겨 살펴보는것이였다. 귀청을 찢는듯한 폭음과 함께 머리위로 검은 구름처럼 적기들이 날아지났다. 뒤이어 등성이 넘어에서 천지를 뒤엎어놓을듯한 폭탄튀는 소리와 함께 빈도람통을 란타하는듯한 기총소사가 련속 대기를 어지럽게 뒤흔들었다. 하늘중천으로 삼단같은 불길과 검은 연기가 타래쳐올랐다. 도로주변과 골짜기에 남아있던 마지막 농가들과 작은 거리가 형체도 없이 타버리는것이였다. 바람이 이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코를 찌르는 화약냄새와 함께 뿌연 재티들이 날아왔다.

급히 아침식사를 끝낸 후퇴대오는 어느때보다 빠른 속도로 걸음을 다그쳐갔다. 대렬에서는 벌써 다리가 아프다고 흥얼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빨리 걷자고 아이들을 얼려대는 녀인들의 애타는 목소리가 가슴을 찢었다. 정세가 더욱 급변하여 영천리계선까지 빨리 빠져나가라는 지시가 떨어졌던것이다. 모두들 급한 걸음을 놓는데 로인만은 아랑곳없이 길옆에 마차 세워놓고 골짜기쪽을 기웃기웃 넘겨다봤다.

그곳에는 여기저기 쉬고있는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내가 재촉을 하자 령감은 할수 없이 말고삐를 쳤다.

마차가 떠나는 순간 옆골목에서 한개 분대가량의 군인들이 나오다가 마차를 띄어보고 세우라고 소리치는것이였다. 마차주인은 기다리고나 있었다는듯 별령한 코구멍으로 단김을 뽑으며 굵을 놓으려던 밤색호마의 고삐를 잡아채며 호령했다.

《와-와! 이놈의 말새끼, 군대어른들두 몰라보는 미물같으니...》

나는 구매자가 나타난것을 것처럼 좋아하는 령감의 꼴을 보다 못해 한마디 하고야 말았다.

《아바이, 정세가 아무리 어렵기로 군대동무들께까지 장사질 하는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형세가 어렵기에 더구나 봉사해야 하네. 젊은이.》

천연스레 대꾸한 마차주인은 벌써 방수포를 씌씩 벗겨내고있었다.

《아바이, 담배두 있습니까?》

장총을 멘 꺾두룩한 상등병이 물었다.

《있지 않구. 〈무궁화〉가 있네. 한데 자네는 담배보다 그 신발을 갈아신어야겠구만. 어이쿠- 발이 크기란. 45 문은 신어야겠군.》

마차주인은 장총을 멘 꺾다리상등병의 발에 노끈으로 칭칭 동인 거의 등때기만 남아있다싶이한 《쪽배》를 보고 혀를 끝끝 찼다.

《아바이, 정말 신발도 있습니까.》

상등병의 얼굴에는 어느덧 희한한듯한 웃음이 가득찼다.

《아마 특대호 45 문이 두어켤레 있을걸세. 찾아보자구.》

령감은 흘려내린 돈보기를 바로잡더니 쩡쨍거리며 짐짝속에서 신발마대를 끄집어냈다.

활기로운 흥정이 시작되였다. 담배는 어느새 밀창이 드러나고말았다. 전사들의 개별판매가 거의 끝나갈무렵 낡은 군복일망정 줄을 내어 단정하게

차려입은 대위가 헐떡거리며 달려왔다.

《좀 늦었으면 농칠뻔했군.》

대위는 제혼자말로 중얼거리더니 마차에 실린 물건 짝부터 두리두리 살폈다.

《아바이, 신발이 모두 몇켤레가 있습니까?》

《신발말인가.》

마차주인은 물건에 눈독을 들이는 대위의 우아해를 돋보기너머로 재빨리 훑어보더니 빈마대속에 든 장부책을 꺼냈다.

《가만있자. 로동화 마흔세켤레에 소가죽구두 신 다섯켤레에다가 돼지가죽구두 스물... 하나 넘어가 설랑에-너자고무신 열두켤레가 있수다.》

《좋습니다. 로동화 마흔세켤레와 가죽구두 일흔 여섯켤레를 넘겨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많이 살텐가?!》

휘둥그래졌던령감의 눈에는 어느새 만족한 웃음이 어리고 한쪽 손은 재빨리 마대속을 더듬어 한쪽 끝이 무드려져 구리줄로 동인 굵은 수판을 꺼냈다.

마차주인의 거미다리처럼 여위고 긴 손가락들이 마치 기계처럼 재빨리 주판알을 튀겨나가기 시작했다. 알이 굵은 주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돈을 계산하는령감의 주판튀기는 소리는 내 심장을 아프게 쿵쿵 짓조아놓는듯했다.

인민을 위해 피를 바쳐 싸우는 우리 인민군대에게 물건들을 원호하지는 못할망정 그들에게 돈을 받아내려 하다니... 나는 끝내 자제력을 잃어버렸다.령감의 먹살이라도 쥐여 흔들지 않고는 못견디게 속에서 불이 황황 일었다.

령감에게도 손톱끝만한 량심은 있었던지 주판튀기던 손을 주뭉치려했다.

《저, 사실... 이거 군대들에게는 거저 줘야 하는 건데...》

《아예 그런 말 마십시오. 우리는 인민의 군텐데 값이야 깎듯이 치려야지요.》

대위가 웃으며 손을 휘저어댔다.

《그렇다면 고마우이. 자네들에게 돈이야 웬걸 있겠나. 령수증이나 하나 써주게나...》

《거야 잘 써드립니다요. 아바이...》

대위는 기쁜듯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한장을 뺄 찢어내더니 령수증을 써서 로인에게 내밀었다.

령수증을 받아든 로인은 돋보기를 바로 걸더니 령수증을 멀찍이 띄워놓고 오래도록 꼼꼼히 살피었다.

《저 안됐네만 자네 증명서를 좀 볼수 없겠나-》

령감은 령수증에서 눈을 떼고 주뭉거리더니 무엇

이 못미더웠는지 군관의 증명서를 요구했다.

극도에 이르러 터질듯했던 나의 분격은 령수증을 쓰고 증명서를 확인하는령감과 대위의 얼굴이 얼마나 심각하였던지 대번에 주눅이 들어버렸다. 아마 대위는 부대의 후방일군인듯했다.

《어떻습니까? 틀림없습니까?》

증명서를 돋보기 가까이로 대보기도 하고 멀찍이 띄워도 보면서 증명서에 찍혀진 빨건 공화국국장을 확인한령감은 대번에 조골조골한 얼굴의 주름들을 모두 펴버릴듯 환히 웃었다.

《믿을수 있네. 이 전쟁이 끝나면 틀림없이 이 령수증대로 한푼도 굶지 않게 돈을 몰어야 하네.》

령수증을 그 무슨 귀중한 금품처럼 철के속에 깊숙이 건사한 마차주인은 서둘러 떠날 차비를 했다.

《아바이, 도와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대위는 말고삐를 틀어잡는 말라쟁이로인에게 거수경례를 붙였다.

나는 수치감에 속이 지글거려 마차에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당장 이 더럽고 파렴치한 장사치의 마차에서 뛰어내리지 않고는 못견딜 지경이었다.

허나 후퇴대오는 벌써 멀리 앞서갔고 더구나 걸을수 없는 내 처지는 어쩔단말인가. 울며 겨자먹기로 그대로 놀러앉아있을수밖에 없었다.

마차는 천천히 행길로 나섰다. 마침 하늘이 흐리어 항공습격을 받지 않고 무사히 갈것 같았다. 마차가 평탄한 행길을 달리기 시작하자령감은 두툼한 치부책을 꺼내더니 군대에 넘겨주어 이제는 훌쭉이 줄어든 나머지 물건들을 하나하나 대조해나가기 시작했다. 너자고무신, 양말, 타올수건따위로부터 시작하여 과질, 엿... 학생들의 공책에 이르기까지 없는것이 없었다.

나의 눈에는 마차에 실린 물건들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물건들은 신통히 국영상점에서 파는 상품들과 엇비슷했던것이다. 물론 장사치들의 상품도 나라에서 생산한것이니 그럴수도 있겠지만 나의 생각은 자꾸만 판데로 뻗어나갔다.

해방이 된지 몇해만에 겨우 제밥벌이나 한다던 엇장사군이 이런 기름진 마차를 끌고 전쟁판에까지 나와 장사질을 하다니... 이것은 분명히 나라의 물건을 야금야금 도적질해 치부하는 국가의 좀벌레가 분명하다.

그렇게 놓고보면 이 마차가 후퇴의 마지막대오에 늦게 들어선것도 수상쩍다. 나라와 인민, 조국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좀벌레들이 나라가 혼란된 틈에 국영상점쯤 터는것은 여반장이 아니겠는가.

나는 가슴이 후들거리며 턱이 덜덜 떨려났다.

몇번씩이나 꼼꼼히 물건들을 확인해보고난 령감은 치부책에 아무런 아무날에 물건들의 수량을 조사한 결과 틀림이 없다는 글을 꼼꼼히 써넣고는 그것을 빈 마대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마대의 아구리를 노끈으로 꿰조여매던 령감은 돈보기기너머로 나를 힐끔 쳐다보더니 눈을 둥그렇게 떴다.

《자네 상처가 또 도지는게 아닌가?》

령감은 터질듯한 지경에 이른 나의 격분을 다른 의미로 리해한 모양이었다.

《안되겠네. 자네 신색이 말이 아닐세. 뭘 좀 먹어 야지 큰일나겠네.》

령감은 짐을 해집고 흰 자루 하나를 찾아내었다. 그리고는 그속에서 보기에 도 군침이 도는 노란 참깨가 드문드문 박힌 말간 찹쌀엿을 꺼내놓았다.

죽 몇모금밖에 먹은것이 없는 나로선 당장 입안에서 군침이 돌고 위저머니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렸다.

령감은 엿판대기를 반듯한 마대우에 놓고 천천히 망치를 들어서 그것을 정확히 다섯조각으로 깨었다. 그중 두어조각만 남기고 도로 자루속에 집어넣더니 저울을 찾기 시작했다. 벌써 어지간히 눈에 익은 그 반질반질 윤기가 나게 닳아빠진 저울우에 엿조각을 올려놓은 령감은 눈금이 헛갈릴세라 돈보기를 바싹 저울눈금에 가져다댔다.

내 목구멍에서는 대번에 쓴물이 울컥 솟구쳐올랐다. 예로부터 한마차를 타면 천량친구라고 했는데 령감은 한자리에 앉아가는 동행자에게마저 돈을 짜내려는 심보였다.

눈금을 정확히 맞추느라고 애를 쓰는 령감의 좁쌀질사한 작은 눈이 돈보기렌즈에 확대되어 엄청나게 커보였다.

저 말라깽이령감은 한생 저 에누리없는 눈길로 저울눈을 숙여가며 야금야금 사람들의 등을 쳐먹었으리라. 이제는 그렇게 치부한 돈으로 마차까지 사서 국가의 물건에까지 서슴없이 저울질을 하리라.

《넣어두시오. 내겐 단돈 10 전짜리도 없수다.》

나는 극도에 이른 분노를 삭이느라고 애를 썼지만 끝내 리성을 건잡지 못하고 거칠게 내뱉었다.

《그럼 외상으로 먹게나. 외상으로야 소도 잡아먹는다는데 이까짓 엿 반근썹이야...》

장사군의 교활성이 이제는 이렇게 너그러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노여움도 타지 않는 령감은 저울눈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유순하게 대꾸했다.

《메시꺼워 못먹겠수다.》

령감은 저울뜨던 손을 놓고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나의 온몸값은 말속에서 내 기분을 바로 느낀듯싶었다.

《뭘, 내게 의견이라두 있나?》

로인은 섭섭하다는 눈치였다.

《의견은 무슨 의견이요. 난 그런걸 먹을줄 모르오.》

《원, 젊은이 성미가 화약불이군. 그렇다면 할수 없지-》

령감은 서운한듯한 표정으로 엿을 자루속에 도로 넣어버렸다.

마차는 한동안 싸늘한 침묵속에 내달렸다. 또각 또각 길바닥을 급히 두드리는 말발굽소리와 이따금 단김을 뿜으며 불어대는 요란한 호마의 울음소리가 침묵을 깨고있을뿐이었다.

《아바이, 내 한마디 물읍시다. 그래 아바이는 조국이 시련을 겪으며 이 후퇴를 하는 지금에 생각되는것이 없습니까.》

나는 어지간히 분노를 가라앉히자 령감에게 묻고 싶었던것을 터놓고야말았다.

령감은 대답대신 《썰-》 큰소리를 내지르며 말의 등때기에 채찍을 내려안겼다. 후둘쩍 놀란 황부루가 네굽을 놓기 시작했다.

《왜 생각이 없겠소.》

로인의 목소리는 울분이 섞인듯 가벼이 떨렸다.

《나라가 위험에 처했는데 아바이에게는 그렇게도 돈이 귀합니까.》

《나라가 이렇게 될수록 돈이 더 있어야지. 돈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거네.》

령감은 또다시 말을 세차게 몰아댔다. 마차가 길굽이를 돌아서자 바위코숭이에 자리잡은 항공감시초소에서 새빨간 견장을 단 전사가 달려나오며 소리쳤다.

《세우시오. 이건 무슨 마차요.》

마차주인은 놀란듯 말고삐를 휘여잡았다. 말은 앞발을 허공중에 번쩍 쳐들며 무서운 고함을 지르더니 뽕얇게 피어오르는 먼지속에 주저앉듯 멈추어 버렸다.

《항공이요. 어서 대피하십시오.》

전사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나는 그때에야 흐렸던 하늘이 거울알처럼 활짝 개여지는것을 보고 당황하였다.

마차주인은 대번에 얼굴이 납덩이처럼 새까매지더니 당황한 눈길을 허둥거리며 마차를 숨길만한곳부터 찾았다.

《월하오. 마차를 거기에 버리구 어서 뛰어내려 대피하시오.》

전사가 공포를 놓으며 또한번 소리쳤다. 벌써 검은 《그라망》 편대들은 웅글은 폭음을 지르며 도로 상공에 나타났다.

《그 짐들을 꼭 붙들어주게.》

로인의 얼굴이 무섭게 이그러졌다. 나는 령감이 그 몇푼 안되는 물건들때문에 분수없는 모험을 하려 한다는것을 느끼자 그만 등골로 식은땀이 쏙 내뿜었다.

《썩-썩-어-》

마차주인은 항공감시병이 손쓸사이도 없이 마차를 길 한복판으로 몰아대었다. 주변은 빈번한 벌판이어서 마차를 구원하자면 400여미터쯤 앞에 있는 굽인돌이의 은폐지까지 달려가야 한다. 폭풍처럼 먼지를 일으키며 손바닥처럼 드러난 길 한복판으로 마차를 몰아대는 마차주인은 늙은이라기보다 옹뎡스럽고 날렵한 새 역마수를 련상시켰다.

앞을 쏘아보는 로인의 돋보기가 번쩍거렸다. 여기까지 오는 머나먼 로정 한순간도 로인의 머리에서 떨어질날이 없던 색났은 초립모자는 벌써 어디로 날려갔는지 종적도 없었다.

나는 무섭게 흔들리는 마차에서 상품들을 그러안고 이리 던져지고 저리 태를 치며 모지름을 썼다.

나는 벌써부터 이 심상찮은 마차에서 내려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늦은 후회였다. 등골을 싸늘케 하는 비행기발동소리가 귀청을 찼다. 갑자기 고막을 갈기갈기 찢어내는듯한 양칼진 쇠소리가 울리더니 머리위로 대문짝만하게 커보이는 《그라망》의 퍼런 배배기가 지나갔다. 주위는 뜨거운 화염으로 휩싸이고 눈을 뜰수 없게 하는 지독한 화약내가 코를 찔렀다.

마차가 흠칫 멈추어서며 호마가 무섭게 비명을 질렀다.

(이제는 다로구나.)

나는 절망에 빠져 마차바닥에 머리를 처박았다. 허나 마차는 다시 앞으로 내달리고있었다.

또 한대의 《그라망》이 황부루의 머리를 스칠듯 급강하하며 날개밑에서 불을 내뿜었다. 양칼진 쇠소리를 지르며 몇알의 기총탄이 마차짐에 박히고 황부루가 내달리는 길바닥에 무수한 불꽃을 튕겨놓았다. 순간 고삐를 쥐고 말을 몰아대던 로인이 흠칫 몸을 떠는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착각인지 로인은 여전히 그 자세로 말을 계속 앞으로만 몰아갔다. 마차가 어느

새 은폐지까지 이르렀는지 몰랐다. 너무도 큰 락망에 잠겼던 나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야릇한 생의 희열을 느꼈다.

마차가 몇자 령감은 허둥지둥 네발걸음으로 나있는데로 기여오더니 기총탄에 구멍이 뚫린 방수포를 와락 잡아제겼다. 그는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물건마대들이 없어지지 않았는가 해서 정신없이 더듬어나갔다.

(인간이 어쩌면 저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우에서 움직이는 추한 《돈벌레》였다. 돈에 환장을 하면 사람이 제 죽을 것도 모른다더니 이 령감이 노는 꼴은 돈에 환장정도가 아니라 아예 실성해버린것만 같았다.

짐작들이 다행히 그대로 있는 모양인지 얼굴에 안도의 웃음을 짓던 로인이 갑자기 방수포우에 나가 쓰러졌다.

나는 그때에야 로인의 가슴에 난 부상자리를 발견했다. 더운 피가 흘러 기총탄에 뚫린 방수포를 붉게 물들였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바이, 정신차리시오, 아바이-》

나는 허둥지둥 로인의 옷웃을 벗겨내고 내가 가지고있던 비상봉대로 상처를 처치했다.

그때에야 로인은 겨우 눈을 뜨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늘 그의 눈에 매달려있던 돋보기는 어디서 잃었는지 보이지 않았다.

《고맙소, 젊은이...》

로인의 목소리는 가냘프게 떨렸다. 로인은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다.

이러단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 나는 무작정 로인을 돌쳐업으려 했다. 주변마일에 찾아가 구원을 청할 생각이였다.

그러나 로인은 가벼이 사양했다.

《난 이 마차를 떠나면 안되오. 젊은이, 우린 같은 마차를 타고 오면서 아직 통성할 짬도 없었구려.》

로인의 얼굴은 장사군답지 않게 무척 부드러워보였다. 나는 처음 로인앞에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다. 숨겨가는 인생살이에 성실해야 한다는 도덕적의무감이 작용했던 모양이였다.

《아바이, 전 영산리 인민위원회 서기장 김봉석입니다.》

《아니, 이거-》

숨이 꺼져가는듯싶던 로인의 얼굴에는 대번에 생기가 돌았다. 환희에 가까운 그런 기쁨이였다.

《그럼 이 마차를 자네에게 맡길수 있군그래. 이

마차는 연화군 삭녕면 소비조합 마찰세. 덕화리에 이동판매 나갔다가 거기서 후퇴지시를 받고...》

로인은 인민정권기관의 일군을 만나게 된것이 다행인듯 얼굴에 안도의 빛을 띄웠다.

《저 붉은 끈으로 묶은 마대에 작은 철괘와 저울이 있네. 가져다주게.》

나는 로인앞에 철괘와 저울을 가져다주었다. 그는 나의 부축을 받으며 몸을 반쯤 일으키더니 번호를 맞추고 철괘를 열었다. 그안에 네귀를 맞추어 쌓아올린 현금이 가득히 들어있었다.

《이건 소비조합 물건을 판 돈일세. 한푼도 굶지 않았어. 자네가 남은 상품들을 인민들에게 봉사해서 이 돈을 은행에 입금시켜주게. 이제 전쟁이 끝나면 그때 나라에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나. 부탁하네.》

로인은 말고삐를 내 손에 쥐여주며 눈을 감았다.

《아바이-》

나는 체소한 로인을 와락 그러안고 안타깝게 흔들어댔다.

《아바이, 죽어서는 안됩니다.》

아바이의 가슴을 쥐여뜯는 나의 가슴은 죄책감에 터져나가는듯했다.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 피에 젖은 로인의 가슴을 즐벅이 적셨다.

《젊은이, 그러지 말라구. 내가 자네에게 그런 일을 부탁했다구 노하진 않았나.》

겨우 눈을 뜬 로인의 얼굴에는 느슨한 웃음이 피어났다.

《나도 해방이 되자 남들처럼 더 버젓한 일을 해보고싶었어. 그러나 난 소비조합 판매원이 됐네. 나에겐 그이상 좋은 일이 없더군그래. 예참-그게 내 팔잔가보이-》

그토록 과묵하던 로인이 왜서인지 수다스러울 정도로 자꾸만 이야기했다.

《해방전에야 나같은 엽장수를 사람으로 보거나 했나. 그러나 장군님 품속에서 난 사람값에 들었네. 글썄 한갓 장돌뱅이던 내가 이런 좋은 마차를 타고 나라일을 보게 될줄이야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나. 내가 공화국정권하에 사람대접 받으며 버젓이 사는게 그리도 배아파 미국놈들이 전쟁을 일구었네. 그러나 어렵없어. 글썄 이 좋은 내 나라를 어떤놈이 빼앗는단말인가. 내 이 마차를 말일세-》

로인의 목소리에는 삶의 긍지와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인간의 존엄이 넘쳐나고있었다.

《그러니 자네가 날 도와주게. 돈보가마저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저울눈을 보겠나. 자네 나에게 저울

눈 깎쟁이라고 할테지만...》

나는 아바이의 손을 꼭 쥐었다.

《아바이, 안심하십시오. 이 마차는 굳건히 지켜질것입니다.》

로인은 마음이 놓이는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바이-》 나는 깜짝 놀라 로인을 그러안고 흔들었다.

그러나 그는 주름많은 눈기슭에 얹은 미소를 남겼을뿐 다시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가슴이 무너져내리는듯한 아픔을 느끼며 조용히 잠든 로인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머리맡에는 여전히 눈금들이 뚜렷하게 새겨진 윤기가 흐르는 저울이 놓여있었다.

나는 가슴이 저릿해왔다. 이름없는 평범한 공민이 성실히 지켜가던 저 저울 한 눈금- 조국이 준엄할수록 더더욱 드림을 모르는 깨끗한 저런 량심들이 나라를 굳건히 떠받들고있기에 조국은 그 어떤 시련도 뚫고나갈수 있는것이며 반드시 승리하는것이 아닌가.

나는 내가 누워있던 자리에 로인을 조용히 눕히고 그가 피로써 지킨 마차를 다시한번 꼼꼼히 확인해보았다. 그리고는 로인이 앉았던 마차의 앞자리에 나가 말고삐를 틀어쥐었다. 비장한 생각과 함께 가슴이 뻘뻘해왔다.

《쩌-어-》

황부루는 앞발을 번쩍 쳐들며 기운차게 울어대더니 어둠이 깃든 밤거리를 힘차게 내닫기 시작했다.

내가 후퇴대오를 따라잡은것은 그 이튿날 아침이었다. 사람들은 어느때처럼 나의 마차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벌써 이 마차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친근한 마차로 되었던것이다.

《아니 아바인 어데 갔어. 판매원이 바뀌지 않았소?!》

사람들이 불만스러운듯 웅성거렸다. 나는 모여온 사람들에게 여기로 오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느새 놀라운 그 소식은 대오의 끝에서 끝까지 퍼져갔다. 사람들이 달려왔다. 황아장수 덕부리며 마음좋은 창안탄광 로동자, 키작은 봉산로친, 인민군 후방대위도 두주먹을 부르쥐고 달려왔다.

나는 마차에서 뛰어내려 밀려드는 사람들을 제치하며 저도 모르게 뒤흔다.

《여러분, 이 마차에는 로인이 조국건설을 위해 마련해놓고간 돈이 있습니다. 우리는 머지 않아 파

피된 조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비분에 싸였던 사람들은 웅성이며 승엄하게 마차를 둘러쌌다.

《떠납시다.》 누군가 대오속에서 말했다.

사람들은 마차에 오르라고 나에게 길을 퇴워주었다. 나는 오늘부터 이 류다른 마차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다.

대오는 다시 떠났다.

포연은 아직 하늘을 덮었으나 나는 벌써 승리한 조국의 기쁨을 마차에 그대로 싣고가는듯 가슴이 벅차올랐다.

크지 않은 대오는 평화롭던 전쟁전처럼 여전히 흥성이며 흘러가고있었다.

다시 온 소조원

오필천

걸음걸음 따라서며 잘 가라
걸음걸음 멈춰서며 잘 있으라
바래움속에 떠나갔던 소조원동무야
그대 다시 올줄을 몰랐구나

마주잡은 손 놓지를 못하고
글썽히 젖었던 눈
그 정 못잊어 다시 왔느냐
소조생활 마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손을 마주잡으니
쌍였던 정이 되사는구나

꿈을 나누며 잠못들던 밤
그대 내 손을 부여잡고
고향에 뿌리내리라 하던 말
나에게 한 말만이 아니였구나
오늘에 생각해보니
내 이 땅에 뿌리내리리라
그대 자기 마음에 한 말이였구나

정녕 오늘에 다시 생각하니
농장의 전망도를 펼쳐놓고
고향을 꾸리는 주인되라 고무하던
그 말 우리에게만 한것이 아니였구나
내 농장의 주인되리라
그대는 자기 가슴에 한 말이였구나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왔느냐
밤에 낮을 이어 고심하던 새 기계
끝내지 못하고 떠나니 서운하다고 곱씹더니
푸른 배낭에 끼운 두루말이

완성된 도면을 안고 그대는 왔구나

농사를 위해 그리도 마음 깊으신
수령님 심려 덜어드리자고
번화한 도시 연구소를 뒤에 두고
농촌을 탄원해나선 소조원동무여

다시 보자 반가운 그 얼굴
다시 잡아보자 뜨거운 그 손
다시 안아보자 미더운 그 가슴
그 가슴에 소조과견장은 없어도
심장엔 세차게 펄럭이는
3대혁명기발이 펄럭이고있어

달리 부르지 않아라
과수밭에서 만난 농장원도
탈곡장에서 만난 작업반장도
길가에서 만난 아이들도
그 부름소리는 한마디
소조원동무!

오, 이끌어다오
어제날 다름없이 그 가슴에 나래치는
3대혁명 붉은 기발 높이 들어
사상혁명의 그 앞장에서
기술혁명의 선구자로
문화혁명의 기수로

세세년년 푸르러 설레이는
우리네 농장별과 함께
영원히 교대없는 소조원
농촌에 다시 온 미더운 동무여

탄전의 아침 외 1편

김덕선

입갱을 서둘러 또 하루
지심속 일터로 가는 첫 아침
오늘 계획을 꼭 완수해달라고
갱구에서 손을 흔드는 아이들아
너희들 손 덥석 잡으니
가슴 몽클해지는구나!

방금 집을 나설 때
내 목에 감기던 딸애의 손
여기서 다시 잡는듯
귀가에 속삭이듯 다정히 울리던
안해의 목소리
여기서 다시 듣는듯

용을 쓰는 착암기를 밀며 억세여지고
기우는 동발에 어깨를 디밀며 넓어졌기에
쉬이는 뛰놀지 않는 탄부의 가슴
이 아침 세차게 고동치나니

내게는 들려오는구나

들끓는 대건설장들이 달려오며
웨치는 목소리
조국이 또 하루 탄부에게 주는
크나큰 부탁!

이 부탁
가슴에 안지 않는다면
저 맑은 눈동자들에게
내 무엇을 줄수 있으랴

조국이 바라는것속에 어깨는 무거워도
마음은 탄발을 통채로 지고일어서며
딸이 웃고
안해가 웃는곳으로 발걸음 이어지나니

오 탄전의 아침이여
너는 날마다 레사롭게 찾아와도
탄부가 온 나라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국과 뜨겁게 이야기하는 아침이 아니냐

입갱전 한때

입갱전 한때는
파란 하늘밑-
산기슭에 새집들이한 집
쓰다듬듯 정겹게 쳐다보는 때

입갱전 한때는 그 누구던가
퇴근길에 학부형회의 꼭 간다고
딸과 손가락 걸고 다짐한 약속
다시금 마음에 간직해두는 때

입갱전 한때는 그 누구든
난장의 샘물 물병에 가득 채우며
출전하는 병사마냥
또다시 한모금 시원히 마셔보는 때

아 입갱전 한때는
땅위의 생활과
땅속의 생활을
하나로 이어놓는 때

동심에 맞는 개성적인 동요, 동시 창작에 대한 몇가지 고찰

리효운

새롭고 특색있는 시상을 바로쥐고 참신한 시적발견을 하는것은 개성적인 동요, 동시 창작의 기본고리이다.

아동시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롭고 특색이 있는것을 발견하고 개척하려는 시인의 탐구정신은 창작에서 그의 개성으로 표현된다.

동요, 동시에서도 특색이 있고 개성이 살아야 볼 재미가 있고 아이들을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그러므로 동요동시에서 창작적개성은 생명과 같이 귀중한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새롭고 특색이 있는 시상이 있어야 개성적인 동요, 동시를 창작할수 있다.

시인은 현실생활을 체험하고 탐구하는 과정에 료다르게 양양된 시적인 충동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시적계기이다.

시적계기를 받아안게 된 시인은 그것을 파고들어 사색을 심화시키면서 사상정서적알맹이를 찾아쥐게 된다. 시의 핵을 찾아진 시인은 시를 창작하지 않고서는 건딜수 없는 양양된 사상정서적충격을 느끼면서 동요, 동시의 전모에 대한 초보적이면서도 전일적인 형상적안을 가지게 된다. 바로 이것이 시상이다.

다시말하면 시상이란 동요, 동시를 쓰기 위한 시인의 착상, 시적계기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을 파고들어 종자를 발견하고 그에 기초하여 동요, 동시를 쓰기 위한 표상적인 생동한 안을 가지는데 이르는 구상을 의미한다.

시상을 잡는다는것은 현실체험에 기초하여 동요, 동시를 발견하고 구상을 초보적으로 확정한다는것이다.

시인은 시상을 심화시켜나가면서 동요, 동시의 구성을 비롯하여 표현수단과 수법에 이르기까지 시상에 맞는 시적발견을 이룩하기 위하여 탐구를 계속한다.

시인은 새롭고 특색있는 시상을 바로쥐고 시적발견을 함으로써 아이들을 감동시키는 특색있는 시적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바로 이것이 아동시문학작품창작에서 표현되는

시인의 개성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작가의 창작적개성은 작품에서 나타나는 작가의 얼굴이라고 하시면서 작품의 주제와 사상, 구성, 묘사 등에서 다른 작가와 구별되는 특징이 그 작품에서 나타난 작가의 개성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바로 이런 개성적인 동요, 동시의 형상은 현실생활에서 새롭고 의의있는것을 발견하고 개척하는 시인의 개성적탐구정신의 귀중한 열매로써 작품의 사상에술성을 높이며 아동들의 심장을 잡는 형상의 감화력을 강화하게 한다.

새롭고 개성적인 시상과 시적발견은 그 어떤 《재간놀이》이나 《령감》의 표현, 개인적인 취미와 손재간으로 이루어질수 없다.

개성적인 시상과 시적발견은 시인의 사상정치적립장과 태도, 미학적견해와 문화예술수준, 생활체험과 창작경험, 예술적취미와 기호 등 제반 요인들이 시적형상창조에서 전일화되어 개성적으로 발현된것이다.

시인은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생활을 체험하고 관찰하면서 거기에서 가장 본질적이며 의의있는것, 시대적지향과 인민적념원에 부합되는것, 가장 미적 가치가 있고 매력을 끄는것, 감정정서의 파문을 일으키며 심장을 뒤흔드는것 등을 찾아내는데서 저마다 파악하는 내용과 분석평가의 기준과 각도가 다르다. 뿐만아니라 그것을 자기식으로 보고느끼며 자기의 고유한 목소리로 표현함으로써 특색있는 시적형상을 창조하는 솜씨를 보여준다.

여기에 세편의 동요가 있다.

동요 《만경대는 꽃동산》(운동향), 동요 《내가 단 꽃리봉》(림금단), 동요 《봄을 선잠 알려줘요》(민병준)는 같은 대상인 꽃을 노래하면서도 각이한 개성적인 세계를 보여주고있다.

동요 《만경대는 꽃동산》에서는 언제나 봄동산인 만경대를 노래하고있다.

언제나 봄동산인 만경대에는 꽃들이 만발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향집은 꽃속에 솟았으니 피플새도, 나비도 어서 와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자고 만경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있다.

만경대는 꽃동산 언제나 봄동산
 원수님의 고향집 꽃속에 솟았네
 우리도 고운 꽃 방실방실 피는 꽃
 원수님 품속에 우리 함께 춤추자
 (동요 《만경대는 꽃동산》)

서정적주인공인 아이는 자기들도 방실방실 피는
 고운 꽃이니 원수님의 품속에서 춤추자고 기쁨과
 즐거움, 환희와 행복감에 넘쳐 노래하고있다.

꽃속에 솟은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어린이들이 자
 신을 아버지원수님의 품속에서 방실방실 핀 아름다
 운 꽃으로 감수한 여기에 현실생활을 특색있게 보
 는 시인의 개성적발견이 있다.

다른 시인은 소녀가 단 리봉을 나비도 따라오는
 꽃에 비겨 노래하고있다.

학교 갔다 오는 길
 꽃나비 팔랑팔랑
 내 머리에 빨간 리봉
 꽃인줄 아나봐요

원수님 보내주신
 꽃리봉 곱고고와
 어디 한번 앉아보자
 자꾸자꾸 따라와요
 (동요 《내가 단 꽃리봉》)

이 동요에서는 아버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붉은
 리봉이 꽃인줄 알고 나비도 앉아보자고 자꾸자꾸
 따라온다고 천진란만하게 아이를 노래하고있다.

동요에서는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의 사랑이 깃
 든 붉은 리봉을 고운 꽃으로 동심적으로 시화하였
 다.

또하나의 다른 동요를 보자.

꽃보다 먼저
 봄차비하고
 나비보다 먼저
 봄소식 알려줘요

원수님 안겨주신
 우리 새웃은
 봄동산에 선참 핀
 예쁜 꽃이지요

...

울봄에도 애들한테

뒤졌다고요
 새봄맞이 서두르며
 피어난대요
 (동요 《봄을 선참 알려줘요》)

이 동요에서 서정적주인공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서 안겨주신 사랑의 새웃은 봄동산에 선참 핀 예쁜
 꽃으로 발견하고 그것이 온 나라에 위대한 은정을
 받아안은 기쁜 소식을 알려준다고 자기 목소리로
 참신하게 노래하고있다.

같은 꽃을 형상하면서도 그것을 위대한 은정이
 깃든 선물웃을 온 나라에 봄소식으로 선참 알리는
 꽃으로 포착한것은 새로운 시적발견으로 된다.

이처럼 시인들은 꽃을 노래하면서 어린이들의 기
 쁨과 긍지, 행복감을 자기식으로 특색있게 토로하
 는 동시에 그것을 개성적인 정서로 다양하게 노래
 하고있다.

세편의 동요동시는 같은 대상을 놓고도 의의있는
 것을 독창적으로 찾아내고 특색있게 표현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시인들의 개성적인 시상이 있는것이
 다.

개성적인 시상과 시적발견은 참신한것을 발견하
 고 그것을 특색있게 표현하는 예술적사고방식에서
 도 표현된다.

시인은 생활의 구체적인 형식에 의거하여 그가
 생활에서 받은 감정정서를 노래함으로써 생활의 본
 질과 의의 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취한
 다. 다시말하여 아동생활과 현실에서 새롭고 의미
 깊은것을 정서적으로 감수하고 특색있는 형상을 창
 조하는 사색의 독특한 형식을 취한다. 이때에 시인
 은 아이들의 현실생활과 정신세계를 미적감정정서
 로 인식하고 감성적으로 사고한다. 시인은 예술적
 상상력을 발동하여 그것을 생활의 구체적이고도 생
 동한 형식으로 재구성하고 정서적이며 매력있게 창
 조해낸다.

시인은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하면서 그것을 기
 계적으로 복사하거나 재현하는것이 아니라 생활과
 현실이 그에게 환기시킨 가장 정수적인 사상감정과
 심리정서를 동심적으로 주정화하여 토로하며 예술
 적환상의 나래를 펴고 특색있는 시적형상을 재창조
 한다.

예술적사고방식에서의 개성적차이는 시인이 사
 상미학적리상과 생활현실과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
 로 대하며 어떻게 생활현상을 선택하여 자기식의
 감정정서로 감수하며 표현하는가 하는데서 특징적
 으로 나타난다.

동요 《공작새야》(림금단)에서 서정적주인공

은 비단치마를 활짝 펼친 화려한 공작새를 노래하면서 아버지원수님께서 우리 아동들을 귀엽게 여겨 보내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옷과 대비적으로 형상하고있다. 아이들은 아름다운 선물옷을 철따라 갈아입으며 행복하게 지낸다고 자랑하고있다.

그러나 공작새에겐 옷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한벌 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수령님과 당의 은덕으로 아름다운 새옷을 철이 바뀔 때마다 갈아입으면서 즐겁게 지낸다고 긍지높이 노래한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 새세대들의 행복상을 풍만하게 일반화한 이 동요의 시적발견과 특징이 있다.

창조적사색과 예술적사고는 혁명적수령관을 핵으로 하고 거기에 뿌리내린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하여 심오하게 이루어질 때 더욱 의의있는것으로 된다.

실례를 들어보자.

아버님의 손목잡고
오를 때마다
마중으며 웃어주던
둥근 보름달

아버님과 나란히
앉았던 바위
그밤처럼 정답게
어루만져요

별빛 한점 안비치는
감옥에서도
광복의 날 그려보실
우리 아버님
(동요 《만경봉의 둥근달》)

동요 《만경봉의 둥근달》(김청일)은 만경봉의 보름달을 노래하고있다.

나어리신 원수님께서 아버님의 손목을 잡고 만경봉에 오르실 때마다 마중나온 보름달은 웃어주었다.

허나 지금은 아버님께서 별빛 한점 비치지 않는 감옥에서 광복의 새날을 그려보며 투쟁하고계신다.

동요에서는 정치적안목이 비상히 높으시던 유년시절의 원수님께서 아버님을 도우시려는 충성의 일편단심을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아버님의 크신 생각
환히 열리게
그 달을 따다가

걸어드릴가

얼마나 동심적이면서도 혁명적인가!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손수 따다가 캄캄한 감방에 걸어드릴가! 이 얼마나 뜨거운 충성과 효성이 깃든 지향이며 열망인가!

저 밝은 달을 따서 걸어드리면 조국광복의 위대한 구상은 더 환히 트이고 아버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가!

새로운 시적발견으로 가슴설레이게 하는 이 동요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고있는 새 세대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사람들을 숭고한 세계으로 끝없이 이끌어간다.

동요 《도토리 왕개미》(문동식)는 유년시절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내면세계를 높은 사상에술적경지에서 노래한 작품이다.

동요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나어리신 시절에 착하고 부지런하며 서로 돕고 이끄는 개미들을 기특하게 여기시여 도토리로 왕개미를 만드신 뜻깊은 이야기를 동심적으로 진실하고 재미있게 노래하였다.

새까만 작업복에
허리 질끈 조여매고
쉬지 않고 일하는
개미네 착한 동무

서로 돕고 이끄는
개미들이 기특해
웃으며 보시던
지도자선생님

노래만 부르며
놀고먹는 매미도
나풀나풀 춤만 추는
게으른 나비도

부지런한 일군을
어서 와서 보라고
도토리로 크게크게
왕개미 만드셨지요

짙막한 동요이기는 하지만 나어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특한 통찰력과 심원한 예지, 숭고한 정신세계를 의미깊게 노래하고있다.

이 동요의 주제사상은 동심세계를 자연스럽게 노래한 특색있는 시적형상을 통하여 힘있게 흘러나오

고있다..

이 동요는 사상을 직선적으로 옮겨놓거나 아동생활과 아이를 도식적으로 재단하거나 모해하며 형상을 투박하고 조잡하게 하는 현상들에 대하여 일정한 시사를 주고있다. 현상을 투박하고 조잡하게 하는 현상들에 대하여 일정한 시사를 주고있다.

이처럼 독창적인 사상과 시적발견은 높은 정치사상적안목에 바탕을 둔 시인의 창조적사색과 개성적 탐구에 의하여 실현된다.

또한 새롭고 독창적인것을 발견하고 개척하는 시인의 탐구정신은 언제나 높은 정치적인안목으로 현실생활을 분석평가하는 그의 능력에서도 표현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신념화하고 세계를 철학적으로 깊게 포착하는 시인의 높은 관찰력과 대담하고 독특한 창조적사색이 동반될 때 동요동시창작에서는 독창적인 사상과 시적발견을 이룩할수 있다.

동요동시에서의 새롭고 개성적인 시적형상은 또한 찾아진 시적종자를 특색있게 꽃피워나가는 창작숨씨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예술적기량은 시인의 정치적식견, 일반화와 개성화의 능력뿐아니라 시의 구성, 형상수단과 창작수법의 활용, 색깔이 밝고 락천적이고 쉬운 어휘와 표현, 문장을 능란하게 구사하는 특색있는 창작숨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동요동시에서 독창적인 시적발견이 구현된 현상을 창조하자면 동심에 맞는 생활을 반영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시적알맹이를 다양한 시적구성과 어린이다운 톨동과 박자를 가진 운물로 시형상을 창조해야 한다. 가진 운물로 시형상을 창조해야 한다.

맴맴맴
매미우는 숲속
줄줄줄
샘물솟는 돌틈

어서 어서 찾아내기
보물 찾아내기
소년단 야유회

매미 우는 숲속
샘물솟는 돌틈
누가 먼저 찾나
내가 먼저 찾지

이것은 이미 1957 년도에 모란봉에서 어린이들의 야유회에서 불리워진 유희동요 《보물찾아내기》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동요에 대하여 어린이가 노래를 잘 부른데도 있지만 노래가 현실에 맞으니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보물찾아내기》는 꼭도 좋고 동요도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이 유희동요에서는 샘물이 줄줄 흐르고 매미가 정답고 구성지게 노래하는 공원의 푸른 숲속에서 행복한 야유회를 마음껏 즐기면서 보물찾아내기 놀음을 서두르는 즐거운 아이들의 생활과 천진란만한 아이를 톨동과 박자에 맞는 운물로 간명하게 표현하여 진실하고 락천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때에 이미 유희동요창작에서 언제나 준수하여야 할 강령적가르치심을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유희동요는 아이에 맞게 생활이 반영되고 놀음의 톨동과 박자에 맞게 운물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면서 색깔이 밝고 락천적이고 쉬운 어휘로 어린이들이 리해하기 쉽게 씌여져야 한다고 하시였다.

참신하고 값진것을 아동들의 미감과 감흥에 어울리는 시적구성과 시어와 운물로 창조한 숨씨를 보여 준 명작가요로서 《어데까지 왔니》를 들수 있다.

항일혁명시기 창작된 혁명가요인 아동가요 《어데까지 왔니》는 시의 구성과 운물이 동요, 동시에서 참신한 사상과 시적발견을 동심에 맞게 구현하는데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이 동요는 유격구 아이들의 혁명적인 집단생활을 그들의 학습, 훈련, 유희와 결부시켜 동심적으로 흥미있게 노래함으로써 집단주의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기교는 구성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다.

어데까지 왔니 마을까지 왔다
어데까지 가려니 학교까지 간다
무엇하러 가려니 공부하러 간다
누구하고 가려니 우리모두 간다

이것은 이 혁명적인 동요의 제 1 절이다.

작품은 유희동요의 형식을 활용하여 어데까지 왔니라고 첫 물음을 제기하고 마을까지 왔다고 대답을 준 다음 다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받아물고 대답하는 식의 시적구성으로 동요의 내용을 발전적으로 심화시켜가고있다.

이 작품에서는 아동들의 사고와 사상감정이 끊임없이 발동되고 계발될뿐아니라 그들이 흥겹게 동작하도록 형상수법을 문답식으로 구사한데서 독특한

창작솜씨를 보여주었다.

그뿐아니라 동요의 시구들과 표현들이 친숙하고 평이하게 구성되어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박자와 틀동에 맞게 쉽게 부를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흥겨운 생활감정에 잘 알맞는다.

동요동시창작에서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세계는 동심과 떼어놓고 생각할수도 존재할수도 없다.

동요동시에서 특색있는 시적형상은 아이들의 생활과 내면세계를 어떻게 파고들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탐구심과 창조적묘리에 의하여 구현된다.

동요동시창작에서 특색있는 사상과 발견이 따로 있고 아동들의 정서를 그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노래하는 시인의 재능과 개성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창작에서 량자는 불가분리의 통일을 이루고있다.

동요동시창작에서 개성적인 발견은 동심에 침투하는 시인의 창조적사색과 창작적재능을 통하여 나타나며 시인이 노래하는 아이는 독창적인 시적형상 속에 구현되어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동요, 동시는 주체사상으로 교양육성된 새세대의 감정정서를 동심적으로 시화한것이다.세대의 감정정서를 동심적으로 시화한것이다.

동요, 동시는 아이를 깊이 체득한 시인이 주견과 주정을 가지고 개성적으로 토로한것이다. 시인은 현실과 생활이 환기시킨 사상정서를 동심적으로 정화하여 노래함으로써 우리 시대 아동들의 주도적사상감정을 일반화한다.

여기에서 아동시문학이 성인시문학과 다른것은 세계를 동심적으로 감수하고 자기것으로 소화한 서정적주인공이 그것을 아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부합되게 표현한것이다.

서정적주인공은 아동들의 눈으로 생활을 보고 아동들의 심장으로 현실을 느끼고 아동들의 지성으로 세계를 사색하고 분석평가하며 그것을 어린이처럼 천진관만하게 표현한다. 세계를 대하는 시인의 개성적자세와 립장, 창작가적자질과 기호 등은 동심적이면서도 그만이 가지고있는 고유한 능력과 재간, 지성적, 정서적 재능으로 발양된다.

우리가 동심에 대하여 말할 때 그들이 세계에 대한 체험이 적고 지식정도도 어리며 사고도 비교적

단순하다는 등 일련의 특성을 넘두에 둔다.

그러므로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과 생활체험이 있어야만 리해할수 있는 자연과 사회와 인간에 대한 사상정서적굴곡과 운동, 분석과 종합, 사고와 추리를 요구하는 사색과 복잡한 추상, 심오한 식견과 논리를 요구하는 사물현상들에 대한 리해력이 허약한것만큼 아동들의 연령심리적특성을 응당 고려하고 작품을 써야 한다.

심리와 사고가 단순하고 직관적이라는 특성, 많은 의문을 가지고 새것을 알고 배우려는 호기심, 끊임없이 무엇인가 하고싶어하는 욕망과 지향, 모방과 모범에 대한 갈망, 영웅심과 모험심, 다양한 상상력과 환상, 새것에 대한 지향과 호기심, 천진성과 솔직성, 량만과 락천성 등 아동들이 지니고있는 일련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인은 언제나 동요동시를 창작하면서 새 세대들의 주체의 혁명관확립에 이바지되는가, 인식교양적가치가 있는가 하는 관점과 립장을 견지해야 한다.

시인은 언제나 아이들보다 더 높고 더 넓은 식견과 안목으로 생활과 현실을 분석판단하여 거기에서 새롭고 진리로 되는것, 본질적이고 의미가 깊은것을 밝혀낼줄 알아야 한다.

시인은 아이를 받아들인다고 하여 자기의 자세와 립장, 리성과 열정, 분석력과 사고력 등을 약화시키거나 버린다면 동요, 동시는 현실생활을 예술적으로 전형화할수 없으며 주체시대 새세대들의 주도적사상정서를 노래할수 없다.

시인은 우리 아이들의 고유한 지향과 념원, 감정정서를 그들의 연령과 심리, 특성에 맞게 개성적으로 노래하여야 한다.

아동시문학의 력사는 시인들의 끊임없는 현실체험과 대담한 창작적탐구로 독창적이며 개성적인 시문학세계를 개척해나가는 과정에 발전하여왔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시인은 당의 주체적문예정책의 기수로서 개성적인 아동시문학창작을 통하여 주체의 아동시문학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나갈 때 새 세대들의 심장에 오래 남는 작품을 창조할수 있을것이다.

통일의 념원 답아 외 1편

김형준

념원중 념원이
소원중 소원이
조국통일의 그날이어서
새로 일떠서는 거리이름도
통일거리라 지어 부르는가

허허벌판 락랑벌에
함박눈 내리던 그날에 벌써
90년대 하늘가에 울려퍼질
통일의 환희 발파에 실어
새 거리의 탄생을 알린 거리-

가슴가슴에 칭칭 돌기짓던
조국통일의 열망을 풀고풀어
층층에 고여 건물은 일떠서고
남녘형제들 불러 그림던 그 마음으로
남으로 뻗은 나의 건설장 통일거리

달아오른 용접기 틀어진채
휴식참 조립공들 모여앉아
이 거리에 불리워질 이름을
환희에 넘쳐 지어본다
기쁨에 넘쳐 불러본다

나의 일터 파원 기슭은
《상봉동》이라 부를수도 있으리

높이높이 오르면 남녘형제들 보일것만 같아
마음속으로 부르며 찾으며
한층두층 높이높이 일떠세운 집

《형제동》이라 부를수도 있으리란다
만나도 헤어져도 한혈육인 남녘형제들
통일의 첫 사절로 맞이하자고
방도 널러리 세네칸 지었으니
온 겨레를 불러들이고싶은 마음이어

《만수동》, 《축복동》이라 부르자누나
헤어져산 가슴 아픈 나이
뚝 떼여 팽개치고
통일의 세월속에 오래오래 살아갈
그 념원 층층에 고여있거니-

아 거리의 이름 지어보는 마음속에
끓어번지는 통일의 환희여
좋다! 통일거리의 이름들이여
확신에 넘친 통일의 날이어

자리차고 일어난 젊은 용접공
온 나라에 거리의 이름답아 편지를 쓰듯
용접봉을 펜처럼 비껴들고 불꽃날리니
그 편지 남녘형제들께 보내듯
기증기팔에 실린 벽체 하늘을 나누나!

목 마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한 해외동포를 대신하여-

내 철없던 어린 시절
아버지가 태워준 목마우에서
너무좋아 손벽치며
-평양이 보여요 하고 웨쳐
불같은 눈물 쏟으며
-통일의 날이 보인다! 한소리쳐

아버지의 마음 눈물로 적시곤했더니-

내 다 자란 오늘
평양시민들이 태워준 목마우에서
온 겨레를 울렸단말인가

식민지 땅 남녘이 태워준
《이민선》의 갑판우에서
노예의 눈물 갑판을 녹이며
목메여 불러보던 조국아
분렬된 내 조국 내 민족아

분렬된 조국의 파편되어
머나먼 타국에 뿌려진 나
오늘 통일대오의 물결속에서
-통일아 어서 오라- 하고 웨치니
그날의 목소리 통일의 함성속에 실려오는가

아버지의 목마우에서
마음속으로 그려보던 평양이...
녹슨 갑판우에서 불러보던 조국이...
하나된 모습으로 보여오는
통일마중 목마우에서 내 생각하나니

아하! 정녕 겨레들의 어깨우에
손님으로 태워준 목마가 아니구나
너, 나 우리모두 조국을 목마에 태워
분렬의 장벽을 헤쳐갈 때
조국이 하나됨을 가르쳐준 목마구나

독자편지

흥미있게 읽은 소설

저는 《조선문학》(1990년 5월호)에 실린 단편 소설 《새로운 기슭에서》(한웅빈 작)를 매우 흥미 있게 읽었습니다.

이 소설의 종가와 작가의 미학적주장부터가 새롭고 발견적입니다.

...여기에 청년건설자들이 자리잡고있는 간석지가 있습니다. 한사람은 이 간석지를 자기가 영원히 자리잡고 살 주인된 마음으로 생각하고있는데 다른 한사람은 간석지라는 《러인숙》에 잠시 들린 프 내기길손처럼 생활하고 행동하고있습니다. 손님은 자기가 찾아온 집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영원히 살집이 아니기때문에 불편을 며칠 참으면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자기의 생활에 대해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불편해도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하며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주인은 참다운 의미에서의 주인이 아닌것입니다.

바로 주인다운 립장에 설 때만이 현상태의 부족점에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혁과 혁신을 요구하게 된다는것, 바꾸어말해서 현상태에 만족하고 현실에 주어진대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활의 주인이 아니라는것, 여기에 이 작품의 종자가

있으며 또 그 심오한 철학적주장으로 하여 작품은 깊은 감명과 여운을 남기고있는것입니다.

작가의 주장을 중심에서 체현한 주인공 강일호의 형상은 매혹적입니다.

강일호의 형상은 다른 어느 작품에서도 본적이 없는 류달리 독특한 개성미를 지니고있습니다.

그리고 소박하고 부지런하고 웅심깊은 처녀인 문희와 발랄한 그의 동생 문남이, 인정 많고 과묵한 조장과 《삼촌들》(작업조청년들의 발명), 부정인물인 리신철과 직장장 등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다 개성적입니다.

이밖에도 소설은 기발하고 재치있는 세부묘사와 발견적인 대사들, 주인공이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그 처녀》와 관련하여 새롭게 시도한 량만주의적 수법 역시 독자들의 흥미를 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됩니다.

강일호같은 시대의 참된 주인공으로 살리라. 리신철이 같은 손님으로는 결코 되지 말자! 이것이 저의 결심입니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대타령고등학교
교원 리 희

고전소설 《백학선전》의 사상예술성

박춘명

고전소설 《백학선전》은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읽히우고있던 작품들인 《정수정전》, 《김진옥전》과 더불어 조선고전문학선집 18권에 수록되고있으며 오늘의 독자들이 읽기 편리하게 윤색본까지 첨부되어있다.

《백학선전》(김진태 윤색)은 다른 많은 고전소설들이 그러한것처럼 작가의 이름이 밝혀져있지 않으며 창작년대도 명백치 않다. 그러나 이 소설에 흐르는 사상감정으로 보아 창작년대는 고전소설들이 많이 창작되고있던 18세기말 19세기전반기로 짐작된다.

이 소설의 윤색자는 원본이 갖고있던 표현이나 구성에서의 부족점을 수정보충하면서도 원본의 기본사상과 고전소설로서 특성을 잘 살려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예술은 민족과 동떨어진것이 아니며 민족의 력사와 련결되어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일정한 력사적시대의 사회제도와 사람들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생활풍습 같은것을 반영하고있습니다.》

문화예술은 민족의 력사와 련결되어있으며 시대와 제도, 인간생활을 반영한다.

고전소설 《백학선전》도 봉건말기의 시대력사, 사회형편을 반영하고있다.

이 소설의 주제는 넓은 의미에서 중세소설작품들에서 흔히 보는 애정군담부류에 속하는 일반적인 문제성을 포괄하였다. 그러나 엄밀한 각도에서 분석하면 이 소설에서는 봉건말기에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던 시대력사적인 문제들을 주제로 설정하고있으며 이시기 인간들의 생활적지향을 반영하고있다는것을 파악할수가 있다. 다시말하면 《백학선전》에서는 봉건말기에 절박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었던 봉건타파를 주제로 설정하고 동시에 근대사회에로 지향하는 인간들의 사상적지향을 반영하였다.

작품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조은하와 류백로의 곡절많은 사랑속에서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이 소설에는 참된 인간들의 사랑문제와 의리, 도덕관이 동시에 반영되고있다.

소설이 봉건말기의 사회력사적인 문제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이 시기의 사람들에게 애독되었으며 우리 나라 중세소설문학의 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한 성과작의 하나로 지목되게 되었다.

이 소설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공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지적할것은 봉건말기에 조성된 시대상을 예술적으로 잘 형상한것이다.

이 소설의 중심주인공들인 류백로와 조은하는 새롭게 자라나는 봉건말기의 세대들로서 봉건적인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것을 지향하는 성격적인 바탕을 갖고있는 인간들이었다.

이러한 성격적인 특징은 두사람의 사랑을 통해 뚜렷이 나타난다.

류백로는 량반가정출신으로 착실하게 앉아서 글공부를 하여 과거에 응시하라는 부모의 말에 글공부만이 아니라 문무를 겸전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서 무예를 익히는데 전심하기도 하며 산천경계를 찾아 여러곳을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부모의 승낙도 받지 않고 조은하를 만나 그와 일생을 언약하며 그 신표로 세전보물인 백학선을 처녀에게 준다. 조은하역시 그 백학선을 혼연히 받아들인다.

류백로와 조은하의 이런 자유로운 사랑관계는 논의할 여지없이 봉건분리도덕에 어긋나는것이며 자유로운 생활을 지향한 봉건말기의 인간들의 성격적 특질이었다.

봉건말기의 시대적지향은 또한 봉건지배계급에 대한 비판의 감정, 반봉건적인 사상감정의 발현이었다.

소설에서는 대감자리에 있는 악질적봉건관료 최국량을 등장시켰으며 그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봉건관료들의 반인민적본성과 악랄성을 폭로규탄하였다.

최국량은 봉건말기 나라의 정치를 어지럽히던 간신이며 자기의 직위를 사리사욕을 충당시키는 수단으로, 인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탐학관료였다. 따라서 최국량에게는 정의와 량심, 애국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인간이었기에 최국량은 자기의 양자와 조은하의 혼약을 성사시키려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정치적인 보복을 가하여 마침내는 그의 가정을 파산시켰고 조은하의 부모들은 로상에서 류랑하다가 객사하게 된다.

이것만이 아니다. 후에 류백로가 젊은 관료로 등장하여 대바른 말을 하자 그를 경원시하다가 류백로가 다름아닌 조은하의 약혼자이며 그로하여 자기의 양자와 은하의 혼약이 이루어지지 못한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점차 살해할 모략을 꾸미기 시작한다. 최국량은 나라의 중요직책을 맡은 신하로서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를 물리칠 생각을 할 대신 침략자를 무찌르기 위하여 자원출정하는 류백로와 같은 애국적인 인재를 죽여버릴 생각을 하며 80만의 침략군이 쳐들어오는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3만의 군사를 출동케 하고 그것마저도 군량을

제대로 대여주지 않아 나중에는 3만의 군사가 모두 굶주려 쓰러지며 류백로는 적들에게 실신상태로 포로되고야 만다.

이와 같이 최국량은 봉건말기 정권쟁탈만을 일삼으면서 나라의 운명, 인민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던 반동적인 봉건관료들의 전형이었다.

조은하는 량반의 출신으로 초기에는 다만 시너를 데리고 산수경개나 감상하는 정도에서 더 전진 못한 규중의 처녀였다. 그러나 근대사회에로 지향하던 봉건말기의 시대적분위기는 조은하의 성격을 여기에만 머무르게 하지는 않았다. 그는 초면의 서생인 류백로가 백학선을 주며 사랑을 요구하였을 때는 혼연히 받아들이며 또 이것을 일생의 신의로 간주하면서 후에 권세가 도도한 최국량의 가문에서 청혼을 하여왔을 때는 이를 단언히 뿌리친다.

여기서부터 점차 각성하여가는 젊은 세대로서의 조은하의 성격이 나타난다. 그는 최국량의 폭압마수를 피하여 정처없는 류량의 길을 걸다가 나중에는 부모를 잃어버리나 굴하지 않으며 남북을 하고 다시 길을 떠난다. 그러다가 자기 아들이 잃어버렸다는 백학선을 은하가 갖고있다는 소문을 들은 다음 체포하여 당장 백학선을 내라고 위협하는 자사 류대홍(류백로의 아버지)앞에서도 굴하지 않으며 여러날동안 옥중살이를 하면서도 끝내 백학선은 내놓지 않는다.

특히 조은하의 성격형상에서 인상깊은것은 그가 은파선생을 만난 다음부터이다.

그는 산중의 도사 은파선생으로부터 무예를 익힌 후 다시 서울로 오다가 류백로가 전장에서 패배한 소식을 듣고는 당당한 그의 안해가 되며 황제를 찾아가 자기가 류백로를 대신하여 침략자를 격멸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진다.

그는 황제앞에서 지난날의 사사로운 혐의로 시비질을 하는 최국량의 행동을 단죄하며 자기는 비록 여자이나 침략자를 물리칠 기질과 용맹이 있다는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80만의 대군을 거느린 대원수가 되어 싸움터로 나간다.

조은하의 이런 성격형상은 사실상에 있어서 남존녀비사상을 제창하던 봉건도덕에 대한 항변인것이다.

특히 인상적인것은 조은하가 녀자라는것을 알면서도 황제가 그를 대원수로 임명하는것이다.

고전소설에서 녀장군부류에 해당하는 작품이 여러편 있지만 대부분이 녀자가 남북으로 가장하고 출정하는것으로 형상되고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녀자가 도도하게 황제앞에 나서며 또 녀자가 전투에서 실패한 남자를 구원하는것으로 형상하였다.

조은하의 이런 성격형상은 본질에 있어서 남존녀비사상의 부당성에 대한 비판인것이며 또 남존녀비사상은 타파되어야 한다는 봉건말기 시대감정의 반영이다.

이 소설에서 조은하의 부모의 형상도 중요하다.

조은하의 부모 조정로와 양씨는 두말할것없이 량반가문에서 출생하였으며 또 량반의 교육을 받고 량반의 규범대로 살아갈것을 추구하는 인간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딸이 자의로 류백로와 사랑관계를 맺었다는것을 알았을 때 크게 탓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최국량의 집에서 온 청혼을 물리치며 나중에는 딸을 데리고 류량의 길에 나서는것도 서슴지 않는다.

이것은 봉건말기 진보적인 사람들속에서 당대사회에 대한 불만과 반항의 감정이 높아가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조정로가 로상에서 객사할 때 최국량의 소행을 나라도 서슴없이 거역할놈이라고 규탄하는것을 통해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이 소설에서 은하의 시녀 준경의 형상도 인상적이다. 그는 대바르고 랑심이 있고 지혜로우면서도 의리와 인정이 있는 녀성으로 형상되었다. 준경은 시녀이지만 중요한 고리마다에서 은하를 도와주며 또 그와 생사운명을 같이할 결심을 품고 부닥치는 여러가지 재앙을 뚫고나간다.

이것은 평민들속에 간직되고있는 아름다운 도덕품성과 재능에 대한 찬양으로써 인민도덕의 우수성을 립증하여주는것이다.

이 소설에서 반침략애국투쟁의 문제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소설은 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절반가량이 반침략애국투쟁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고있으며 반침략애국투쟁속에서 주인공들의 성격발전과정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 고전소설작품들 중에서 적지 않은 작품들이 반침략애국투쟁을 반영하고있으며 이것을 흔히 《군담》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왜 우리의 많은 고전소설들에 반침략애국의 문제가 반영되게 되는가?

일부 론의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흥미를 조성하기 위한것으로만 보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이것은 반침략애국투쟁으로 지향한 시대적인 감정과 관련된다.

우리 인민은 고대로부터 외래침략자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웠다. 그런데 우리 인민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서도 임진조국전쟁과 같은 큰 전란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전란은 이시기 우리 인민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으며 조선봉건왕조말엽까지 우리 인민들을 애국적인 감정으로 고무하였다.

우리의 중세 고전소설들에 반침략애국투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것도 바로 이와 관련되는것이다.

《백학선전》에서도 이런 사정으로 하여 반침략애국투쟁은 소설의 구성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것이며 이것도 역시 이 시기의 시대감정의 반영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이 소설에서 류백로가 반침략애국투쟁을 벌이는 과정에 겪는 우여곡절, 조은하가 전투에서 거둔 빛나는 승리 등은 나라의 방비에는 관심이 없고 당쟁만을 일삼던 봉건관료통치가 빚어낸 것이라는 것과 애국적인 우리 인민은 마침내 침략자를 물리치고 말았다는 것을 시대력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백학선전》은 이와같이 봉건말기의 시대감정을 여러측면에서 생동하게 반영한 것으로 하여 이 시기 독자들에게 애독되었으며 또한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백학선전》은 소설의 구성의 측면에서도 예술적성파를 달성하였다.

이 소설의 구성에서 특색이 있는 것은 백학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나간 것이다.

이 소설작품에서 백학을 그린 부채-백학선은 소설의 사건줄거리를 발전시켜나가는 매개자적 위치에 놓여있다. 두사람이 사랑을 맺는 것도 백학선을 두고 이루어지며 사건이 심화발전되는 중심에도 백학선이 놓여있다.

소설의 이러한 구성조직은 사건줄거리를 가일층 선명하게 하며 여러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을 하나에 통일시키며 주제와 사상을 더욱 명백하게 부각시키는데 기여하고있다.

소설은 또한 갈등관계도 명백하게 설정되어 있어 독자들이 정의와 불의를 명백하게 느끼게 하며 최국량과 같은 악질적인 봉건관료배에 대한 규탄의 감정을 품게 한다.

이 소설에서 이러한 또하나의 예술적성파는 독자들이 작품의 세계에 끌려들어갈 수 있도록 극성을 잘 살려나가고있는 것이다.

소설은 첫시작부터 부모의 승낙도 받지 않고 산천경개 흐르는 아름다운 사당에서 조은하와 류백로 두 젊은이가 사랑을 맺는, 봉건사회에서 보기드문 비상한 사건을 보여주는바 독자들에게 이제 저 두 젊은이의 사랑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흥미를 자아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반인민적인 악질관료 최국량의 출현으로 하여 두사람사이의 사랑에 우여곡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서부터 극적인 긴장감을 자아내게 하며 류백로가 적들에게 체포된 긴박한 정황하에서 조은하가 녀자의 몸으로 황제앞에 나아가 최국량의 죄행을 단죄하고 대원수로 임명되어 출전하는데서 독자들의 감정은 상승된다.

이렇게 극성을 잘 조성한 것으로 하여 소설의 후반부는 전투장면으로 이루어지고있으나 지루감이 없이 독자들에게 읽히우고있으며 주인공들의 운명 발전에 큰 기대를 걸게 되는 것이다.

《백학선전》은 언어문제에 있어서도 일보 전진하였다. 물론 이 작품은 고전소설인것만큼 어려운 한자어휘가 일정한 정도로 남아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다른 소설들에 비하여 고사나 한자어휘의 람용은 적으며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나 묘사는 구두어에 훨씬 접근하고있다.

물론 《백학선전》에는 일정한 부족점도 있다.

이 작품에서의 중요한 제한성의 하나는 봉건군주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게 한 것이다. 소설에서는 악질적인 봉건관료를 황제의 힘에 의하여 처단하게 함으로써 황제를 지배계급의 우두머리로서가 아니라 리상적인 군주라는 환상을 독자들이 갖게 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에 있어서 양양되고있던 당시의 반봉건적인 투쟁을 원만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설의 원작에서는 또한 중요한 대목들에서 환상의 수법을 도입함으로써 진실감과 사실성을 상실하고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설의 구성에서 고전감래식의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부족점도 발로시키고있다. 주인공의 성격을 생동한 세부를 탐구하여 형상하지 못하였으며 사건전개를 주인공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범위에 머무르게 한 것이다.

또한 일부 대목들에서는 봉건유교사상을 미화분식하고 찬양한 제한성도 발로시키고있다.

이러한 제한성은 있으나 소설은 봉건말기의 시대적분위기를 예술적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 널리 애독되었으며 문학사적으로 의의있는 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누이를 생각한다

리명균

나는 바다를 볼 때마다 누이를 생각한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러나 생사조차 모르는 누이...

우리 오누이는 바다가에서 자랐다. 총석정이 멀지 않은 어촌, 어부였던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후 우리 식구는 어머니와 누나, 나 셋뿐이었고 아버지 대신 해종일 바다에 나가 물질(해녀의 잠수)을 하시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우리 오누이도 바다가에서 해를 지냈다.

어머니는 때로 우리 오누이가 노는 도래곶이 가까운곳에서 물질을 하시곤했는데 조개랑 전복이랑 캐가지고 불쑥 해변에 솟구쳐오르던 어머니의 물이 똑똑 흐르던 모습이 지금도 진하게 인박혀있다.

피유- 하는 긴 휘파람소리같은 날숨 내쉬는소리.

《인수야- 인순아-》

멀기우로 울려오는 어머니의 정겨운 목소리.

그러면 누나와 나는

《야, 엄마다!》

《엄마야- 머 켜니?》

기뻐날뛰며 막 바다물속으로 뛰어들듯이 달려갔다.

간혹 어머니가 오랜 시간 물속에서 나오지 않는 때도 있었다.

그러면 누나와 나는 겁먹은 눈으로 산중의 호수처럼 고요해진 해변을 주시했다.

《엄마 왜 안나오니?!》

내가 참지 못하고 울먹이면 다섯살이던 나보다 겨우 세살 우인 누나는 제법 의젓하게 나를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대답했다.

《걱정 마, 엄마 안죽어.》

《숨 어떻게 쉬니?》

《엄만 숨 안쉬고도 살아.》

하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숨을 안쉬고 살수 있랴.

어느해 비오는 날 어머니는 어둡도록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셨는데 다음날 새벽 이미 시신이 되어 물위에 떠올랐다.

그다음부터는 누나가 물질을 했다.

열한살짜리 해녀, 이른바 《애기해녀》였다.

그러나 그 애기해녀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의

누나였고 유일한 나의 보호자였다.

내가 아홉살이 되었을 때 누나는 말했다.

《인수야, 학교에 가라.》

《학교?》

《공부를 해야지. 사내가 공부를 못하면 뭇이 되겐? 남들은 여덟살에 입학하는데 넌 늦었어.》

《월사금 어떻게 무니?》

《걱정 마.》

그리하여 나는 분수없게도 학생이 되었다.

누나가 살이 찢기고 손톱이 모지라지도록 캐고 뜯은 미역 몇줄거리, 해삼 몇줌, 전복 몇웅큼. 조개살 몇되가 장마당에서 나의 학습장과 연필로, 운동화로 교환되었다.

누나는 학생이 된 나를 얼마나 대견해했던가.

최우등점수가 줄줄이 매겨진 나의 성적증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던가.

우리 집에는 쌀이 떨어지는 날은 많았어도 나의 앓은뱅이책상우 남포등에 석유가 떨어지는 날은 없었다.

《인수야, 게으름피지 말어. 열심히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지.》

하지만 누나와 내가 헤어져야 하는 날이 왔다.

누나가 열여덟살이 되었을 때 고등어떼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왔던 다도해의 한 젊은 어부가 누나를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다.

누나가 처음으로 몰래 분을 바르는것을 나는 보았고 때없이 꿈을 꾸듯 어딘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얼굴에 홍조가 어리군하는것도 나는 보았다.

그런데 어느날밤 바다가 술발을 지나다가 나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이제 그믐날 우리 배가 돌아가는데 난 그때 인순이를 데려가겠어! 갈 차비를 하라구.》

젊은 어부의 목소리였다.

누나는 대답이 없었다.

《...》

《왜 대답 안해? 싫어?》

《...》

《약속하지 않았어, 결혼하겠다고. 날 사랑한다고.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뭐야?》

《따라가겠다곤 안했어요.》

《그건 또 뭐야? 결혼은 하겠는데 안따라간다?》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누나가 왜 저렇가? 어부는 내 마음에도 드는 사람이었다. 서글서글한 눈과 억센 팔뚝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누나에게 찾아온것이 행복이라는것을 알고있었으며 기뻐했었다. 그런데 누난 무엇을 망설일가? 나는 안타까웠다. 누나, 어서 대답해, 같이 가겠다구, 저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건 눈을 보면 알아.

그러나 누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총각은 한숨을 쉬었다. 섭섭한듯 뇌었다.

《뜻밖인데? 안따라가겠다? 수수께끼네?》

이윽고 누나의 간청하는듯한 목소리가 들리었다.

《절... 정 생각하시면... 거기서... 여기에 오시라요. 우리 집에...》

《뭐? 내가 여기에?! 인순이네 집에?!》

《예...》

《우리 집은 어떻게구? 집엔 늙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데... 부모님들은 룽순이 넘었구 자식은 나밖에 없어...》

《그러면...》

누나는 울먹였다.

《절... 절... 잊어주세요...》

《무슨 소리야?!》

젊은이는 성을 냈다.

《전... 여길 떠날수 없어요...》

젊은이는 억박지르듯 재차 물었다.

《왜 떠날수 없어? 말해봐! 내가 물러설것 같아?》

《...》

《말해! 내가 인순이를 놓아줄줄 알아. 까닭두 모르구?》

《아시지 않나요. 저에겐... 동생이 있다는걸. 그애를 혼자 두고 제가 어딜 가요?》

누나는 흐느꼈다. 나는 돌연 무엇엔가 호되게 머리를 짓조는듯한 느낌이었는데 젊은이의 꺾꺾 웃는 소리가 들리었다.

《인수때문에? 인수때문에 그랬어? 웃기누만. 인수도 데려가면 될것 아니야. 우리 집에...》

《어떻게 그렇게야... 동생을 데리고 시집가는 처녀도 있나요...》

《괜찮아. 우리 부모님들은 좋은분들이야. 살림은 짜지게 가난하지만... 자, 그럼 약속했어. 이달 그믐날, 인수도 차비를 시키라구.》

그런데 누나는 또 대답을 안했다.

《...》

《왜 그래? 무엇이 또 걸렸나?》

《아무래도... 아무래도... 떠날수 없어요...》

《왜?》

《용서하세요... 전... 전... 인수를 공부시키려고 해요. 그 앤 보통학교를 최우등으로 나오고도 상급학교에 못가고 벌써 두해나 묵었는데 래년엔 꼭 중학교에 보내겠어요. 어떻게 해서나...》

나는 갑자기 뜨거운 날창에 가슴을 찢리우는듯했고 어부는 어처구니없는듯 무엇이라고 대꾸를 못했다. 한참후에야 어이없어하는 젊은이의 목소리가 들리었다.

《중학교에 보내겠단말이야? 무슨 힘으루?!》

《동생의 재간이 아까와요. 그 앤 머리가 뛰어나다고 담임선생님도 상급학교에 못보내는걸 여간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전 그 앨 꼭 공부시키겠어요... 무슨 일을 해서라두... 머리카락을 베어 팔아서라두... 종노릇을 해서라두...》

그날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누나도 잠들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나는 알았다.

어떤 말로 누나를 설복할가 하고 궁리하고 또 궁리하다가 나는 가만히 말했다.

《누나, 시집가! 내 걱정 말구. 그 사람은 좋은사람이야. 눈이 그렇게 시원한 사람은 무던하대.》

누나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나 앉았다.

《난 다 알아. 내가 굶어죽을가봐 그래? 안굶어죽어. 그까짓 공분 안하겠어.》

《무슨 소릴하니?!》

달빛이 뽕창으로 후연히 쏟아져들어오고있었는데 나는 누나의 성난 얼굴을 겁을 먹고 바라보았다. 나는 누나가 그렇게 성을 내는걸 처음으로 보았다. 머리카락이 어수선하게 흘러내린 누나의 얼굴은 앓을 때의 어머니같이 측은하면서도 무서운 모습이였다.

《공부를 안하겠어?! 공부하기 싫어졌니? 누날 시집보내자구? 구실이 좋구나!》

누나는 또 무엇이라고 욕을 더 하려는듯했으나 한숨을 짓더니 성냥을 찾아 남포등에 불을 켰다.

《잠 안오면 책이나 읽어!》

누나는 내가 읽다가 머리말에 놓은 책(나는 그때 중학강의록을 구해다 공부하고있었다.)을 집어 나에게 안겨주었고 자기는 터진 박(해녀들이 구명대용으로 쓰는)에 밀땀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음날과 그 다음날 누나의 눈치를 살피며

어떻게 할가 하고 내내 생각하고 또 생각했고 마침내 누나가 어부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야 한다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믐을 하루 앞둔 날 나는 집을 떠났다. 이런 쪽지를 남기고.

《누나, 잘 가! 날 찾지 말어. 누나가 시집가야 난 마을에 돌아오겠어...》

그것이 누나와의 마지막 작별이었다.

그후 나는 누이를 만나지 못하였다.

다음해 해방이 되었을 때 나는 고향마을에 돌아왔는데 누나가 어부를 따라가지 않고 날 찾아 원근동네를 살살이 헤매였으며 두달후 어부가 다시 데리러 왔을 때에야 따라갔고 갈 때 마을의 집들마다에 내가 오면 삼천포에 찾아오도록 일러달라고 제삼 당부했다는것을 알았다.

나는 시집을 가서도 마음놓지 못하고 지낼 누나를 생각하여 삼천포에 갔다오려고 했다. 그러나 마을어른들의 말이 38 선이 가로질리어 남쪽으로는 나갈수 없다는것이였다.

《38 선이 뭐예요?》

마을에는 내 물음에 똑똑히 설명해줄만한 사람이 없었으나 그 마귀같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마귀같은 힘으로 나라의 허리를 동강낸것이 우리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곳을 지나갔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었다.

그때로부터 40 년 세월이 흘러갔다....

모든것이 변했다.

강산도 변하고 사람도 변했다.

나는 50 대의 머리 희끗한 학자가 되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것이 있으니 그것은 누님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다.

누님을 생각할 때면 나는 50 나이가 아니라 다섯살짜리 벌거숭이가 되어 누나의 손을 잡고 도래굽이에 서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피유- 날숨 내쉬는 휘파람소리.

《인수야- 인순아-》

멀기우를 날아오는 어머니의 목소리.

《엄마야 머 췌니?》

《엄만 숨 안쉬니?》

누나를 만날수 없는 나는 바다에 나가기를 즐긴다.

바다가를 거닐면서, 바다를 보면서, 바다물의 비릿한 냄새를 맡으면서 누이를 생각한다.

아아, 누이를 생각한다.

《난 그 애를 꼭 공부시키겠어요. 어떤 일을 해서

라도... 머리칼을 베어팔아서라도... 종노릇을 해서라도...》

누님에게 내가 누님의 소원대로 마음껏 공부를 하고 대학교수로 일하고있다는것을 알려주었으면... 누님의 당부대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아 학자로서 높은 칭호인 과학원 후보원사의 칭호를 받았으며 나의 저작이 국내에는 물론 멀리 외국에도 소개되고있음을 알려주었으면... 그러면 나의 보통학교 최우등점수를 보고도 그리 기뻐하시던 누님은 얼마나 감격해하시랴.

그러나 지금 내가 누님을 위해 할수 있는것은 바다를 보며 누님을 생각하는것뿐이다.

누님을 생각한다.

누님의 사랑에 보답할길 없는 동생의 쓰린 가슴을 안고.

누님을 생각한다.

이제는 회갑이 가까운, 그러나 변함없이 애기해녀의 모습으로만 남아있는 누님을...

몇해전 여름 나는 초빙강사로서 아프리카에 갔었다.

돌아올 때 대서양의 한 관광도시에 들렀는데 그곳 부두의 풍경이 어릴적에 내가 누이와 함께 자란 고향마을, 총석정이 있는 바다가와 흡사한 점이 있어 나는 그곳에 머무르게 된 몇시간을 내내 바다가를 소요하는것으로 보냈다.

그곳 바다가에 총석정과 같은 돌기둥들은 없었으나 해안이 온통 돌바위로 되어있어 매우 아름다운 풍치를 이루고있었다.

맑은 바다물과 암벽으로 된 가파로운 기슭, 밀려오는 대양의 파도, 그 파도의 비발속에 싸우는 짐승무리들처럼 엉켜붙어있는 기암괴석들... 관광객들이 들끓었다.

《여긴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초행이라는것을 어느새 알아차린 안내원이 감실감실한 얼굴에 상냥한 미소를 띄우며 곁에 붙어섰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깜짝 놀라시게 됩니다.》

《나는 그리 잘 놀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김없이 놀라시게 됩니다. 내기를 할가요?》

《내기를 하면 당신이 질거요.》

안내원은 두팔을 짝 벌리고 흰이를 드러내며 입을 빙싹했는데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을 짓는것 같았다.

《나는 저본적이 없어요.》

《그럼 어디 가보지요.》

《마침 시간이 되어웁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경치를 구경하는데도 시간제약이 있소?》

《그렇지요. 가보시면 압니다.》

안내원은 서둘렀는데 멀지 않은 한 바위굴이를 돌아가니 과연 깜짝 놀랄만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때마침 왔습니다. 저걸 보십시오.》

안내원은 기뻐하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아찔한 높이의 단애가 해면을 향해 기울어진것처럼 위태롭게 솟아있는데 아래 도리만 간단히 가리운 별에 탄 벌거숭이 소년들이 7~8명 그우에 서있다가 아래로, 들쭉날쭉한 돌바위들이 물개처럼 흩어져있는 바다물속으로 곤두박치듯 떨어져내리는것이였다. 돌바위들썩에 깨어진 유리조각모양 퍼렇게 출렁거리는 바다물, 버랑우에서 거꾸로 떨어지는 소년들은 바로 그 조그마한 물웅덩이같은곳으로 돌입하는데 조금만 실수를 하면 돌바위에 몸이 형체없이 부서질것이였다. 그러나 소년들은 실수없이 마치 화산처럼 그 조그마한 물웅덩이로 내려꽂히는것이였다.

기상천외한 구경거리였다.

보는 사람들의 심장을 옥죄이게 하고 머리칼이 곤두서게 하는 광경, 그러나 바로 그 아슬아슬함이 관광객들의 박수갈채를, 남자관광객들에게서는 통제감에 넘친 환성을, 여자관광객들에게서는 희열이 섞인 비명을 일으켰으며 모험에 성공한 소년들에게 푼돈을 던져주게 하였다.

나는 경악했고 안내원에게 묻지 않을수 없었다.

《저런 놀음을 하다가 죽는 아이는 없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많진 않습니다. 자신없는 아이는 안하거든요. 죽은 아이들의 무덤은 저 절벽우에 있습니다. 저 소년들에게는 그런 관례가 있지요. 죽은 제 동무의 시체를 메어다가 절벽우에 장례지내는... 다른 아이들에게 무덤을 보고 자신없으면 그만두라는 경고였지요. 그러나 모험하는 소년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새로 더 늘어나지요. 벌이가 좋거든요. 용기와 재주만 있으면 하루 2~3팔라 벌이는 합니다.》

나는 돌아섰다. 소년들의 유쾌하지 못한 교예를 더 보고싶지 않았다.

그런데 안내원이 내 팔을 잡았다.

《저 용감한 소년들속에는 조선소년도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은 조선에서 오셨습지요? 이제 조선아이가 돌입하는걸 구경하십시오.》

《조선소년이 있단말이요?!》

《서울에서 왔다고 합니다. 한달전에 왔지요. 동작이 우아해서 특별히 사랑을 받습니다. 돌입직전에 두번이나 공중전회를 하지요. 볼만합니다.》

나는 그날 오후 첫시간에 떠나는 배에 오르려고 했으나 예정을 바꾸어 안내원에게 그 《조선소년》을 불러올수 없겠는가고 물었다.

《왜 못불러오겠습니까? 한팔라면 됩니다.》

반시간후에 소년이 나타났다.

13~14살쯤 되어보이는, 몸은 수척하나 팔과 다리에 힘이 느껴지고 눈빛이 맑은 소년이였다.

《거기 앉아라.》

나는 다방에서 소년과 마주앉았다.

《네가 서울에서 왔니?》

《예.》

《혼자서?》

《네.》

소년은 뜨거운 별에 그슬린듯한 눈섭을 찌프리며 의혹을 품고 나를 바라보았다.

《하필 왜 그런 위태로운 놀음을 하니?》

하고 물으려다가 나는 입을 다물었다. 얼마나 어리석은 물음이며 또 대답은 자명하지 않는가.

나는 이런 대답을 들을수 있었다.

《위험하지 않으면 돈을 주겠어요? 죽을수도 있으니깐 구경꾼들이 모여오는거지요.》

나는 측은한 시선으로 소년의 애된 얼굴을 더듬다가 물었다.

《너 공부하고싶지?》

《...》

소년은 대답하지 않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았는데 당연하지 않는가 하는 표정갈기도 하고 불필요한 소리를 한다는 표정갈기도 했다.

《나하고 같이 가지 않겠니? 내가 공부를 시켜주마.》

그러자 소년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로골적으로 나타났다. 소년은 조소하듯 야유하듯 그리고 도전적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일부러 입을 짹 벌리며 하품을 하고는 일어서는것이였다.

《같이 가자구요? 알만해요.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저씨같은 사람을 나는 여러번 만났댔어요. 속기도 했구요. 인젠 더 속지 않아요. 속는데 싫증났거든요.》

《나는 속이는 사람이 아니다.》

《속인다고 하면서 속이는 얼짜도 있나요?》

소년은 돌아서려고 했다.

《애, 이야기 좀더 하자.》

《이야기는 다 했어요.》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알말해요. 아주 좋은 사람이겠지요. 나같은 아이들을 불쌍하게 여기구… 그래서 돌봐준다는거지요. 어떻게 돌봐주는지 잘 알아요.》

소년은 떨시하듯 웃었다.

《피여다가 돈벌이를 해보겠다는거지요?》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 못써!》

나는 벌떡 일어섰다.

그러자 소년은 순간에 적수에게 달려들려는 싸움꾼과 같은 자세를 취하는것이였다. 내가 완력으로 붙잡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듯했다.

《날 다치지 말어요!》

소년은 나를 노려보며 사납게 울렸다. 그리고 슬금슬금 뒤걸음질을 치며 한마디 더 뱉었다.

《재미없는 생각 그만두는게 좋아요.》

《좀 서라! 왜 나를 의심하니?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다. 나는… 북조선에서 왔다.》

소년은 자기 귀를 의심하는 표정을 했다.

소년은 뒤걸음질을 멈추었다.

나는 되뇌었다.

《세상엔 협잡군만 있는게 아니야.》

소년의 새까만 눈동자속에서 반디불같은 불꽃이 반짝였다.

《북조선에서 왔어요?!》

소년은 어리둥절해하며 자기의 속단을 계면쩍어하는듯한 어조로 물었다.

《아, 그렇됐구만요. 북조선사람은 처음인데요…》

소년의 얼굴에 호기심과 반가와하는 기색이 나타났다.

《나는 교수의 직무를 가지고있다. 네가 공부를 하도록 주선해줄수 있다.》

소년이 흥분한다는것을 나는 곧 느끼었다. 소년의 얼굴은 흥조가 피어오르면서 경련했고 한쪽다리는 장단을 치듯 떨리었다. 건디기 어려운 유혹앞에서 질정을 못할 때 아이들이 그런 동작을 하는것이다.

그러나 소년의 흥분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일분후 소년은 단념한듯 한숨을 내쉬는것이였다.

《용서하세요. 고마워요… 그렇지만 따라가진 않겠어요. 따라갈수 없어요.》

《왜?》

《어머니는 어떻거구요?》

《어머니? 난 혼자라고 하지 않았니?》

《여긴 나 혼자 왔지만 집엔 어머니가 계세요. 내가 돈을 보내줘야 해요… 어머닌 몸을 상해서 누워계세요…》

나는 신음하였다. 소년의 모든 생활내용이 순간에 리해되는듯하였다.

《음… 그랬구나…》

나는 소년에게 더 권할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나는 한숨을 쉬고 담배를 피워물었다.

소년은 어쭙은 미소를 띄고 나를 바라보더니 깎듯이 작별인사를 했다.

《그럼 전 가보겠어요.… 아간 미안했어요. 버릇없이… 모르고 그랬어요. 용서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는 서글픈 시선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소년은 돌아서 나가려고 했다. 그러더니 문득 다시 돌아보며 묻는것이였다.

《북에 계시면… 아저씬 총석정에 가보셨겠지요?》

《총석정? 가보구말구. 그런데… 내가 어떻게 총석정을 아니?!》

《들었어요, 어머니한테서…》

《어머니한테서?》

《거기가 어머니 고향이래요.》

나는 심장이 멎는듯한 충격을 의식하였다.

나는 갑자기 귀머거리가 된것처럼 주위의 모든 소음이 들리지 않았고 주변의 모든것이 보이지 않았으며 오직 소년과 나만이 세상에 남은듯한 환각상태에 빠졌다.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이 순간 기적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을 직감하였다.

나는 오한이 나는 사람처럼 와들와들 몸이 떨리는것을 느끼며 마치 운명의 주사위를 던지듯 나직이 물었다.

《어머니 이름이 뭐냐?!》

소년은 대답했고 대답을 들은 나는 소년이 깜짝 놀라 격동된 내 얼굴을 의아히 주시하는양을 환영처럼 보았다.

《최인순?! 나이는 57 살이고? 외삼촌이 있다는 말씀은 안하시더냐?》

《있다고 했어요. 최인수라고…》

세상에 기적은 있다.

나는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였다. 내앞에는 누이의 아들, 외조카가 서있었다.

나를 그렇게도 사랑해주시고 나를 공부시키려고

그렇게도 애쓰신 누님, 동생을 위해 자기의 행복까지도 물리쳤던 누님,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내 누님의 아들...

꿈속에서처럼 외조카를 품안에 꼭 부둥켜안은 나는 기적같은 행운이 누님에게 다하지 못한 보답을, 사례를 다 쏟아부으라고, 다 갚으라고 이 외조카를 나에게 보내준듯이 생각되었다.

《난 널 놓아주지 않겠다. 너의 어머니가 나에게 쏟아부은 사랑의 백분의 하나라도 너에게 되돌려주지 않고는... 나는 너를 마음껏 공부시킬테다. 너의 어머니가 나를 공부시키려고 것처럼 애를 썼던 것처럼...》

하지만 나에게 찾아온것이 행운은 아니었다.

그 애는 끝끝내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

《삼촌, 나는 삼촌을 따라가고싶어요. 내가 얼마나 외삼촌을 따라가고싶겠나요. 거기엔 외삼촌형도 외삼촌동생도 외삼촌누나도 있겠지요? 야, 참 만나보고싶네. 그렇지만 어머니 혼자 남겨두고 나만 어떻게... 어떻게 나만 가나요?!》

어머니에게 외삼촌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어머니 내가 꿈을 꿔다고 하실거예요. 어머니 꿈마다 외삼촌을 본다고 했으니깐요. 외삼촌을 보지 않는 꿈은 없다고 했어요...》

꿈같은 해후는 몇배의 쓰라림을 주었다.

내가 타야 할 배의 출항시간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외조카를 그러안은 나는 눈앞이 어두워지고 목이 꼭 잡겨 말이 나가지 않았다.

《앓는 누님에게... 약 한첩 다려드리지 못하는 동생의 쓰린 마음을 너는 아직 다 모를거다... 내 대신... 앓는 어머니를 부디 잘 모셔다고... 내 대신 어머니의 뜨거운 이마를 짚어드리고 터갈라진 손을 어루만져드려다... 이 동생을 키우느라 어린 나이적부터 살이 찢기기 시작한 그 손을... 그리고 전해다고, 동생은 이미 머리에 서리가 뿌려졌으나 어느 순간도 누나를 잊고지낸적이 없다고... 어느때인가는 누님에게 단 한끼나마 동생의 지성이 담긴 끼니를 대접해봤으면... 그것을 유일한 소원으로 간직하고있다고... 전해다고, 부디 병을 이기고 일어나 오래오래 앉아계시라고, 동생이 찾아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디 기다려달라고... 불행한 강토에 통일의 종소리 울리는 날까지...》

조국에 돌아온후 나는 누님에 대한 걱정과 함께 외조카에 대한 걱정이 겹쌓여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앓는 누님은 어떻게 되었는지?

외조카는 집에 돌아갔는지?

나는 헤어질 때 외조카에게 그 위태로운 놀음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 죽을 먹어도 어머니와 함께 지내라고 거듭 당부했고 외조카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애가 외삼촌을 안심시키느라 거짓 약속을 하고 지금도 그 바다가 절벽우에서 죽음의 교예를 계속하고있지 않다고 누가 담보하겠는가?

바로 이 순간에 그 애가 바위돌들이 물개떼처럼 흩어져있는 푸른 물속으로 뛰어들고있지는 않는지?

바로 이 순간에 그 애가 실수를 하지는 않는지?

이미 절벽우에 그 애의 무덤이 생겨난것은 아닌지?

돈벌러 도망쳐나가 간혹 돈표를 보내오던 어린 아들의 소식이 끊어져 누님이 밤마다 뜬눈으로 지새우지는 않는지?

누님과 외조카를 생각하면 나는 아픔과 괴로움으로 숨이 멎는듯함을 느낀다.

무엇으로 이 고통을 지울수 있겠는가?

언제면 이 고통을 멈출수 있겠는가?

그런데 바로 어제저녁 텔레비존 보도시간이었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노동자들의 투쟁모습이 방영되고있었는데 한 젊은이가 미국기발을 불태우는 화면이 나타났다.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는 첫눈에 외조카를 알아보았다.

이제는 몸이 굵어진 그러나 낮익은 몸매, 변함없이 맑은 눈빛... 그 애였다!

승냥이의 허울같이 얼룩얼룩한 성조기에 불을 달면서 그 애는 히죽 웃었는데 그것은 《재미없는 생각 그만두는게 좋아요!》 하고 투지만만히 비웃음을 띄던 때의 그 인상 그대로였다!

그 애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것 같았다.

《그렇지않구요. 이걸 태워야 해요. 이게 나타난때부터 모든 불행이 생겨났거든요...》

나는 누님에 대해서 더는 걱정하지 않는다. 누님이 어떤 아들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알고있기에.

용감하고 재주있는 나의 외조카는 자기 어머니와 이 외삼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리라고 나는 믿는다.

시인과 조국통일열망의 서정

-한 시인에게 부치는 편지-

승경희

안녕하십니까? 시인동무!

오늘 제가 시인동무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보내지 않고서는 못건딜 마음의 충동을 받게 된것은 시인동무가 얼마전에 조국통일주체의 시초를 발표하였는데 그로부터 오래지 않은 오늘 또다시 이 주체의 다른 시초를 발표한 창작성과와 관련하여 몇가지 이야기하고싶어서입니다.

시인동무는 재작년에 《분계선 시초》라는 제목으로 그것도 편수가 많은 시초를 발표한바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분계선 시초》(《조선문학》 1988년 11호)는 성과작이라고 말할수 있는 좋은글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력작이라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보아졌습니다.

한해남짓한 기간에 두개의 시초를 발표했다는것을 가지고서도 시인동무는 조국통일주체의 우리 시문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있으며 통일열망이 높은 시인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분계선 시초》와 《통일열원》 시초를 일괄해서 볼 때 거기에는 몇가지 교훈적인 문제를 안고있다고 생각되나 우리 시인들과 조국통일주체의 창작에 적지 않은 창작경험적인것을 주고있다고 보아 이 편지를 우리 문단에 공개편지로 부치려 하니 시인동무의 향해를 바라는바입니다.

시인동무의 이전 시초(《분계선 시초》)에 대하여서는 《조선문학》 1989년 3호 《분렬된 조국강토의 비운의 정황과 시인의 서정》이라는 글에서 저의 소감을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그때 저는 주로 조국통일주체의 서정시의 정황과 그 전형화문제와 관련한 평론의 주제상성격때문에 시적정황과 전형화문제밖의 사상정서적내용과 예술성의 측면에 대하여서는 깊이 파고들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그 시초를 읽고 무엇보다도 크게 감동되었던것은 시인이 분계선앞에 서서 조국의 평정으로 듣고있는 애국의 큰 문제는 지나온 날의 해놓은 일에 있지 않고 들어내칠 분계선에 있다고 한 조국통일에 관한 책임감과 통일열원의 절절한 감정이었습니다.

시인은 《분계선 시초》의 시 《애국에 대한 문제》에서 이렇게 노래했었지요.

...

옛 조상들이 말을 달리던 단일 3천리에

갈라진 동족을 력사에 남기면서도
저 하나의 안락에 편히 눈 감는
그런 속물이 되지 말자 가슴치는 맹세

내 여기 분계선앞에 서서
가차없는 조국의 평정을 듣노라
아, 애국의 큰 문제는
지나온 날의 해놓은 일에 있지 않고
들어내칠 이 분계선에 있구나

애국의 큰 문제는 다른아닌 들어내칠 분계선에 있다고 본 시인의 조국통일성업에 대한 책임감과 통일열원의 감정은 같은 시초중의 시 《조국의 의미》에서 보다 심각한 생활적인 극성을 띤 서정으로 발전시켜 조국은 《허리가 끊기여서는 못사는 나 자신》이라고 엄숙히 주정을 쏟았습니다.

《분계선 시초》에 뒤이어 창작한 시초라는 점에서 볼 때 시초중의 몇편의 시는 솔직히 말해서 시인이 아닌 저에게도 선망의 느낌까지 가는 좋은 시들로 생각되었습니다.

시초 《통일열원》의 성과는 조국통일에 대한 절절한 념원을 우리 인민들의 통일열망의 비등된 감정의 높이에서 노래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시인은 그 누구보다도 시대의 대변자로서 시대사상의 높이에 서있는 기수가 아닙니까.

시인동무는 시초 《통일열원》에서도 시대의 대변자답게 오늘 분렬로 인한 조국의 비운의 정상과 그 정상으로부터 오늘 우리 인민의 고통과 노함의 걱정을 진실한 형상으로 잘 노래하였다고 봅니다.

조국통일의 념원을 노래하는 시에서 우리 인민의 통일열망을 진실하게 반영하는것이상 중요한것은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분렬을 반세기이상 끝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가까운 몇해안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수령님의 교시를 실천하는 길에서 우리 시인들의 과업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안을 높은 시적형상으로 확증하여 우리 인민을 통일성업에로 불러일으키는것입니다.

시인동무는 이러한 사명감으로부터 3천만이 갈라져 7천만이 되도록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조국

의 현실을 가슴아파하면서 이제 7 천만이 더는 1 억이 될 그날까지야 내다볼수 없지 않는가고 주정을 쏟았으며(시 《아름》에서) 분렬로 인하여 전쟁도 했고 눈물도 뿌리고 허리피도 조이면서 마흔다섯해나 통일숙원을 탐졌게 지고오지 않으면 안된 절절한것으로 하여 고품을 고괘치는 통일운명의 90 년대를 락관적으로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시 《분렬》에서)

이러한 시인의 느낌들은 그 개개의 시들에 한해서는 개성적이라 보아집니다. 아마도 이러한 시인의 개성들이 《분계선 시초》나 《통일열원》 시초들에 확산적으로 일관되어 시의 종자가 심어지었다고 봅니다.

조국통일주제의 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남북을 가로막고선 콩크리트장벽을 마스고 자유래왕을 실현할데 대한 공화국정부의 통일방안을 형상적으로 확증하는것이라고 봅니다.

시초 《통일열원》에서 시 《우리의 통일》의 성과는 분계선을 허물어버리고 자유래왕할데 대한 통일방안을 형상적으로 확증한 좋은 시라고 생각됩니다.

시인은 북을 방문하였던 《전대협》대표가 분단선을 넘어서는 력사적인 경이적사변을 심장에 사무쳐느낍니다.

넘어서면 칼을 밟고가야 할 땅에
누구도 지켜 못준 운명의 《수산나》
성모 승천하신 날이어서
한가닥 하느님의 지킴에 몸기대고
분단선을 밟으며 미사를 올렸던가

절망엔 희망이...
슬픔엔 기쁨이...
있어지라 있어지라
눈감고 기원한 그 8.15

민족아, 우리는 과연 힘이 없어
7 천만이 울며 보는 앞에서
그 장한 통일의 꽃 수경이
가슴치며 가슴을 치며
하느님을 찾게 하였더라만말인가

아니였습니다. 그런것은 결코 아니였습니다.

수경이 신앙의 첫문을 들어서 카톨릭 교아의 아명을 세례받은지 오래지 않은 천진한 《수산나》로서는 아직은 믿었던것입니다. 순수한 애국의 절절한 기원이면 청와대의 그 《싸란》들이 자기들이 지껄여대던 《통일》이 빈말이 아니되게 분단선을 무사히 열어주리라것을...

그러나 어찌되었습니까. 놈들은 분단선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경이 사생결단하고 분단

선을 밟고 넘을수밖에 없었는데 놈들은 넘어서자마자 그 어린 《수산나》의 손목에 쇠고랑을 채웠고 지옥같은 감방에 가두고말았습니다.

시 《우리의 통일》은 이러한 통일사절의 비극적운명을 진실하게 형상한 시라고 봅니다.

아무런 편견과 오해도 없이 순수한 애국의 마음을 지닌 수경이에 대한 이 시형상은 그자체가 원수들이 떠드는 《통일》이란 새빨간 거짓이라는것을 까발가놓은 시금석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이 시의 성공이 이것으로 해서 이미 결정지어졌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 우리의 통일은
누가 줄 자비의 선물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저 제주도 려염집아낙까지
폭파된 콩크리트장벽의 잔해우에
자유래왕의 발자국 찍을 거기에 있다

우에서 그려진 《수산나》의 운명의 정황과 그 내용이 무리없이 맞물려졌기때문에 시형상의 일반화도 잘 보장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래왕을 실현할데 대한 통일방안을 형상적으로 훌륭히 확증할수 있었고 시의 사상예술성이 높은 경지에서 담보되었다고 봅니다.

시초 《통일열원》이 이룩한 다른 하나의 성과는 조국통일성업에 해외동포들을 불러일으킬데 대한 공화국정부의 통일정책을 높은 사상예술성의 경지에서 감상적으로 잘 형상한 점이라고 봅니다.

시 《어머니의 부름》의 형상적성과가 그 실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인동무!

동무의 지난 기간의 통일주제의 시들은 대체로 리성과 지성이 짙은 특성을 지닌것이 특징이었는데 시 《어머니의 부름》은 매우 감성화된 시라는 점에서 시인동무의 지난 기간의 통일주제의 시들과 구별됩니다.

서정시의 특성을 어느 하나의 특징에 고정시켜 볼수는 없겠지만 지성이나 리성보다는 감성화가 서정시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되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것은 조금도 의심할바 아니라고 봅니다. 서정시란 우선 생활의 구체적인 계기에서 발현되는 감성적정서라야 보다 좋게 느껴진다는것입니다. 그런데 시인동무의 지난 기간의 통일주제의 시들은 감성화보다는 지성화된 리성화가 보다 짙게 안겨지는것이 특징입니다. 시인동무의 시의 이런 특징은 시의 지성적인 문제로까지 보아질 정도로 특징적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정시의 지성화된 문체적특성의 류형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것은 아닙니다. 다양다종한 이여의 문체적특성과 류형의 시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시인의 감성이 짙게 있어야 하는것만은 서정시로서의 양보할수 없는 원칙이 아닐까 하는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제가 얼마전에 동무의 이전 시초 《분계선 시초》의 일부 시들이 감성화되지 못했다는것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것도 제목에 한해서만...

이제 생각해보면 시인동무의 시들이 전반적으로 대체로 섬세한 감성화가 아니라 지성화된 리성이 더 특징이라는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특징은 물론한 시인의 문체적인 특성으로 볼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서정시의 경우라 할 때 그것은 그리 환영할만한것은 못된다고 봅니다.

지성이나 리성이라는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성의 높은 단계일 따름이지 감성의 바탕을 떠난 지성이나 리성이란 생각할수 없지 않습니까.

서정시에서 지성을 감성화에 앞세우려는 시인이 있다면 저는 그 시인더러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기는 〈지성의 시〉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시들이 있기는 합니다. 〈철학시〉나 〈정론시〉가 그러하듯이... 하지만 그 시들도 모두 그 서정의 바탕에는 짙은 감성이 깔려서야 그것들이 철학시나 정론시의 자격을 지닐수 있지 않겠는가》고 말입니다.

시인동무의 시초 《통일열원》과 《분계선 시초》의 여러 시편들이 그리고 통일주체의 시가 아닌 시초 《생각깊은 산마루》의 적지 않은 시편들에 이르기까지 그 시들이 감성적이라기보다 지성이 강한 시들이라고 보아 틀림없을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초 《통일열원》에서는 《어머니의 부름》과 같은 매우 감성화된 시를 읽게 되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나는 이 시를 읽고 《동기춘시인에게서 참으로 감성화된 생활적인 시가 〈탄생〉 하였구나!》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참으로 개성화된 시들, 감성이 짙은 시들을 생각할 때면 그 시들의 필자인 시인들의 얼굴들이 류달리 친근히 안겨집니다.

우리의 개화만발하는 시문학은 그런 훌륭한 시들과 개성이 있는 시인들을 적지아니 기억해둡니다. 생각나는대로 여기에 꼽아보면 시 《날이 밝는다》,

《무포의 밤》, 《나의 추억》, 《창밖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축원》을 생각할 때면 정서춘, 리정술, 홍현양, 김석주, 차영도 등 시인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벽동계선장》, 《산제비》, 《삼각산이 보인다》와 《서운한 종점》, 《평남판개시초》를 생각할 때면 김순식, 박세영, 조벽암, 리용악 등 시인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시인에게》, 《상쾌한 아침》과 《초혼》을 생각할 때면 리상화, 김소월의 얼굴들

이 떠오릅니다.

시인의 얼굴을 드러내게 하는 시들은 대체로 감성이 짙은 서정시들입니다.

자기 얼굴을 유감없이 보여준 시인동무의 시 《어머니의 부름》을 읽으니 다른 개성적인 시인들의 얼굴군상에 시인동무의 얼굴도 함께 그려집니다.

시인은 《어머니의 부름》에서 바다너머 산너머의 해외의 내 동포 내 형제들을 불러 조국 어머니의 부름소리를 듣는가고 물었습니다.

바다너머 저 멀리
산너머 들너머 저 멀리
내 동포 내 형제
들으시나요
어머니의 부름소리를

이역의 동포형제들을 부르고있는 어머니 그는 다름아닌 분단된 조국입니다. 분단의 죄사슬이 허리에 감긴 조국은 마흔다섯해나 되는 그 상처를 붙안고 아파하며 흩어진 자식, 이역의 동포들까지 찾고 있습니다.

제 부모 급할 때면
자식들이 단지도 했다는데
자식된 그 마음이야
물건너 있다고 다르며
먼 땅에 있다고 다르겠나요

피를 나눈 한겨레
살을 나눈 한동포
들으시나요
어머니조국의 부름소리를
다같이 저런 가슴 부들키고 일어서자요

공허하게 들리는 부름소리도 막연한 호소도 아닙니다.

이 시의 감성적인 부름은 그 부름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한 절절한 생활의 세부를 깔고있음으로써 더욱 절절히 들립니다. 그 생활의 절절한 세부가 무엇이나구요? 그것은 제 부모 급할 때면 단지도 한다는 자식, 그런 자식이고보면 물건너 있다고 다르며 산너머 있다고 다르라는 감성적인 시인의 주장이라고 봅니다.

참으로 시인은 참신하면서도 심각한 극점이 짙은 생활적인 세부를 시의 바탕에 깔았습니다.

부모 위급할 때 단지까지 한다는 말은 들은바있어도 그런 생활의 일화를 한편의 서정시에 적중히 깔은 시형상을 보기는 처음입니다. 여기에 이 시의 고유한 개성이 있고 성공의 비결이 있다고 보아지지 않습니까.

시인의 이런 특유의 세부형상으로 하여 이 시는

성공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생활적인 세부로 진실성을 완벽하게 보강한 시인의 절절하고도 강렬한 부름일진데 그 부름에 응아니할이 있겠습니까. 도의에 충실하고 효성에 지극한 자식이라면 그 부름에 응하지 아니할 사람 없을것입니다. 그가 목석이 아닌 이상에야...

어머니는 지난 사연 묻지를 않습니다
애오라지 기쁨줄 자식은
통일을 위해 오늘에 피터워하는
그 열에 있다고 해요
그 열에 있다고 해요

애오라지 기쁨줄 자식을 지난날 어떠했던지간 오늘 피터워하는 열에 있다고 하는 여기에 개성적인 시의 발견이 있으며 종자가 피여날 사상의 심오한 생활철학이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개성화된 시적발견이며 종자입니까! 그래서 시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시 《어머니의 부름》은 이렇듯 시적일반화도 무리없이 생활의 논리에 다른것으로 담보되고있어 시는 더욱 훌륭해졌다고 봅니다.

시다운 개성의 일반화로 하여 시는 한 시인의 감성의 분출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은 대하의 물이랑처럼 세차게 일렁이고 폭포수의 물소리 산악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울려퍼집니다.

시대와 현실에 대한 시인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반화의 이런 파장을 가리켜 우리는 서정의 항시적인 지속성 시의 여운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서정이란 무엇보다도 생활적인 정서로 일반화를 보장한것이라야 좋은 시가 될수 있다는 창작상의 경험을 이 시는 다시한번 웅변해주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인동무!

이 기회에 서정시 《어머니의 부름》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시초중의 시 《통일열원》 또한 좋은 시라고 봅니다.

물론 이 시에 대해서는 서정시로서는 좀 길어진 느낌이 간다는 독자들의 스쳐버릴수 없는 반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서정시가 길다는 그 조건만으로써 그것이 시의 우열을 가르는 기본문제로는 볼수 없지 않습니다. 우리 시단에서 성공적인 시로 인정된 서정시 《나의 조국》(김상오)이나 《어머니》(김철) 등은 역시 서정시로서는 긴축이 아닙니다.

시 《통일열원》은 좀 긴 서정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것으로서의 자기고유의 시체모를 갖춘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세기를 넘어 분렬을 끈다면

더는 시계들에 태업을 감지 말라
나에겐 만일이라는 그 말조차 역겹노라

이런 감성적인 서정의 생활바탕에서 도출해낸 백두와 한나에 터졌던 용암을 하나로 모아 이 세기의 하늘에 화산으로 뿜어 그 불에 장벽이며 철조망이 녹아빠지고 모든 시계들이 통일세월을 기뻐새길 때 우리 몇몇이 조상과 인류와 세계 앞에서 수치와 오욕과 불행을 결별한 조선사람이리라는 주정은 시로서 응분한 가치를 지니고있는 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동무, 지금까지 저는 시인의 시에서 좋게 느껴진 문제점들을 생각나는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좋은것이야 누가 말하지 않은들 엄연히 좋게 빛이 날것만은 사실입니다. 훌륭한것에 화려한 꽃다발이나 월계수를 아니쳐워놓은들 그것이 나빠질리 있으련만 그러나 나쁘다고 보아지는것들은 그것을 그냥 버려두거나 현상을 미화하여 찬사의 꽃보자기를 덮어놓는다면 기존의 나쁜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점차 영향은 커져 나중에는 보다 확산될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 시초 《통일열원》의 일부 시편들에서 미진한 점이라고 보아지는 문제들과 결함들을 이 편지에 적어두려 합니다.

시초 《통일열원》에서 찾아보게 되는 미학상결함은 주로 시초의 시들인 《분렬》과 《아픔》을 두고 이야기할수 있을것입니다.

시 《분렬》과 《아픔》은 형식이 새롭고 내용도 개개의 시들의 견지에서는 좋게 느낄수도 있습니다.

시 《분렬》만을 따로 생각해봅시다.

분렬 -
분렬된 땅이여서
전쟁도 했다
죽기도 했다

분렬 -
분렬된 땅이여서
눈물도 뿌렸다
허리띠도 조였다

마흔하고도 다섯해
통일숙원을 땀젖게 지고
아버지 뛰던 세월도 가고
내가 달린 세월도 거의 가고...

이렇게 좋게 쌓아가던 시인의 사색은 시의 뒤부분에 가서는 그 진실한 감성에서 벗어나 진실성이 없는 몽롱한 철학리념으로 서둘러 말하다보니 주정이 난해해질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력사는 그 어떤 량해를 기록하지 않더라
후손들은 선대의 결과만을 인정하거니

라고 시 《분렬》에서 주장하고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그 철학의 진실성문제는 차후문제로 본다하더라도 생활의 논리에 따른 감성의 진실한 흐름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 감정입니까. 시인이 주장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나 그렇다고 아무리 분렬의 비극을 겪고있는 시대와 인민이로서니 이런 아리송한 력사 철학관이나 생활관(따라서 미학관의 견지에서)으로 시대와 인민을 투시해볼수야 없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거니와 우리 인민도 우리의 결과만을 인정하고 그 어떤 량해도 전혀 하려 하지 않거나 기록하지도 않는 그렇게 린색한이들은 결코 아닌줄로 압니다. 력사적인 갑오농민전쟁이나 3.1 인민봉기의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거니와 가까운 광주인민봉기의 결과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역시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는 혁명의 결과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혁명의 결과만을 인정하는것은 아닙니다. 력사의 결과가 락관적이 못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아무런 량해할 것도 찾아보지 않거나 기록하지도 않는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비락관적인 력사가 다시는 빚어지지 않도록 자각하는 각성의 문제점에서도 혁명의 유익성을 찾아 그것을 좋게 인정하며 기록해둘 필요를 느끼며 기록해두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분렬된 조국을 통일할 과업은 우리 세대에 기어이 성취해야 하고 따라서 다음 세대까지 분렬된 조국을 물려줄수 없다는 것은 확고한 의지와 신념으로 굳어져있습니다.

때문에 시는 다만 확고한 의지로 신념화된 그 일반적인 기성화된 사색의 경지에 머물러있을것이 아니라 그 의지와 신념을 굳히고있는 새로운 생활적인 생신한 시의 세계를 찾아 거기에 열렬하고도 절절한 그러면서도 섬세한 감성에 피타는 느낌으로 노래하였어야 훌륭한 시로 될수 있었을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 《분렬》의 철학성은 통일기원의 비등된 열원이 타끓던 나머지 서둘러 정확치 않은 주관적인 철학의 보자기로 감싸다보니 시는 난해성의 결함을 벗지 못하고 모호해질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시의 난해성이란 철학의 심오성에 있는것이 아니라 주로는 철학의 모호성에 있다고 봅니다.

이 분렬된 땅과
분렬의 원쑤들을
우리까지 다음 세대에
그 무슨 상속물처럼 넘길수야 없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시인동무의 이 주장을 누구인들 따

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속물이라는것은 일반적으로 가산이나 가보, 기타의 좋은것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볼 때 이 시에서 분렬된 땅이나 분렬의 원쑤들을 상대하여 상속이요 뭐요 하는 말조차가 어떤지 우리에게겐 어색하게만 여겨집니다.

시 《분렬》에서 시인이 말하려고 한것은 다음 세대에까지 미룰수 없는 분렬된 조국에 대한 현시대인민의 책임감의 서정인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적어도 우리 시대와 인간에 대한 경지높은 철학으로 투시된 높은 형상적내용이 담보되었어야 했을것입니다.

시 《아픔》은 아픔으로서의 별개의 생활적인 서정을 새롭게 노래하지 못하고 시 《분렬》의 사색한계에서 벗어못난 주정의 되풀이여서 그 시세계의 전철을 밟고있는듯한 느낌이 드는 시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두 시가 각각 하나의 제목을 달수 있는 《분렬 1》, 《분렬 2》라고 할가요. 아니 그렇게 보아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두시는 시대로 서로의 다른 생신한 내용과 종자를 바탕으로 갈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시 《분렬》과 《아픔》은 특히나 하나의 시초속의 시라고 할 때 더욱 《쌍둥이》시라고 할만큼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내용의 공통성은 간혹 있을수 있는 창작현상이겠지만 그 내용에 대한 시인의 시적발견과 종자는 공통성이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분렬이자 아픔이고 아픔이자 분렬이라는것이 분단된 우리 민족의 오늘의 전형적주정이며 서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시가 엇비슷한 분렬의 철학을 담고있으니 이런 점을 보고서도 이 시들의 내용상 취약성을 지적할수 있다고 봅니다.

두 시의 마지막 련이라도 보기로 합시다.

아 절통한 분렬
이대로 더는 못살아
틀어쥐는 주먹 주먹속에서
통일운명의 90년대가 꿈틀 고패쳐라
(시 《분렬》에서)

막아선 무리들
미제와 파쑈의 무리들을
그놈들을 강토우에 그대로 두고
우리 1억을 내다볼수야 없지 않느냐
(시 《아픔》에서)

절통한 분렬로 하여 틀어쥐는 주먹속에 통일운명의 90년대가 고패친다는 내용과 막아선 미제와 파쑈의 무리들을 그대로 두고 우리 1억을 내다볼수 없다는 내용은 어텐가 서로가 새롭지 못하고 류사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두 시를 두고 독자들

이 《쌍둥이》 같다고 말하고있는데 저도 독자들의 그 반향에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시를 가리켜 하나의 유기체, 생명체라고들 흔히 말합니다.

시를 인간생명의 유기체에 비유할수 있다면 쌍둥이가 있듯이 시에도 쌍둥이시가 있을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룡담을 할수 있겠지만 사람인 쌍둥이는 그 쌍둥이들 서로의 인격을 각각 인정할수 있으나 시의 쌍둥이는 그 시들의 서로의 《인격》을 인정할수 없다고 봅니다. 다시말하여 쌍둥인 사람의 류사성은 인정할수 있으나 시의 류사성은 인정할수 없으며 또 인정해서는 안된다는것입니다.

시에서의 류사성 그것은 사색의 결핍이거나 개성이 파괴된, 무엇인가 허탈한 현상적인것으로서 사상이나 철학조차 고갈되어 시인의 창작작위기가 압박지경에 이른 때 생기는 비개성적인 창작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시인동무!

이 편지글에서 또 한가지 이야기하고싶은것은 시인동무의 두 시초 《분계선 시초》와 《통일열원》에 대한 독자들의 또 한가지 반향입니다.

독자들은 시인의 두 시초의 사상에술적가치를 저울질해보고 말합니다. 만약 시초 《통일열원》이 《우리의 통일은》과 《어머니의 부름》이 들어있지 않았다면 이전의 《분계선 시초》의 높이에 오르지 못했을것이라고 말입니다.

시초 《통일열원》의 가치가 《분계선 시초》의 가치에 못지 않다는 그러루히 좋게 평가하고있는 독자의 반향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디 기존의 시인의 시체계의 경지에서 한결음이라도 전진을 인정한 평가로야 됩니까. 그러니 독자들의 이런 평가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만약 독자들의 이런 평가에 만족하여 통일주체의 시창작에 필봉을 더 굳게 가다듬지 않는다면 분렬의 비극을 안고있는 우리 조국의 공민된 시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에서 제자리걸음하는것으로밖에 달리 평가할수 없게 될것입니다.

시인동무!

제가 이 편지글에서 말하려고 한것은 대체로 이런것들입니다. 시인의 시의 형식과 기교문제, 기타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고싶지만 편지가 너무 길어진것 같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후날에 이야기해볼 기회를 찾을까 합니다.

시초 《통일열원》에 대한 저의 생각이 혹시 속단이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된

다면 이 시초에 대한 이상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우리 다시 토론해볼수 있을것입니다.

시초 《통일열원》은 몇가지 미진점들이 있으나 조국통일주체의 우리 시문학을 풍부히 하는데 일정하게 이바지한 좋은 시초라고 봅니다.

시인동무.

오늘 분단된 남녘땅의 현실은 엄혹합니다.

미제와 남녘의 파쑈무리들을 반대하여 통일을 위해 싸우다 한몸바친 수많은 애국학생들의 뒤를 이어 어제는 다른 학생이 놈들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소식이 우리의 가슴을 허벼들었습니다.

남녘의 학생들과 로동자, 농민들이 희생을 무릅쓰고 원쑈들을 반대하여 과감히 떨쳐나서 싸우고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하였던 문익환목사, 문규현신부 등 남녘의 애국지사들이 파쑈의 무리에 항거하여 재판장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조국이 하나임을 피지도록 실토하고있습니다.

분단의 조국을, 이 엄혹한 남녘의 연설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느껴야 할 시인이고 보면 우리 어찌 오늘의 시창작성과에 머물러있을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날에 노래한 통일열원의 서정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뜨겁고 열렬하고 섬세한 우리 인민의 새로운 개성적인 서정을 탐구개발함으로써 우리 인민과 항쟁에 떨쳐나선 남녘형제들, 해외동포들과 세계의 량심적인 인민들을 우리 조국의 통일성업에 떨쳐나서도록 불려일으켜야 할 력사적사명을 자각하고 시인들은 보다 불타야 할것입니다.

조국통일주체의 시를 창작한다는것은 물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통일에 관한 우리 인민의 열망이야말로 그 어느때보다도 비등되고 또 그 열망자체가 매우 엄숙하고도 절절한 숙원인것만큼 그에 맞게 시인의 사색 역시 그 통일열망의 높이로, 아니 그보다도 더 높이 불타야 하기때문일것입니다.

우리 시단에 조국통일주체의 시를 류달리 많이 창작하고있는 시인동무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는 큼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토록 심려하시고 우리 인민이 절절히 열망하고있는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작가들과 시인들은 당의 문예전사된 역할을 유감없이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오늘의 편지는 이상으로 그치려 합니다.

시인동무의 앞으로의 창작에서 보다 새로운 성과가 있을것을 바랍니다.

혈맥이 이어질 강토

리광월

행복과 기쁨을 두고 말할 때 또한 불행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것은 우리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생활감정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행복을 이루는 오늘의 모든것이 쓰라린 과거와 이어져있기때문일것이며 보다 중요하게는 반세기가 되어오도록 지속되어오는 비극적인 민족의 분열때문이라.

나는 며칠전 생활의 레사로운 한 단면을 통하여 행복과 불행, 타협될수 없는 이 두 진영의 감정을 동시에 체험할수 있는 기회를 우연히 가질수 있었다.

둘째삼촌의 70 뉘 생일을 지낼 때였다. 우리 형제들과 친척들은 소박하게 상을 차리고 삼촌의 생일을 축하했다. 사회의 각이한 혁명초소들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좀처럼 마주앉을 기회가 없었던 우리들은 혈육의 회포를 나누며 즐거운 이야기들로 꽃을 피웠다.

이야기의 방향은 대체로 점착제에 대한 새로운 문헌을 완성하고 준박사학위를 수여받은 형님과 시집갈 나이에 이른 나의 사촌누이에게로 돌려졌다.

《허허. 이번에는 영숙이(나의 사촌누이) 결혼식상을 차려주는가부다 했는데 내가 먼저 받았군.》

70 뉘상을 받은 둘째삼촌이 주기가 약간 도는 감개무량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자 셋째삼촌이 넋지시 한마디 했다.

《형님, 걱정 마시우. 보아하니 그 애도 점찍어둔 총각이 있는것 같수다.》

《어마나.》

사촌누이가 빨개진 얼굴을 싸쥐고 부엌으로 뛰쳐나가자 아래옷방에서 가벼운 웃음이 터졌다. 이때 한옆에 앉아 말끄러미 어른들의 말을 듣고있던 네살잡이 외조카가 불쑥 왕청같은 질문을 던졌다.

《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는 왜 안오나요?》

어린것의 이 한마디 말에 화기락락하던 방안의 분위기는 순간에 일소되고말았다. 《작은할아버지》란 남조선에 있는 나의 넷째삼촌을 말한다.

나의 아버지는 전쟁의 불길속에서 고향 수원에 어린 그를 남겨두고 떠나온 뒤 아직 생사여부조차 모르고있다. 우리 부모친척들은 기쁘고 슬플 때마다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한숨을 짓군한다. 바로 며칠전에도 아버지는 집에 놀러 온 외조카를 무릎

에 앉히고 《너의 작은할아버지는 어떻게나 살고있는지 모르겠구나.》 하고 말했었다. 아마 그래서 얼굴조차도 모르는 어린 외조카에게까지 《작은할아버지》란 표상이 인찍혀진 모양이었다.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드리웠다. 누구도 외조카의 물음에 대답을 주지 못하였다. 밝고 명랑했던 웃음과 따뜻한 분위기는 가신듯이 사라졌다. 이 얼마나 가슴쓰린 비극인가. 외조카가 작은할아버지를 모르고, 작은할아버지가 손자를 모르고...

피부와 언어가 다른 대양과 대륙너머에서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가고하는데 제 나라땅에 있는 혈육들에게 서신 한장조차도 전할 길이 없으니... 나는 가슴이 아팠다. 어찌하여 행복의 창공에 마음껏 나래를 펼쳐야 할 우리 세대들이 때없이 이런 가슴쓰라림을 당해야 하는가. 혈맥이 이어진 이 강토가 두개로 동강난지도 어언 반세기, 비극적인 분열이 가져온 민족의 참사란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것이었던가.

사람들은 오늘 자신이 누리고있는 행복에 대해 말하기전에 분열의 아픔을 먼저 느끼고있으며 꿈결에도 조국의 통일을 념원한다. 사람이란 결코 잘 먹고 좋은 옷을 입는것만으로는 행복할수 없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에게 천하진미가 달지 않듯이 그가 이 나라의 후손일진데 어찌 겨레의 피가 흐르는 조국의 절반땅을 눈앞에 두고 마음이 평온할수 있으랴.

준박사학위를 수여받는 그자리에서, 혹은 네칸방의 번듯한 다층주택으로 새집들이를 하거나 손자가 차려주는 70 뉘상을 받는 자리에서 생각처럼 그렇게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분열에 대한 아픔때문일것이며 민족속원의 의무에 대한 자책감에서일것이다.

분단된 조국의 통일, 이는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서는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업이며 그것을 떼여놓고는 그 어떤 기쁨이나 행복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

그렇다. 우리는 더이상 분열의 고통을 참을수 없다.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이 분열을 단호히 끝장내야 한다. 조선은 통일되어야 하며 반드시 자주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통일아 어서 오라

강기수

달 력

하얀 벽에 달력을 걸고
첫장을 번지니
새해의 날과 날들이
그 뉘의 눈망을들처럼
나를 마주보누나

온몸에 휘발유를 끼었고
통일을 위해
분신자결하는 남녘청년도 있는데
판문점을 향해 한치한치 등밀이로 오다
폭압에 쓰러진 남녘학우도 있는데
정녕 조국통일을 위해 내 바친것 무엇이냐

범민족대회가 열렸던 지난 여름도
내 고향으로 가는 길
콩크리트장벽이 막아섰을 때
피타는 웨침인양 땅을 치며
또다시 다지던 맹세는 무엇이었던가

생사를 알길 없는 어머니

팔순이 지난 어머니
자식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내리도록
생일상 한번 차려주지 못하고 사는
그 피타는 갈망이
천근만근으로 달력에 실리누나

더는 미룰수 없다 통일
더는 바랄수만 없다 어머니와의 그 만남
온 겨레의 가슴에서
불길처럼 타오른 통일의 념원
바치리라 분렬의 장벽을 태워버릴
그 불길이 되어

더는 어길수 없는 언약처럼
새해 달력을 거노라
90년대 두번째로 거는 이 달력의 날과 날을
통일을 기다리며
이 아들을 마주보는
내 고향 저 남해가의
어머니 눈빛처럼 마주보며

봄 비

한지맥으로 잇닿은
산과 들
나무와 바위를 어루만지며
봄비가 내린다
분계선상에 봄비가 내린다

포근히 감싸진 어머니손에서
언손이 녹듯이
열었던 대지를 애무하며
보슬보슬 봄비가 내린다
여기서는 간절히 마음속에도 내린다

비도 안타까운지
철조망에 내려
피타는 분렬의 아픔인양
방울방울 눈물로 떨어지는듯
타는 이 가슴도 적신다

불타버린 갈밭에도
봄비가 내린다
내려선 파릇파릇 새싹을 움틔운다
푸르른 한모습을 부른다

삭은 철조망에 방울방울 맺히는 비방울
너는 물방울이 아니다
갈라져 수십년 민족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쳐올라 그대로 내리는
애탄 호소인듯

재촉하듯
두드리듯
이 가슴에도 내리는 봄비
이해의 첫 봄비는
가슴가슴에도 푸르청청한
통일의 그날을 움틔운다

한하늘
한지맥에 내리는 봄비

이 땅에 꽃피고 열매맺을 싱싱한 푸른싹을
이 가슴에 키워주며
하늘가득 땅가득 봄비가 내린다

무너지리라

파란 하늘 열리며
내리던 비 건뚝 몇자
동네애들 모여서
동쪽 헐기놀이 하누나

동쪽이 무너져내리니
콘크리트장벽이 무너져내린다고
와아! 환성을 울리는 조무래기들
서로 얼싸안고 돌아가누나

바지가랭이 젖는줄 모르고
한줌 두줌 쌓는 동쪽
한패는 무너뜨리려
비닐신 벗어 물을 길어 쏟누나

아, 철없는 장난만이 아닌
티없는 어린 갈망이
이 가슴에 채찍질하누나
이 어린 가슴들에마져
시대의 아픔이 실렸단 말인가

뜯에 성냥갑마냥 만든것은 화점 아니냐
가시나무 꺾어 꽃은것은 철조망 아니냐
가슴몽클해지는 생각이여
너희들은 콘크리트장벽 허물기놀이 하누나

허나 너희들이 것처럼 허물어내듯이
분렬의 장벽은 기어이 무너지리라
하늘땅에 가득찬 통일의 열망은
90년대에는 기어이 그 장벽을 허물리라
너희들의 앞날에는 장벽이 없으리라

출렁출렁 차는 물에